

지역기업의 국제통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lobal Commerce Activation
of the Local Enterprise

金 泰 憲

연구진

연구책임자 • 김태헌 박사 /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서 문

21세기는 FTA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재의 국제경제관계는 자유무역협정이 큰 이슈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성장은 언제, 어느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국제무역의 불륨을 증가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그 진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은 대덕R&D특구에서 산출되는 첨단과학기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전지역은 지난 30년간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30조원이 집중 투자되어 왔으며 2004년 대덕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2005년 <대덕 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마련, 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한바 있습니다. 특구지원본부를 축으로 특구 육성 기반 및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덕연구단지의 첨단기술을 활용,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혁신 클러스터 구축으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경제주체는 첨단과학기술을 상용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무역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려는 노력에는 극히 제한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연구원의 국제통상팀에서는 대전지역 기업의 국제무역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지역무역정책, FTA 추진전략개발, 국제지역별 수출전략개발, 동북아 경제협력방안 연구, 지역기업의 수출입 동향분석,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진행된 <지역기업의 국제통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매우 시의성있는 주제라 사료되며, 대전시정의 발전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수고한 연구진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향후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시정의 쌍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12.

대전발전연구원장 육동일

- 목 차 -

제 1 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과정	4
제 2 장 우리나라 지역별 산업구조 분석 및 국제통상 현황	7
제1절 우리나라 지역경제 일반현황	9
1. 우리나라 지역별 산업·경제구조	9
2. 각 지역구조의 강점과 약점분석	18
제2절 지역별 국제통상 활성화를 위한 기본연구	25
1. 지역별 국제통상 현황	25
2. 현행 국제통상 지원정책 분석	34
제 3 장 대전지역 산업의 특징과 국제통상 상황	61
제1절 대전지역 경제 일반현황	63
1. 대전 산업구조 특징	63
2. 대덕 R&D특구와 대전산업단지	69
제2절 대전지역 국제통상 현황	85
1. 대전의 국제통상 현황	85
2. 대전의 현행 국제통상 지원정책	90
제 4 장 지역산업의 글로벌화 지원전략	99
제1절 지역기업 국제통상 설문조사 분석	101
1. 설문조사 개요	101
2. 설문조사 분석	101
제2절 지역산업 글로벌화 방안	111

1. 우리나라 지역산업의 글로벌화 지원전략	111
2. 대전지역 산업의 글로벌화 지원전략	116
제 5 장 결 론	121
참 고 문 헌	129

- 표 목 차 -

〈표 1-1〉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3
〈표 2-1〉 지역별 GRDP 변화추이	8
〈표 2-2〉 광역경제권의 산업집적 현황(2005년, 생산액 기준)	11
〈표 2-3〉 연구개발 부문별 추이	13
〈표 2-4〉 지역 간 이출액 구성비 현황	14
〈표 2-5〉 지역 간 이입액 구성비 현황	15
〈표 2-6〉 타 지역 수요의존도 및 생산 유발률	15
〈표 2-7〉 가중 기업투자환경 종합지수 분석결과	17
〈표 2-8〉 지역별 수출증가율 추이	24
〈표 2-9〉 각 지역별 주요 수출품목	25
〈표 2-10〉 주요 지자체별 수출입 동향	26
〈표 2-11〉 시도별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2004년 기준)	31
〈표 2-12〉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32
〈표 2-13〉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32
〈표 2-14〉 규모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33
〈표 2-15〉 지역별 수출비중 및 증감률 추이	34
〈표 2-16〉 한국과 중국의 산업 및 기술 경쟁력 비교	35
〈표 2-17〉 국내 중소수출기업의 국제화 애로요인	35
〈표 2-18〉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지원내용	39
〈표 2-19〉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내용	43
〈표 2-20〉 온라인 수출지원 변경내용	44
〈표 2-21〉 국제협력사업 계획	46
〈표 2-2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서비스	48
〈표 2-23〉 해외투자진출 지원 서비스	49

<표 2-24> 중소기업 지원현황	51
<표 2-25> 대고객 서비스 지원	51
<표 2-26> 수출 지원 금융	52
<표 2-27> 수출 신용 보증	53
<표 2-28> 해외 경제협력 증진사업	54
<표 2-29> 무역서비스 할인클럽 서비스 내용	56
<표 2-30> 수출입운임 서비스 내용	57
<표 3-1>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 추이	61
<표 3-2> 주요 제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 추이	62
<표 3-3> 서비스업 구성비 및 입지계수(2004)	63
<표 3-4>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64
<표 3-5> 대전경제 SWOT 분석	65
<표 3-6> 정보통신산업 SWOT 분석	66
<표 3-7> 바이오산업 SWOT 분석	66
<표 3-8> 지능형로봇산업 SWOT 분석	67
<표 3-9> 지역혁신산업 유형별 현황	67
<표 3-10> 산업단지현황	68
<표 3-11> 유형별 입주기관현황	71
<표 3-12> 특허(누적) 및 기술이전 건수	71
<표 3-13> 연구 장비 인프라	72
<표 3-14> 특구 내 코스닥 등록기업 현황	72
<표 3-15> 특구 내 인원현황	72
<표 3-16> 16개 시도 혁신자원 비교	73
<표 3-17> 국내외 혁신클러스터 비교	75
<표 3-18> 주요 경쟁 클러스터와 대덕의 글로벌화 비교	77
<표 3-19> 산업단지별 생산실적 현황(2007.4/4)	79
<표 3-20> 산업단지별 업종 구성 현황(2007.4/4)	80
<표 3-21> 대전 3·4산업단지 입지 만족도	81

<표 3-22> 기업경영 및 운영성과 만족도	81
<표 3-23> 대전3·4산업단지의 문제점 인식	81
<표 3-24>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 보유	82
<표 3-25> 연구개발 인력 수	82
<표 3-26> 기술협력 증진에 있어서 문제점	83
<표 3-27> 대전지역 수출입 추이	84
<표 3-28> 산업별 수출 현황	85
<표 3-29> 산업별 수입 현황	85
<표 3-30> 대전 10대 수출입 품목 현황	86
<표 3-31> 지역별 수출국가 현황	87
<표 3-32> 지역별 수입국가 현황	88
<표 3-33> 대전충남 벤처수출 현황	88
<표 3-34> 대전충남 벤처수출 연도별 현황	89
<표 3-35> '08년 사업추진 계획	92
<표 4-1> 사업영위연도.....	98
<표 4-2> 응답 업체의 종업원 수	98
<표 4-3> 응답 업체의 직종 및 주력수출품	98
<표 4-4> 수출 업무 담당 종업원 수	98
<표 4-5> 수출업무 관련 애로사항	99
<표 4-6> 자사의 향후 수출 전망	101
<표 4-7> 국제통상 관련 정보 출처	102
<표 4-8> 수출지원 정책 제공 기관	103
<표 4-9> 수출지원 프로그램	103
<표 4-10> 희망 수출지원 프로그램	105
<표 4-11> 수출지원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른 지원제도의 중요도	106
<표 4-12> 해외수출지원제도 중요도·활용도·만족도평가	107
<표 4-13>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국내기업 유치 시 장단점	112
<표 4-14> 지역별 수출지원프로그램 참여도	115

- 그림 목 차 -

[그림 2-1] 시도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 비중	7
[그림 2-2] 타 지역 수요의존도와 생산 유발률로 본 지역경제의 구조	16
[그림 2-3] 시도별 기업투자환경 종합순위	18
[그림 2-4] 주요 업종의 하반기 수출증가율 전망	28
[그림 2-5] 주요 업종의 하반기 수입증가율 전망	29
[그림 2-6] 업종별 하반기 산업 전망 기상도.....	30
[그림 3-1] 대덕 R&D 특구 규모	69
[그림 3-2] 대덕특구 발전전략	70
[그림 3-3] 산업단지 규모	78
[그림 3-4] 유망상품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체계도	91
[그림 4-1] 주요 수출 거래 지역	99
[그림 4-2] 내부적 애로사항	100
[그림 4-3] 외부적 애로사항	100
[그림 4-4] 수출 활성화를 위한 희망 활동	101
[그림 4-5] 수출 지원 정책 도움 유무	102
[그림 4-6] 수출 지원 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04
[그림 4-7]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	105
[그림 4-8] 지자체가 국제통상 활성화를 위해 강화해야 할 부분	106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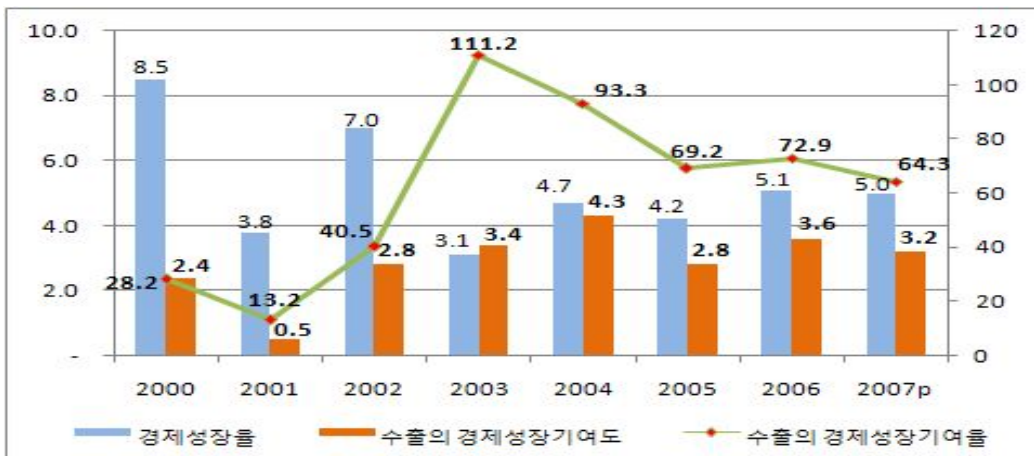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과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무역협회의 「2007년 수출과 국민경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5% 중에서, 3.2%가 수출로 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64.3%에 달하여 수출이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출의 취업기여율은 2003년 11.9%를 기록한 이후 2005년에는 14.2%, 2007년에는 16% 달한 것으로 조사되어 경제성장 외에도 고용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원자재가격상승, 원화강세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이루어낸 성과이며 앞으로 더 많은 걸림돌 속에서도 한국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및 여러 유관기관들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표1-1>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자료 :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한편 세계화, 지식기반시대의 가속화로 인하여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Glocalization 시대 속에서 지역적 세계화에 대응하여 각 지역이 고루 발전하여 그 지역만의 잠재산업을 바탕으로 국제통상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해외시장 다변화에 따른 지역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키고 수출 잘하는 지역기업으로 육성·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대전지역은 지난 30년간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30조원이 집중 투자되어 왔으며 2004년 대덕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 2005년 “대덕 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마련, 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하여 특구 육성 기반 및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덕연구단지의 첨단기술을 활용,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혁신 클러스터 구축으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수도권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연구비, 연구원, 연구기자재, R&D예산 등의 혁신자원이 집적된 지역이며 혁신활동을 통한 산출지표인 특허, 벤처기업 수 SCI 논문 등에서도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혁신클러스터와 비교해 볼 때 대덕은 연구 성과의 사업화 측면이 부족하며 대덕 특구 내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 R&D 센터의 유치가 저조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전시는 각종 수출지원 정책과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할 필요가 논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지역 및 대전지역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킬 방안들을 강구함과 동시에 기존의 시장 외에 새로운 유망시장을 개척하여 통상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對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선행연구에서 지역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통상 방안들은 대외 정책 차원에서 이미 많이 논의된 바 있으나 대전지역의 특성에 맞는 통상정책에 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역별로 지역경제 및 국제통

상 현황을 살펴보고 대전지역을 따로 분리하여 지역경제의 특성 및 국제통상 현황 및 지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현재 중앙정부, 각 지자체 및 여러 무역유관기관 등의 정책기관들이 독자적 또는 협력하여 수출지원 정책을 제공한다.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인력, 자금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많으며 점점 규모나 예산 면에서 지원받는 기업을 확대하고 있다. 법률, 회계, 무역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전문적이며 종합적으로 수출입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한편 실제 수출업무를 하는 업체들은 현재 어떠한 애로사항을 겪으며,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출지원프로그램에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어떤 혜택을 받는지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과 수도권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지역의 특화산업을 장려하고 지역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전략을 세우기 전에 2장에서 우리나라 각 지역별 경제 현황 및 산업구조, 수출입현황 등을 살펴보고 각 지역구조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본다. 지역별 국제통상 현황은 무역협회 각 지부 및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통계자료를 참고하며 수출지원프로그램은 중앙정부 기관, 중앙정부산하기관, 기업경영단체 등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설명한다. 3장에서는 대전지역을 따로 분리하여 대전지역 산업·경제구조, 국제통상 및 외국인투자유치 현황을 분석하고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혁신 클러스터 대덕 R&D 특구와 대전 산업단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4장에서는 현재 수출입업무를 하는 충청권과 수도권 10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지역기업의 수출입업무 애로사항과 무역유관들이 제공하는 지원정책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위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지원전략을 세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위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책제언과 본 보고서의 한계점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제 2 장

우리나라 지역별 산업구조 분석 및 국제통상 현황

제1절 우리나라 지역경제 일반현황

제2절 지역별 국제통상 활성화를 위한 기본연구

제2장 우리나라 지역별 산업구조 분석 및 국제통상 현황

제1절 우리나라 지역경제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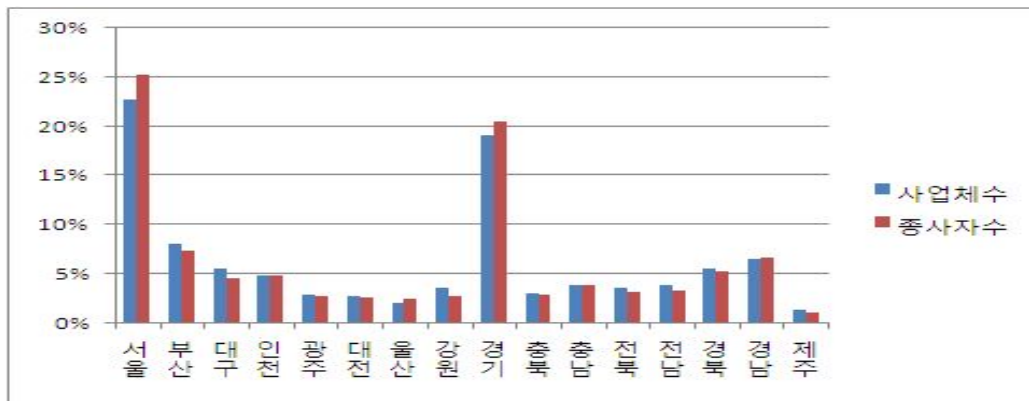
1. 우리나라 지역별 산업경제구조 분석

지역의 특화산업을 장려하고 지역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 및 유관 기관들의 국제통상 지원방법을 모색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각 지역별 산업 및 경제구조의 파악이 요구된다.

1) 시도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

2006년 기준 시도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비중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사업체 수 전국대비 47%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 전국대비 51%를 차지하는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으로 사업체와 노동인구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시도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 비중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6

수도권 다음으로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이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전국 대비 17%로 나머지 타 권역별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 지역별 GRDP 변화추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기간 동안 지역별 GRDP(지역내총생산)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0년 동안의 전국의 GRDP는 경상가격 기준 연평균 7.1% 증가하였다. 전 기간 동안 충남이 10.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8.4%, 경북 8.3%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전 기간을 5년씩 전반기, 후반기로 분리하여 살펴봤을 때 동일하게 전국 GRDP는 7.1%씩 증가하였으며 충남은 전반기, 후반기 모두 10%대의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충남의 비약적인 발전요인은 전통농업 중심 도에서 첨단산업 중심의 도로 산업구조¹⁾를 변모시킨 것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전·후반기 증가율 격차는 제주지역의 증가율이 3.7%로 가장 컸다.

〈표 2-1〉 지역별 GRDP 변화추이

(단위 : %)

	GRDP 총액					1인당 GRDP	
	연평균 증가율			비중		연평균 증가율 1995-2005	전국대비 비중(2005)
	전기간	전반기	후반기	비중 (1995)	비중 (2005)		
전국	7.1	7.1	7.1	100.0	100.0	6.6	100.0
서울	6.2	6.3	6.1	24.9	22.8	6.7	109.7
부산	5.8	5.3	6.4	6.4	5.7	6.7	75.9
대구	5.5	5.7	5.3	3.8	3.3	5.4	63.5
인천	6.0	4.5	7.5	5.1	4.6	5.0	86.3
광주	6.5	5.9	7.1	2.3	2.2	5.3	72.9
대전	7.0	7.2	6.7	2.3	2.3	5.4	75.5
울산	7.8	9.2	7.2	5.8	4.9	7.0	221.5
경기	8.4	9.0	7.8	17.7	19.9	5.1	90.5

1) 충남 산업구조 변화추이('95→2005년,부가가치기준), 농림어업(14.1→7.3%), 광공업(28→45.0%), 서비스업(57.9%→47.7%)으로 10년 동안에 광공업 중심으로 구조 전환을 하였다.

강원	6.2	6.5	6.0	2.9	2.7	6.5	87.5
충북	6.2	6.8	5.5	3.4	3.1	5.8	101.5
충남	10.4	10.8	10.0	4.2	5.7	10.0	143.8
전북	5.7	6.1	5.3	3.4	3.0	6.8	79.9
전남	6.8	5.2	8.5	5.1	5.0	8.6	129.1
경북	9.3	8.2	8.4	6.3	7.1	8.8	128.3
경남	7.1	6.1	7.5	8.2	6.7	6.9	103.1
제주	6.6	4.7	8.4	1.0	1.0	6.1	86.3

자료 : 김정홍, [최근 10년간 지역별 투입요소별 산업성과 변화], KIET, 2005

주 : 울산과 경남은 행정구역분리에 따라 통계가 입수된 1998~2005년까지를 대상으로 함.
전기간 (1995년~2005년), 전반기(1995년~2000년), 후반기(2000년~2005년).

2005년 기준 GRDP 전국대비 비중은 서울(22.8%), 경기(19.9%) 순으로 큰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제주가 0.1%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1인당 GRDP 전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6.6%이며 충남이 10.0%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경북 8.8%, 전남 8.6%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대구(5.4%), 인천(5.0%), 광주(5.3%), 대전(5.4%), 경기(5.1%) 등의 지역이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전국의 1인당 GRDP 평균을 100으로 두고 각 지역을 비교한 결과 1인당 GRDP 전국대비 비중은 울산이 221.5%로 1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충남이 143.8%, 전남이 12.91%로 3위를 차지하였으며 대구는 63.5%로 꼴찌를 기록하였다.

3) 지역별 산업집적현황

광역경제권²⁾의 산업집적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주력기간 산업 생산액 기준으로 전국 대비 비중 28.9%와 지식기반산업 45.6%로 두 산업 생산액 기준으로 전국 대비 36.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력기간 산업에서 의류(88.9%)와 신발(56.9%), 지식기반산업에서는 반도체(74.1%), 생물 산업(70.2%), 메카트로닉스(53.2%) 등이 전국 대비 비중이 50%를 넘어 수도권이 최대의 산업 집적지임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내 전자정보기기 20.5%, 자동차

2) 광역경제권은 신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해 16개의 시도를 5+2로 광역화한 것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대경권(대구, 경북), 2대 특별광역권(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15.6%, 반도체 14.1%로 지역 내 생산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동남권이 주력기간 산업 생산액 기준으로 전국 대비 비중 33.1%, 지식기반산업 11.2% 으로 합계 23.8%로 수도권 다음으로 전국 대비 생산비중이 높다. 동남권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력기간 산업이 수도권 보다 높아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동남권 지역은 전국 대비 생산비중 91.8%를 차지하는 조선 산업과 항공우주 지식기반 산업이 98.5%라는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 종사자수 기준으로 동남권은 12.6%로 수도권 다음으로 비중이 높으며 조선 산업이 동남권 내 최대 산업으로 지역 내 비중 24.4% 차지하고 있다.

대경권은 철강 산업이 전국 대비 생산비중 53.1%로 가장 높으며 그 외에도 전자정보기기 3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20.5%)보다 높은 수치이며 섬유 산업에도 36.8%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대경권은 지식 기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22.8%로 수도권(45.6%)다음으로 높은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대비 생산비중이 높은 산업으로는 철강, 섬유 외에도 전자정보기기(37.8%), 신소재(25.2%) 등이 있다. 권역 내에서는 전자정보기기(41.4%), 철강(21.5%), 섬유(9.5%) 등이 생산비중이 높으며 대경권에 대해서는 주력기간 산업과 지식기반 제조업이 비교적 균형 있게 발전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주력기간 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이며 주력기간 산업 중 자동차가 전국 대비 생산비중 20.8%를 차지하고 있다. 지식기반 제조업은 전국에서 1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밀기기(28.5%), 생물 산업(28.5%), 정밀화학(23.0%)이 전국 대비 생산비중이 20% 이상이다. 권역 내에서는 전자정보기기(29.9%)가 지역 내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외에도 자동차(21.9%), 반도체(10.3%)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주력기간 산업보다 지식기반 산업(수도권 주력기간 산업 전국 대비 비중 소계 28.9%, 지식기반 산업 소계 45.6%, 충청권 주력기간 산업 전국 대비 비중 소계 8.5%, 지식기반 산업 소계 18.0%)의 지역 내 비중과 전국 대비 생산비중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2-2〉 광역경제권의 산업집적 현황(2005년, 생산액 기준)

(단위 : %)

산업분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지역 내 비중	전국 대비 비중	지역 내 비중	전국 대비 비중	지역 내 비중	전국 대비 비중	지역 내 비중	전국 대비 비중	지역 내 비중	전국 대비 비중	
주 력 기 간 산 업	섬유	5.2	37.1	2.9	7.3	2.1	3.3	3.3	15.6	9.5	36.8
	의류	6.4	88.9	0.2	1.0	0.6	1.7	0.7	6.4	0.3	2.0
	신발	0.6	56.9	0.1	3.5	0.0	0.0	0.7	39.4	0.0	0.2
	석유화학	0.6	2.7	1.8	2.8	57.1	55.1	12.3	35.9	1.4	3.4
	철강	3.6	16.6	3.9	6.3	1.6	1.6	7.4	22.4	21.5	53.1
	기계	8.9	36.6	6.2	8.8	5.1	4.6	15.1	41.0	4.0	8.8
	가전	5.0	36.1	1.9	4.8	9.3	14.6	4.8	22.9	5.5	21.1
	자동차	15.6	42.4	21.9	20.8	7.0	4.2	11.2	20.1	7.6	11.1
	조선	0.0	0.1	0.0	0.1	6.2	7.7	24.4	91.8	0.1	0.4
	소계	46.0	28.9	39.0	8.5	89.0	12.2	79.9	33.1	49.9	16.8
지 식 기 반 산 업	전자정보 기기	20.5	34.9	29.9	17.7	1.1	0.4	8.2	9.2	41.4	37.8
	반도체	14.1	74.1	10.3	18.9	1.7	2.0	0.4	1.3	1.3	3.7
	메카트로 닉스	6.1	53.2	4.2	12.7	0.7	1.3	4.3	24.6	1.7	7.9
	정밀화학	4.1	46.0	5.8	23.0	2.5	6.1	2.4	18.1	1.0	5.9
	생물산업	3.4	70.2	3.2	23.7	0.6	2.9	2.0	2.1	0.0	0.4
	정밀기기	2.0	51.3	3.2	28.5	0.1	0.5	0.6	10.4	0.4	5.8
	신소재	2.3	29.2	3.5	15.2	3.0	8.2	2.7	22.0	3.7	25.2
	환경	1.5	52.4	1.0	12.2	1.3	9.7	0.6	12.9	0.6	10.7
	항공우주	0.0	0.6	0.0	0.9	0.0	0.0	0.8	98.5	0.0	0.0
	소계	54.0	45.6	61.0	18.0	11.0	2.0	20.1	11.2	50.1	22.8
합계	100.0	36.0	100.0	12.6	100.0	7.9	100.0	23.8	100.0	19.4	

자료: 김찬준(2008),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에 따른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소고”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2005,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5.

주: 산업의 분류는 산자부(2004),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 근거]

호남권은 수도권, 충청권과 달리 주력기간산업의 비중이 지식기반 산업보다 높

다. 주력기간 산업의 전국 대비 비중은 12.2%를 차지하며 그 중에 석유화학(55.1%), 가전(14.6%)이 높은 생산 비중에 해당한다. 지식기반 산업은 전국 대비 생산비중 2.0%에 불과하며 이는 강원, 제주권을 제외한 5대 광역권 중 제일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호남권 내에서도 석유화학(57.1%), 가전(9.3)의 생산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강원권은 주력기간 산업, 지식기반 산업 모두 전국 대비 생산비중이 0.4%로 산업집적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중 정밀기기가 전국 대비 비중 3.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권역 내에서는 자동차(48.5%)가 최대 산업이며 지식기반 산업보다 주력기간 산업에 집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권은 주력기간 산업(0.004%)과 지식기반산업(0.0%) 모두 전국 대비 가장 낮은 생산비중이며 기계가 전국 대비 비중 0.03%, 지역 내 비중 100.0%이며 이 외에 다른 산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4) 지역별 내재적 역량

권역별 내재적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개발 부문별 추이를 보면 단연 수도권 이 연구개발 인력 전국 대비 59.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충청권 14.6%, 동남권이 10.1%를 점유하고 있다. 그에 비해 제주권 0.2%, 강원권 3.0%로 인구 규모 대비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3〉 연구개발 부문별 추이

		2000	2002	2003	2004	2005
수도권	연구개발인력(천명)	134.8	161.0	172.5	186.4	199.8
	연구개발투자비 비중(%)	61.0	61.5	65.1	65.3	63.9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백만원)	62.6	66.1	72.0	77.7	77.2
	연구개발조직수	3,264	4,974	4,965	4,988	5,593
충청권	연구개발인력(천명)	36.1	42.8	45.3	44.5	48.9
	연구개발투자비 비중(%)	19.3	18.0	17.0	16.7	18.3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백만원)	74.0	73.0	71.5	83.6	90.3
	연구개발조직수	627	940	1,032	1,083	1,201

호남권	연구개발인력(천명)	15.1	17.1	18.3	19.7	19.1
	연구개발투자비 비중(%)	3.3	5.5	3.4	3.2	3.2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백만원)	30.2	55.7	35.3	36.0	40.8
	연구개발조직수	273	321	395	424	460
대경권	연구개발인력(천명)	17.5	21.7	22.5	22.0	23.3
	연구개발투자비 비중(%)	5.8	5.6	5.8	5.7	6.9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백만원)	46.0	44.9	49.0	57.0	71.3
	연구개발조직수	362	458	522	576	607
동남권	연구개발인력(천명)	26.4	29.7	30.5	31.4	33.8
	연구개발투자비 비중(%)	9.8	8.7	8.0	8.3	70.0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백만원)	51.6	50.9	49.7	58.7	50.0
	연구개발조직수	605	763	786	872	951
강원권	연구개발인력(천명)	6.5	6.5	7.0	7.5	9.9
	연구개발투자비 비중(%)	0.7	0.5	0.6	0.6	0.6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백만원)	13.9	13.7	16.4	18.2	15.8
	연구개발조직수	77	80	100	117	131
제주권	연구개발인력(천명)	0.8	1.0	0.9	0.8	0.7
	연구개발투자비 비중(%)	0.2	0.1	0.2	0.2	0.1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백만원)	30.6	24.0	35.3	45.0	48.4
	연구개발조직수	19	18	20	28	36

자료: 김찬준(2008),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에 따른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소고”,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연구개발투자비 비중을 보면 수도권은 연구개발 기관과 대기업이 집적되어 그 비중이 50%를 넘어 2000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2005년에는 63.9%라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 외에 충청권에도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2005년 기준 18.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에서는 수도권이 아닌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투자비를 보이고 있으며 연구개발조직수에서도 2005년 기준 수도권 비중이 62.3%와 충청권 13.4%로 지역에 비해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수도권과 충청권이 타 지역보다 R&D 관련 기관과 산업이 집적되어 연구비 투자나 연구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 지역 간 산업연관관계

다음은 2003년 한국은행에서 처음으로 실시조사방법에 의해 지역 간 산업연관표로 작성한 「2003년 산업연관표³⁾」에 의해 지역 간 산업연관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지역 간 교역(이출입)구조를 나타내는데 이출입이란 특정지역이 국내의 다른 지역과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 지역으로부터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은 이입, 타 지역에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이출이라고 한다.

지역 간 이출액 구성비 현황을 살펴보면 각 지역에서 생산되어 수도권으로의 이출비율이 강원권 64.3%로 가장 높았으며 충청권 57.6%, 전라권 50.8%로 타 지역들도 공통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이출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은 경남권(30.7%), 충청권(24.1%)순으로 높은 이출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2-4> 지역 간 이출액 구성비 현황

(단위 : %)

이입 이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이출 계
수도권	-	6.0	24.1	19.8	19.4	30.7	100.0
강원권	64.3	-	10.6	6.5	8.2	10.4	100.0
충청권	57.6	2.8	-	12.5	10.2	16.7	100.0
전라권	50.8	2.1	14.5	-	10.7	21.8	100.0
경북권	40.4	2.5	11.3	8.2	-	37.6	100.0
경남권	46.4	2.9	13.0	14.0	23.6	-	100.0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지역 간 이입액 구성비 현황을 보면 지역 대부분 수도권과 경남권으로부터 이입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수도권으로의 이입은 경남권(28.4%), 충청권(28.0%)으로부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지역산업연관표란 지역 간의 상이한 생산기술구조와 거래형태를 반영하여 지역 간 및 산업간 상호 의존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으로 분류된다.

<표 2-5> 지역 간 이입액 구성비 현황

(단위 : %)

이출 \ 이입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수도권	—	52.6	53.3	49.8	42.5	46.0
강원권	5.6	—	2.2	1.5	1.7	1.5
충청권	28.0	13.0	—	16.4	11.6	13.0
전라권	21.3	8.3	14.4	—	10.5	14.6
경북권	16.6	9.6	11.0	9.1	—	24.8
경남권	28.4	16.6	18.9	23.1	33.7	—
이입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각 지역의 생산유발액을 타지역 수요의존도⁴⁾와 타지역 생산유발률⁵⁾을 통한 권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표 2-6> 타 지역 수요의존도 및 생산유발률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타지역 수요의존도(%)	21.3	36.6	46.2	41.2	40.1	32.7
타지역 생산유발률(%)	23.7	43.1	40.3	36.7	39.2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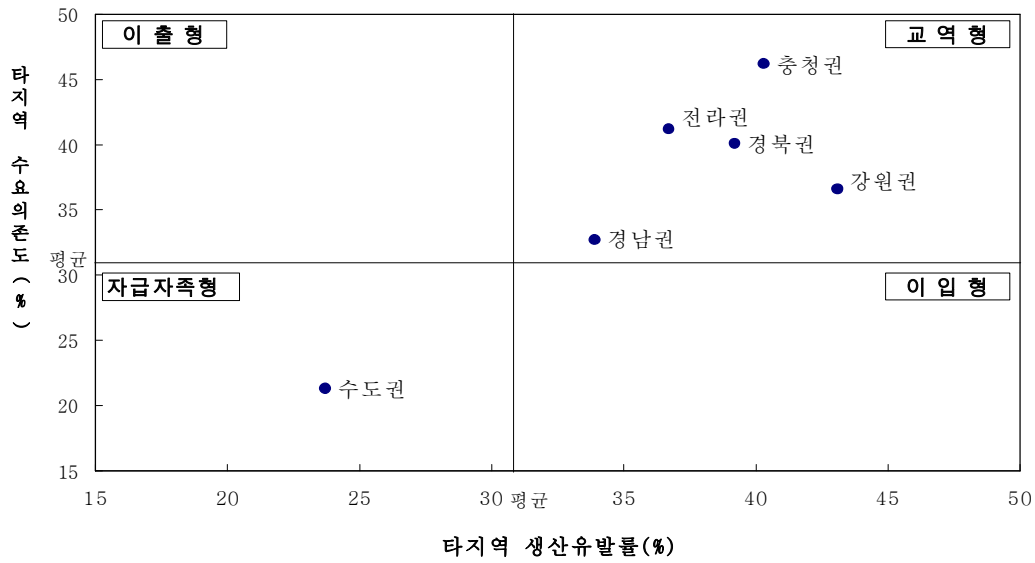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지역별 지역 내 자급도가 높고 타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낮은 수도권(21.3%)은 자급자족형 경제구조형태를 보이며 그 외 지역들은 교역형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수도권은 타 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는데 서비스업의 특징은 자기지역에 생산된 제품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서비스업 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타 지역들은 지역 간 교역이 활발한 제조업의 특성 상 타 지역 수요의존도와 타 지역 생산 유발률이 높게 나타났다.

4) 특정지역의 생산액 중에서 타 지역의 최종수요에 의해서 유발된 생산액 비중.

5) 특정지역의 최종수요에 의해서 유발된 생산액중에서 타지역에 유발된 생산액 비중.

<그림 2-2> 타 지역 수요의존도와 생산유발률로 본 지역경제의 구조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2. 각 지역구조의 강점과 약점 분석

권역별 지역구조의 강점과 약점은 2005년에 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 환경 분석⁶⁾에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위 보고서는 기업투자환경지수 개발로 시도별로 기업투자환경에 있어서 각 지역별로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의 정보를 제공하며 각 지역별로의 비교·평가함으로써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책경쟁을 심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6) 이병기,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

〈표 2-7〉 가중 기업투자환경 종합지수 분석결과

	기초투자 환경		정보화·기술 환경		인프라·사업 환경		지방정부 정책환경		종합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시	0.1597	3	0.1901	1	0.2245	1	0.0697	1	0.6440	1
부산시	0.1580	4	0.0843	4	0.1763	2	0.0922	4	0.5108	4
대구시	0.1476	9	0.0719	6	0.1307	7	0.0663	7	0.4165	7
인천시	0.1548	5	0.0833	5	0.1576	3	0.1114	5	0.5071	5
광주시	0.1385	10	0.0659	7	0.1191	9	0.0915	8	0.4150	8
대전시	0.1633	2	0.1501	2	0.1409	5	0.1057	2	0.5600	2
울산시	0.1509	6	0.0553	9	0.1413	4	0.0643	9	0.4118	9
경기도	0.1712	1	0.1194	3	0.1384	6	0.0961	3	0.5251	3
강원도	0.1285	13	0.0292	14	0.0567	16	0.0734	16	0.2878	16
충북	0.1329	12	0.0437	11	0.0741	15	0.0628	14	0.3135	14
충남	0.1500	7	0.0514	10	0.0924	12	0.1126	10	0.4064	10
전북	0.1100	16	0.0344	13	0.0850	14	0.0587	15	0.2881	15
전남	0.1280	14	0.0212	16	0.0908	13	0.0802	13	0.3202	13
경북	0.1483	8	0.0358	12	0.1039	11	0.0545	12	0.3425	12
경남	0.1359	11	0.0626	8	0.1274	8	0.0909	6	0.4168	6
제주	0.1276	15	0.0239	15	0.1094	10	0.1051	11	0.3660	11

주 : 1) 기초투자환경은 금융, 토지, 노동으로 이루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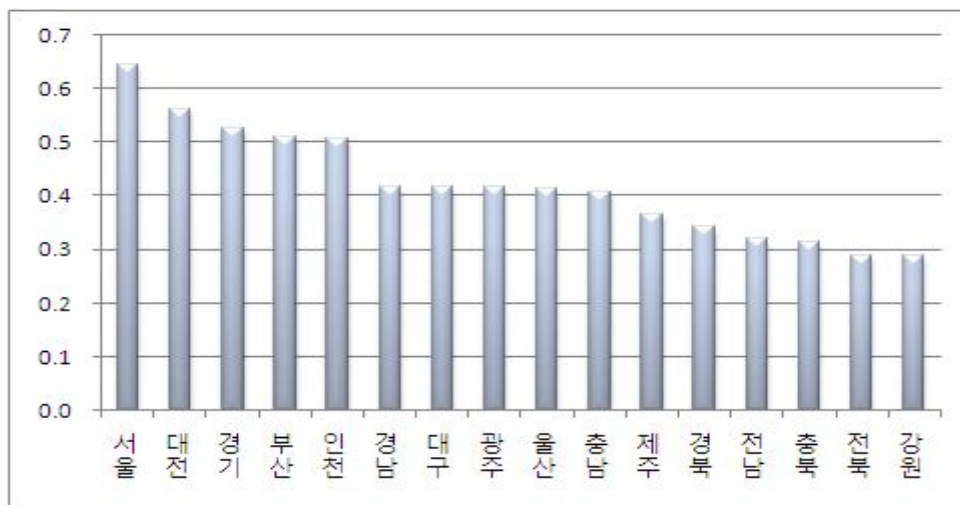
2) 기업투자환경 종합지수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 투자 환경 분석', 이병기, 2005 참조 바람.

기업투자환경 종합지수 분석결과 금융, 토지, 노동으로 이루어진 기초투자 환경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는 경기도, 대전, 서울을 꼽을 수 있다. 먼저 금융환경을 살펴보면 대체로 수도권이 우수하며 대구, 광주는 비교적 금융환경이 나쁘다. 부산, 광주, 제주의 지역자금의 유출이 심하여 대부분 지역자금은 서울로 집중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지역은 투자 및 기업본사 운영을 원활하게 되는 반면 유출된 지역금융의 자금조성능력에는 제약이 생기고, 지역금융 산업이 낙후되어 수도권 외에 타 지역의 저소득을 유발시킨다. 노동환경면에서도 수도권은 좋은 환경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울산은 임금수준이 높으나 노사분규가 잦고 파업

률이 높아 노동환경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토지에 있어서 울산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의 취득가능성이 높으나 서울은 비싼 토지취득 비용으로 토지환경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정보화·기술 환경면에서 수도권과 대전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대전에는 과학연구단지가 집적되어 있어 그 곳을 통한 기술혁신이 유리하며, 정보화·기술 개발 환경이 뛰어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제주, 강원 전남지역은 정보화환경이나 기술개발환경에 있어서 모두 열악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전남의 경우 정보화 환경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그림 2-3〉 시도별 기업투자환경 종합순위



주 :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김.

사회간접자본의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로 구성되는 인프라환경은 도로, 물류 등 용이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와 높은 질의 교육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서울이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으며 항만, 공항이 발달한 부산, 제주도, 인천 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에 반해 내륙지역인 강원, 충북지역은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기업과 지역주민관계, 기업과 지역시장간 관계, 기업과 기업 간 환경을 나타내는 사업 환경은 서울, 울산, 부산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강원도는 매우 열악함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 환경을 살펴보면 충남, 인천, 대전 순으로 점수가 높다. 이는 충남이 중소기업정책, 외국인 투자기업유치정책 등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경북, 전북, 충북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서울은 11위를 차지하였는데 서울지역의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그림은 기초투자환경, 정보화·기술, 인프라·사업환경, 정책환경을 모두 합하여 시도별 기업투자환경 종합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이 16개 시도중에 1위를 차지하였으며 대전, 경기 순으로 기업투자 환경이 우수하며 충북, 전북, 강원이 하위권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지 않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별 기업투자 환경 분석에 따라 각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종합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금융환경	은행이 많아 접근성이 높고 사업자금을 대출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등 자금제약이 크지 않다.
	노동환경	상대적으로 노사관계가 안정적이며 노동력이 우수하며 고급인력을 구하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토지환경	공장용 토지가격이 매우 비싸 취득이 어려우며 토지에 대한 공급상 제약이 존재한다.
	정보화환경	개인용 컴퓨터 보급률이 높고, 정보처리·컴퓨터운영 종사자가 많다. 또한 기업 간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다.
	기술개발환경	대기업과 연구소 수가 많아 기술혁신이 활발히 일어난다. 산학간 기술협력이 잘 되고 고급 기술인력을 구하기가 쉽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인프라환경	도로 길이가 길고 운송업체 수가 많아 물류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공항과 항만측면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사업환경	기업 수가 많고 구매력 있는 인구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기업 간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기업 활동하기 좋은 지역이다.
	정책환경	기업에 대한 규제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은 상태이다.
인천	금융환경	예금중 정책자금 대출액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며, 자금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역외유출현상이 낮다
	노동환경	지역 내 대학생수 비중이 낮아 인력수급의 제약이 있다.
	토지환경	토지가격이 비싸 공장용지 취득에 애로가 있다.
	인프라환경	항만접근성, 공항접근성이 뛰어나 물류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정책환경	행정처리속도가 빠른 편으로 나타났다.
경기	금융환경	예금액 중 정책자금 대출비율이 높으며 사업자금 대출받기가 용이하다.
	노동환경	노동력의 질이 높은 인력을 구하기 쉽고, 파업률이 낮아 노사관계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토지환경	공업용 토지가격이 비싸다.

	정보화환경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 잘되어 있고 전자상거래가 활발하다.
	기술개발 환경	연구소비율이 높으며 GRDP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비교적 높다. 산·학간 기술협력이 잘 되고 있는 상태이다.
	사업환경	기업 간 협력이 잘 되고 동종업종의 집적이 잘 구축되어 있다.
대전	정책환경	행정처리 속도가 빠르고 기업유치에 적극적이지만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은 것이 단점으로 나타났다.
	노동환경	노사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역대학 수준이 높아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용이하다.
	기술개발 환경	GR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우 높으며 연구개발투자가 매우 활발하며 지역 내 기업연구소, 정책연구소 등 기술개발역량이 우수하다.
	정보화환경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어 있고 전자상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프라환경	항만접근성, 공항접근성이 떨어지는 내륙에 위치해 있어 인프라측면에서는 제약이 있는 것이 단점이다.
	사업환경	기업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이 우호적이며 지역관련 준조세 부담이 낮다.
충남	정책환경	기업창업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며 기업규제가 상대적으로 낮다.
	금융환경	은행수가 비교적 적으나 정책자금 대출비율이 높아 정책자금 접근성이 높은 상태다.
	노동환경	대학생 수의 비중이 높아 고급인력을 구하기 쉬우며 노동자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환경	기업관련 준조세부담이 낮은 편이다.
충북	정부정책	타 지역에 비해 조세감면액 비율이 높고 기업창업의 절차가 간소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적어 적극적인 기업유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환경	은행의 수가 적어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며 사업자금 대출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노동환경	서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노동력의 역외유출현상이 심하여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토지환경	토지가격은 비교적 저렴하다.
	인프라환경	항만접근성이 낮고 물류산업의 발달이 낮다.
	사업환경	기업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으며 동종업종의 집적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광주	정책환경	행정처리 속도가 느리며 지역개발비의 비중이 낮다.
	금융환경	어음부도율이 높아 지역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 제약이 크며 금융자금의 역외유출현상이 높다.
	노동환경	파업률이 높고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낮다.
	토지환경	토지의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여 공장용 토지취득이 용이하다.
	사업환경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경제고통지수가 상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	정책환경	지역개발지 비중이 높고 기업규제가 낮으나 지방정부의 청렴도지수가 낮다고 평가받고 있다.
	금융환경	어음부도율이 비교적 높으며 자금의 대출에 시간이 걸리며 기업의 자금제약이 심하다.
	노동환경	노동력의 질이 낮고 생산에 필요한 인력공급이 어렵다.
	토지환경	공장용 토지취득이 용이하다.
	인프라환경	항만, 공항의 접근성이 낮으며 물류인프라 구축이 잘 안되어 있다.
전	기술개발환경	산·학간 기술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업환경	기업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동종업종 간 집적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
	금융환경	사업자금의 대출이나 정책자금을 받기 까다롭다.

남	노동환경	노동자의 생산성이 비교적 높고 근로자의 임금도 높지만 노사관계의 안정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토지환경	토지가격이 저렴하여 공장용 토지를 획득하기 용이하다.
	기술개발환경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이 낮고 연구소의 비율이 낮다. 산·학간 기술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업환경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충분한 인구밀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부산	금융환경	기업자금을 조달할 은행의 수가 많으며 대출받기 용이하며 정책자금을 받기도 쉬운 편이다.
	노동환경	대학의 교육수준이 높으며 고급인력을 구하기 쉽다
	토지환경	부산의 전체 경제활동면적 중 산업단지면적의 비중이 크지만 토지가격이 매우 비싸 토지공급에 있어 제약이 있다.
	인프라환경	인프라 측면에서 항만접근성, 공항접근성이 뛰어나다.
	사업환경	지역민은 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이 있으며 기업 물품을 구매할 인구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울산	정책환경	지방세의 감면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다.
	금융환경	어음부도율이 낮으며 대출액/GRDP 비중이 낮다.
	노동환경	파업건수가 많아 노사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으며 1인당 급여액이 매우 높다. 노동력의 질은 우수하나 대학생 비중이 낮은 편이다.
	토지환경	공업용 토지가 많고 산업단지면적의 비중이 높아 산업단지 공급량이 충분하다.
	인프라환경	항만접근성이 뛰어나다.
경남	정부정책	행정처리 속도가 늦은 편이며 기업창업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하고 기업유치에 덜 적극적이며 비교적 기업규제가 많다.
	노동환경	광공업 1인당 급여액이 상당히 높으나 파업률이 높다.
	기술개발환경	인구대비 특허건수가 낮다.
대구	사업환경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낮다.
	금융환경	금융연관비율이 높으나 기업의 자금제약이 높아 기업의 부도율이 높다.
	노동환경	광공업 1인당 급여액 수준이 비교적 높다.
	토지환경	산업단지면적 비율이 높으며 공장용 토지를 구하기 용이하다.
	정보화환경	개인용 컴퓨터 보급률이 높으며 정보처리·컴퓨터운영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인프라환경	항만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환경	조세감면비율이 낮아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유인이 낮다.
경북	금융환경	은행의 수가 적고 금융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금융연관비율이 낮다.
	토지시장	토지가격이 비교적 저렴하여 공장용 토지취득이 용이하다.
	사업환경	대기업의 비중이 비교적 높으나 인구밀도가 낮아 충분한 시장형성이 되지 않는 것이 단점이다.
	정부정책	지방정부의 청렴도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지역개발비의 비중이 낮다.
강원	금융환경	어음부도율이 낮으나 사업자금을 대출받는데 시간이 걸리며 정책자금을 받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환경	토지가격이 저렴하며 산업단지의 비중, 공장용 토지비중이 낮다.
	토지환경	노동력의 질이 낮으며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정보화 및 기술개발환경	연구소의 수가 적으며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낮다. 정보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 것이 예상되며 충분한 기술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인프라환경	공항접근성, 항만접근성이 낮은 등 물류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
	사업환경	지역민의 기업에 대한 우호도가 낮으며 구매력 있는 인구밀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정책	행정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다.	

제주	금융환경	은행이 비교적 많고 금융연관비율도 높으나 지역금융자금이 타시도로 유출되는 정도가 크다.
	노동환경	노동의 질은 낮은 반면 1인당 급여액이 높은 수준이다.
	기술개발환경	연구소가 적으며 GRDP 중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이 낮다.
	인프라환경	공항접근성이 뛰어나며 운수업체 비중이 높아 물류인프라구축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책환경	지방정부의 청렴도가 비교적 높으며 조세감면액의 비중이 높아 우호적인 기업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제2절 지역별 국제통상 활성화를 위한 기본연구

1. 지역별 국제통상 현황

1) 지역별 수출입 현황

지역별 산업·경제구조 분석에 이어 지역별 최근의 국제통상 현황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지역별 수출증가율 추이를 보면 2006년 이후 14.4 % 2007년 14.1% 로 14%대의 수출증가율을 보이다 2008년 1/4분기 중 전년도기 대비 19.4%로 지

<표 2-8> 지역별 수출증가율 추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2006년	2007년	2008. 1분기	2008. 1	2008. 2	2008. 3
전국	14.4	14.1	19.4	15.0	18.8	18.6
서울	1.0	9.1	25.1	44.0	59.9	18.6
부산	19.6	25.6	20.8	12.9	6.0	44.4
대구	6.4	13.9	21.6	23.1	18.8	22.8
인천	22.3	31.3	12.4	10.6	-3.1	2.9
광주	27.2	11.0	-3.2	-11.3	-12.1	-13.6
대전	10.9	7.7	24.0	34.3	30.7	14.4
울산	21.6	16.4	29.9	19.1	29.2	18.9
경기	13.6	2.2	7.4	-0.6	2.2	10.6
강원	18.8	10.7	22.9	1.9	10.2	24.4
충북	42.2	10.8	23.6	8.5	12.6	17.7
충남	16.2	22.7	18.4	2.5	-0.5	-1.9
전북	12.8	16.1	26.2	32.7	19.7	18.1
전남	17.2	15.5	17.4	9.7	39.4	34.3
경북	2.1	14.5	17.3	18.8	15.6	21.5
경남	17.4	16.5	28.0	23.8	31.5	47.6
제주	-9.5	1.8	63.3	5.8	6.8	80.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다음 표는 무역협회의 각 지부에서 발표한 수출입현황을 토대로 지자체별 주력 수출품목을 나타낸 것이다.

〈표 2-9〉 각 지역별 주요 수출품목

지 역	주요 수출품목	지 역	주요 수출품목
서 울	반도체	광 주	수송기계
	자동차		전자부품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인 천	자동차	부 산	선박
	자동차부품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수송기계
경 기	반도체	울 산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자동차		자동차
충 북	반도체	경 남	선박해양구조물
	전선전자		무선통신기기
	화학공업		건설,광산기계
대 전	축전지	경 북	전기전자
	인쇄용지		철강 및 금속
	연초류		기계 및 정밀기계
충 남	집적회로 반도체	대 구	섬유직물
	평판디스플레이		가정용 전자제품
	모니터		기계요소
전 남	석유화학제품	강 원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의료기기
	광물성 연료		시멘트 및 철강제품
전 북	자동차	제 주	어패류
	자동차부품		조제품
	합성수지		

자료 : 한국무역협회 각 지부별 수출입 실적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임

2008년 상반기 중 지자체별 수출입 동향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별 수출입 동향에서 1위를 차지한 울산은 석유제품의 전체 수출물량은 감소하였으나, 고유가에 따른 수출단가의 상승으로 수출액이 전년 동월비 46.0% 증가하였다. 또한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선박의 지속적인 호조세로 2008년 4월 중 지자체 수출사상 가장 큰 월간 수출액을 달성하였다. 지역별 월간 수출통계를 작성한 이래, 단위 지자체의 월 수출액으로 70억불을 초과한 것을 울산 4월 수출이 최초이다. 2008년 4월 기준 울산 다음으로 경기, 경남, 경북이 높은 수출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표 2-10> 주요 지자체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지역명	2007년		2008년 1~4월		2008년 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371,489	14.1	137,257	19.7	37,843	26.4
1	울산	63,952	16.4	24,490	25.2	7,311	34.1
2	경기	64,605	2.2	21,559	4.6	5,534	6.1
3	경남	36,512	16.5	16,032	41.8	5,032	72.3
4	경북	45,266	14.5	16,469	19	4,163	19.9
5	충남	47,823	22.7	14,437	1.7	3,628	0
6	서울	26,979	9.1	11,750	39.8	3,185	42
7	전남	21,988	15.5	8,579	30.2	2,348	36.6
8	인천	20,928	31.3	6,827	4.7	1,922	7.9
9	부산	10,160	25.6	3,947	25.4	1,137	39.8
10	충북	8,920	10.8	3,002	19.1	897	36.9
11	광주	10,144	11	3,240	-8.7	868	3.2
12	전북	6,354	16.1	2,382	18.9	602	8.1
13	대구	4,040	13.9	1,550	23.1	437	28.2
14	기타	55	255	1,581	22,025.80	387	16,251.80
15	대전	2,581	7.7	986	25.8	271	27.4
16	강원	1,126	10.7	404	18.7	117	35.3
17	제주	58	1.9	24	40.6	5	87.6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2008년 하반기 수출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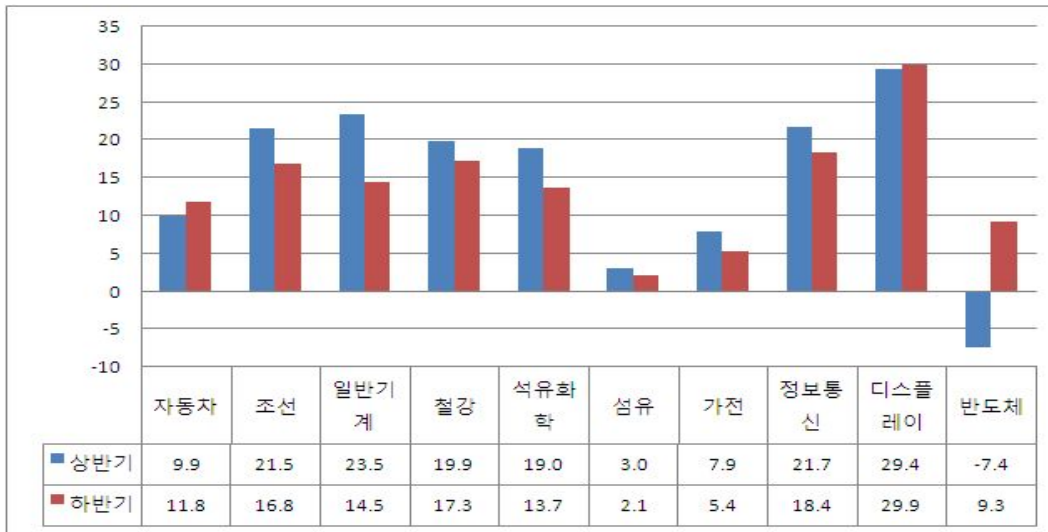
디스플레이,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가전, 자동차, 조선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주요 10대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2008년 하반기 수출입전망을 살펴보면, 하반기에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글로벌 전략, 수출시장 다변화로 인해 10대 주력업종의 수출은 상반기보다 14.3%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IT제조업이 15.7% 증가로 국내 수출증가를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계절적 특성과 올림픽 효과로 IT용보다 TV용 패널 수요증가로 상반기보다 29.9%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기는 세계 3G시장 확대, 신형시장의 교체수요증가,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전략 폰 수출 호조 등으로 18.4%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반도체에 있어서는 네비게이터, PMP, 노트북 PC, 뮤직 폰의 활성화로 낸드플래시와 D램 호황으로 9.3%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가전 부문의 하반기 수출은 올림픽 특수효과가 사라지면서 영상기기 수요 둔화와 중국과 미국경제의 둔화로 인해 5.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IT주력업종의 2008년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보다 낮은 13.2%의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부문에 있어 하반기에는 내수 주력업체들의 수출본격화와 현지 생산 증가에 따른 부품수출증가로 11.8%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으며 조선은 고유가 및 선박의 대형화 니즈에 따른 국내 타깃선종 및 선형 시황 호조와 국제 규제에 따른 수요유발로 16.8%의 높은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다. 일반기계 부문은 우리나라 1위 수출시장인 對중국 수출증가율 둔화, 미국의 경제부진으로 수입수요 감소에 따라 14.5%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다. 철강부문에서는 BRICs, 중동 등 개도국의 강관류 수요증가와 도금강판 수출증가, 철강재가격상승으로 17.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석유화학은 원가상승분전가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세 지속과 수출지역의 다변화로 13.7%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다. 섬유부문에 있어 對아세안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구조고도화, 적극적인 수출확대노력에 따라 2.1%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다.

<그림 2-4> 주요 업종의 하반기 수출증가율 전망

(단위 : %)



자료 : 2008년 산업·경제전망, KIET,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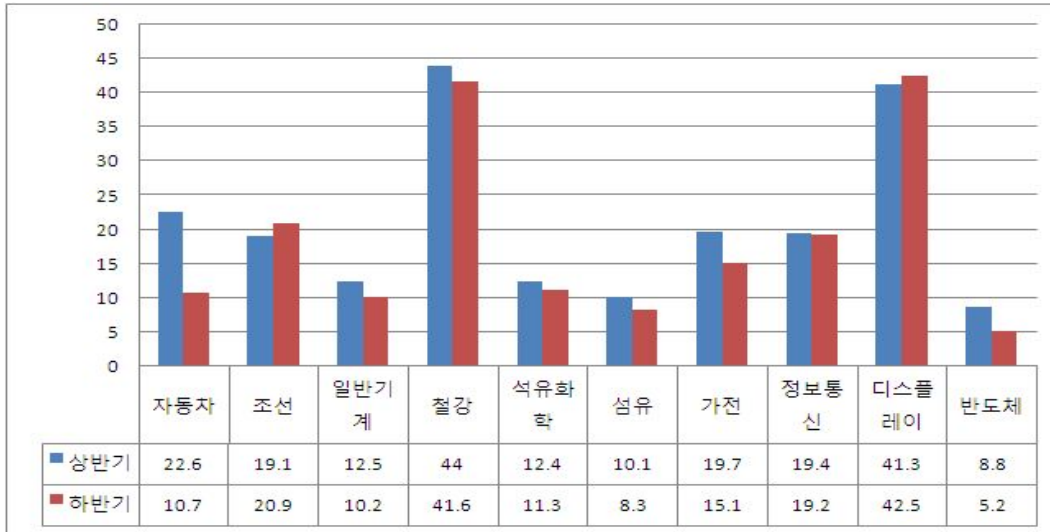
주 : 달러표시 가격 기준.

금년 하반기 10대 업종의 수입은 수출증대에 따른 수출용 부품수입 수요 증가, 원화약세로 인한 수입단가 상승,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비 16.3%의 높은 증가세가 전망된다.

IT제조업의 수입은 수출용 부품수입 증가와 소비양극화에 따른 수입증가, 내수위축으로 상반기보다 낮은 12.2%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국내수요증가와 수급관계상 중소형 패널 중심의 對중국 수입증가로 45.9%의 높은 증가율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기는 신규서비스 확대, 휴대폰 수출호조에 따른 이동통신 기기제품 및 장비수요증가, PC 및 모니터 등 수입수요증가로 19.2% 증가세를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는 디지털가전이나 휴대폰용 비메모리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해 응용제품의 수출확대에 따라 5.2%의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다. 가전부문에 있어 수요구조가 고급 가전기기와 저가 제품의 양극화로 변화하면서 수입수요 증가와 역수입증가로 15.7%의 급격한 증가세를 전망하고 있다.

〈그림 2-5〉 주요 업종의 하반기 수입증가율 전망

(단위 : %)



자료 : 2008년 산업·경제전망, KIET, 2008

주 : 달러표시 가격 기준.

비 IT주력업종의 수입에 있어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수입수요증가, 원료수입단가 상승으로 19.3%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외국산 대중차 브랜드의 국내진출증가와 신모델 출시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 위축으로 10.7%증가율이 예상된다. 일반기계는 중국산 제품의 시장공략 강화로 중저급 기계류와 부품 수입 증가하는 가운데 내수 둔화로 10.2%의 증가율에 그칠 전망이다. 석유화학부문에서는 고유가로 수입단가 상승 및 수출용 원료 수입증가로 인해 11.3%의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다. 소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섬유는 고가와 저가의류의 동반 수입증가와 해외생산제품의 역수입 증가로 8.3%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다.

〈그림 2-6〉 업종별 하반기 산업 전망 기상도

	생산	내수	수출	수입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철강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가전	☂	☂	☂	☂☂
정보통신	☂☂	☂	☂☂	☂☂
디스플레이	☂☂	☂	☂☂	☂☂
반도체	☂☂	☂☂	☂	☂

자료 : 2008년 산업·경제전망, KIET, 2008

주 : 1) 전년 동기비 생산과 내수는 실질 증가율, 수출과 수입은 명목 증가율 기준

2) 0% 이하 ☂, 0~5% ☂, 5~10% ☂, 10~15% ☂, 15% 이상 ☂☂

3) 지역별 외국인투자 현황

시도별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을 보면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제조업 보다 서비스업에 외국인투자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수도권 외에도 제조업에서 인천과 경남의 업체 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서울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들의 외국인투자 비중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1> 시도별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2004년 기준)

(단위:%)

	제조업		서비스업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서울	30.0	11.2	77.7	57.4
부산	3.7	2.0	3.3	3.5
대구	2.4	1.4	1.0	0.2
인천	7.0	6.3	3.4	4.5
광주	2.4	2.8	0.4	0.1
대전	1.2	1.9	0.6	2.8
울산	1.6	6.6	0.3	1.6
경기	26.7	20.4	9.1	10.8
강원	0.8	1.4	0.5	4.7
충북	4.2	5.0	0.5	0.1
충남	5.4	9.8	0.5	1.6
전북	1.8	6.4	0.5	0.7
전남	1.7	5.1	0.3	0.1
경북	4.0	10.5	0.4	1.3
경남	6.9	8.2	0.8	0.5
제주	0.1	0.0	0.6	9.9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현황」, 2004.

2008년 상반기 외국인투자 현황에서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1.8% 증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29.9% 증가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화학(157.4% 증가), 비금속광물(833.6%)증가, 전기·전자 분야의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금속, 기계·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151.1%증가), 부동산·임대 분야(33.5%증가) 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유통),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였다.

<표 2-12 >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비중·증감율 %)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기	증감율
제조업	4,249 (37.8)	582 (36.4)	582 (32.9)	540 (18.3)	988 (23.5)	2,692 (25.6)	725 (26.7)	927 (50.6)	1,652 (36.3)	41.8
(부품·소재)	3,193 (28.4)	532 (33.2)	513 (29.0)	375 (12.7)	934 (22.3)	2,353 (22.4)	622 (22.9)	773 (42.3)	1,395 (30.7)	33.6
서비스업	6,626 (58.9)	992 (62.0)	1,170 (66.1)	2,252 (76.3)	3,199 (76.3)	7,612 (72.4)	1,933 (71.2)	874 (47.8)	2,807 (61.8)	29.9
기 타	368 (3.3)	25 (1.6)	17 (1.0)	160 (5.4)	9 (0.2)	210 (2.0)	58 (2.1)	29 (1.6)	87 (1.9)	105.4
전 체	11,243	1,599	1,769	2,951	4,195	10,514	2,715	1,830	4,546	35.0

자료 : 지식경제부

주 : 기타는 1차산업 및 전기가스수도건설을 의미, ()내는 비중

미국과 일본의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EU(3.2%)으로부터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U으로부터의 투자는 2,147백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35.2% 증가하였으며 투자금액 비중은 47.2%를 차지한다. 특히 금융·보험(323.6%, 324백만 불), 전기·전자(173.3%, 305백만 불), 화학(847.1%증가, 106백만 불)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694백만 불로써 전년 동기 대비 100.4%가 증가한 수준이며 투자비중은 15.3%를 차지한다.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644백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124.1% 증가하였으며 투자비중은 14.2%를 차지한다.

〈표 2-13〉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비중·증감율 %)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기	증감율
미 국	1,705 (15.2)	198 (12.4)	148 (8.4)	587 (19.9)	1,407 (33.5)	2,341 (22.3)	453 (16.7)	240 (13.1)	694 (15.3)	100.4
일 본	2,111 (18.8)	139 (8.7)	149 (8.4)	191 (6.5)	512 (12.2)	990 (9.4)	252 (9.3)	393 (21.5)	644 (14.2)	124.1
E U	4,971 (44.2)	843 (52.7)	745 (42.1)	1,319 (44.7)	1,425 (34.0)	4,332 (41.2)	1,539 (56.7)	608 (33.2)	2,147 (47.2)	35.2
기 타	2,456 (21.8)	420 (26.2)	727 (41.1)	854 (28.9)	852 (20.3)	2,852 (27.1)	472 (17.4)	589 (32.2)	1,061 (23.3)	△7.4
전 체	11,243	1,599	1,769	2,951	4,195	10,514	2,715	1,830	4,546	35.0

자료 : 지식경제부
주 : ()내는 비중

규모별로 보면 1억불 이상의 대형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478.0%증가하여 1,451백만 불을 나타냈으며 1백만 불 이상 1천만 불 투자는 4.4% 증가, 1백만 불 미만은 3.5% 증가를 기록한 반면 1억불 미만과 1천만 불 이상 1억불 미만은 각각 0.7%, 2.8% 감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14〉 규모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비중·증감율 %)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기	증감율
1억불 이상	5,685 (50.6)	- (-)	251 (14.2)	1,419 (48.1)	2,552 (60.8)	4,222 (40.2)	892 (32.9)	559 (30.5)	1,451 (31.9)	478.0
1억불미만	5,559 (49.4)	1,599 (100)	1,518 (85.8)	1,532 (51.9)	1,643 (39.2)	6,293 (59.8)	1,823 (67.1)	1,272 (69.5)	3,095 (68.1)	△0.7
1천만불~ 1억불	3,678 (32.7)	1,120 (70.1)	1,085 (61.3)	1,040 (35.2)	1,098 (26.2)	4,343 (41.3)	1,343 (49.5)	801 (43.8)	2,144 (47.2)	△2.8
1백만불~ 1천만불	1,517 (13.5)	381 (23.8)	333 (18.8)	393 (13.3)	436 (10.4)	1,543 (14.7)	387 (14.3)	359 (19.6)	746 (16.4)	4.4
1백만불 미만	363 (3.2)	98 (6.1)	100 (5.7)	99 (3.4)	110 (2.6)	407 (3.9)	93 (3.4)	112 (6.1)	205 (4.5)	3.5
전 체	11,243	1,599	1,769	2,951	4,195	10,514	2,715	1,830	4,546	35.0

자료 : 지식경제부
주 : ()내는 비중

업종별로 제조업의 경우에 1억불 이상 대형투자가 551백만 불을 기록하였으나 1백만 불 미만 소형투자는 20.3% 감소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1억불 이상 대형투자가 258.6% 증가하여 900백만 불을 기록하였다.

2. 현행 국제통상 지원정책 분석

2003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가 내수의 기여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내수침체 속에서도 수출호조로 인해 한국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출증가가 필요하다. 그 동안 한국 수출경쟁력은 1980~90년대에 많은 우수 엔지니어를 배출하여 전자 및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엔지니어 의존형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갖게 되었고 첨단제품 개발과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R&D투자확대와 설비투자로 인해 반도체, LCD 부문에 있어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조선, 플랜트 등 수주산업에서 높은 수출 증가세를 실현하는 등 기술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김득갑, 2007)

〈표 2-15〉 지역별 수출비중 및 증감률 추이

(단위:%)

		전통 주력 시장			개도국 시장							
		미국	EU15	일본	중국	인도	동유럽	중동	중남미	CIS	ASEAN	아프리카
수출 비중	2000	21.8	13.6	11.9	10.7	0.8	0.8	4.4	5.4	0.8	11.7	1.3
	2006	13.3	12.6	8.1	21.3	1.7	2.6	4.4	6.3	2.2	9.8	2.3
연평균 증감률	2000~06	6.6	10.3	8.9	27.2	26.4	27.5	12.6	12.1	30.4	9.4	20.8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DB

주 : CIS는 러시아 포함, 중남미는 브라질 포함, 동유럽은 2004년 이후 가입한 EU12개국

또한 선진국 시장의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새로운 개도국 시장을 개척을 하여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이루었다. 2000~06년에 우리나라 對 개도국 수출은 연평균 9.4%(ASEAN)~30.4%(CIS국가)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반면

전통 주력시장 수출비중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수출은 한국경제에 원동력이며 수출제품의 경쟁력 제고로 인해 한국 수출의 호조세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향후 수출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예상되고 있다.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성장 둔화를 포함한 세계 경기 둔화 의 영향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기업들은 기존의 가격경쟁력에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얻은 품질, 기술 경쟁력을 더해 우리와의 치열한 경합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경쟁력으로 이미 중국은 MP3, 의류 분야에서 한국을 앞섰으며 2010년에는 이동통신장비, 철강 분야에서도 중국이 앞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2-16> 한국과 중국의 산업 및 기술 경쟁력 비교

		2004년, 2005년	2010년	변동
이동통신	GSM 단말기	2.0	1.5	-0.5
	CDMA 단말기	1.0	0.5	-0.5
	이동통신장비	0.0	-0.5	-0.5
디지털가전	디지털 TV	1.0	-0.5	-1.5
	DVD 플레이어	1.5	0.5	-1.0
	MP3 플레이어	-0.5	-2.0	-1.5
철강		2.4	-0.4	-2.0
이차전지	LIB(리튬이온전지)	2.0	1.0	-1.0
자동차부품	Steering System	5.5	1.5	-4.0
조선	LNG	16.5	12.5	-4.0
석유화학		10.4	4.8	-5.6
의류		-7.2	-5.5	1.7

자료 : 한국산업기술재단(2005,2006)

주 : 1) +값은 한국이 중국에 앞선 연도, -값은 중국이 한국에 앞선 연도

2) 산업경쟁력에는 가격, 품질, 생산, 조직, 인력수준 등이 고려

각 무역유관기관(무역협회,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청 산업연구원, 한국수출보협공사)에서 조사한 무역 업무를 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들의 국제화에 따른 애로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7>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화 애로요인

조사기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청 산업연구원	한국수출 보험공사
조사년도	2006	2005	2005	2004
국제화유형	수출위주	총체적 국제화	수출위주	수출위주
국제화 애로요인	-해외마케팅 능력부족 -지속적인 환율하락 -국제원자재 가격급등 -인건비 상승 -생산기지 해외이전	-국제화 추진과 정상의 비용 -전문인력부족 -자사제품브랜드 인지도 -제품의 질/기술부족	-후발개도국의 경쟁 력 향상 -원화강세 -수출용 원자재가격 상승 -고유가 -해외수요와 환경의 변화	-인력확보 -투자자금 -기술경쟁력

자료: 홍유수·반유정(2006)

주: 애로사항의 순위가 높은 것부터 나열함.

위와 같은 많은 애로사항 속에서 여러 유관기관들이 지역기업들의 신 시장개척, 수출상품의 고도화 및 금융지원 등 수출확대를 위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기관, 중앙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경영단체별로 제공하고 있는 국제통상 지원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중앙정부기관(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1) 지식경제부

① 환위험 관리 지원

고금리, 고유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중소기업의 40%이상이 환위험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출보험공사,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수출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지원해준다. 지원내용에는 수출 1백만 달러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에는 환 변동 보험 가입 시 환수금을 면제해주며 환 변동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만기 시 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보험료 납부 부담을 제거해준다. 또한 환위험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출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국내 무역 전시회 지원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과 전시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 2008년도에 43국내 전시회를 선정하여 3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각 전시회에 해외홍보 및 해외바이어·해외업체 유치활동을 위주로 지원할 방침이며, 지원으로 인한 효과는 5천여 개의 해외업체와 7만 여명의 해외참관객이 참가하여 총 90억불 이상의 수출 상담과 25억불의 수출계약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③ 국가전자무역시스템 uTradeHub 개통

uTradeHub는 세계 최초의 웹 기반 전자무역 통합서비스로 수출환어음매입 온라인 서비스(e-Nego)와 전자선하증권(e-B/L) 소유권 및 유통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도 인터넷을 통해 물류 및 결제 등의 전반적인 무역 업무를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비용절감에 따라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되며 종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무역서류의 위·변조 위험이 제거된다. 전자무역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로는 생산성향상(2,947억 원)과 부대비용 절감(2조 1,078억 원), IT 중복투자비용 절감(1,798억 원)을 모두 합한 2조 5,82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④ 해외진출기업지원단

해외진출 기업지원단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KOTRA, 중진공, 신한은행, 외환은행 등 10개 기관의 해외투자 상담 및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되어 해외진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투자정보, 외국의 노동환경, 금융지원 등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⑤ 한국투자환경설명회

외국의 투자가로부터 한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한국은 개방된 시장이며 아시아의 관문, 탄탄한 내수시장 보유, 우수한 인적자원, IT산업 등 투자매력요인을 설명하며 ‘대한민국’이라는 상품을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설명회이다. 2008년 4월에 있었던 뉴욕 한국투자환경설명회에서는 선진물류단지(ProLogis社, 10억불), 부동산개발(Kozar社, 1.4억불), 게임스튜디오(Electronic Arts社, 0.2억불), 자동차

부품(Metaldyne社, 0.1억불)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들과 총 11.8억불의 투자성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⑥ 지역투자박람회

2008년에 처음 생긴 제 1회 [지역투자 박람회]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 단체와 지역투자에 관심 있는 국내기업 및 해외투자자들을 한자리에 모여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16개 시도의 지역별로의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지역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제 1회 지역투자박람회에서는 37건, 21조원 규모의 투자가 체결되었다. 지역투자박람회는 정례화 함으로써 기업과 지자체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기업경영환경 등에 대한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프로젝트별로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인·허가 대행, 보조금 및 인력제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지자체와 여러 기관들이 협조할 것이다.

⑦ 세계일류상품제도

‘세계일류상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상품을 뜻하며 국내 기업의 수출품목 다양화, 고급화하고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01년부터 생겨난 제도이다. 우수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과 디자인개발부터 금융, 인력, 해외마케팅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생산기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8〉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담당기관	
해외마케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스임차 및 기본 장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류상품 인증기업은 1개 부스 무료 제공 ○ 전시품 운송 및 통관 수속 지원 ○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지원 ○ 참가업체 공동 홍보활동 지원 	KOT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1,500~2,000만원) 내에서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직접경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은 1인 항공임을 포함해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일즈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상담회 개최 ○ 시장조사, 통역, 차량, 상담장 제공 등 지원 ○ 업체별 참가자 1인 항공임 지원(200만원 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M 운영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 본사 PM을 통해 1:1 맞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깃시장 및 목표 설정 지원 - 다양한 KOTRA 해외마케팅 서비스 활용 지원 * 지원예산 : 1개 업체당 2,000만원 내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홍보책자, 인터넷, 아리랑TV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상품 홍보사업’ 으로 지원(‘08: 4.5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서 수여 및 로고 보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 명의 국영문 인증서 수여 ○ 일류상품 로고를 활용한 상품 홍보 지원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재단)		
타지원제도와 연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3점) 	산업기술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브랜드/포장/캐릭터 디자인 등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당 연간 1억원 이내(총 개발비의 3/4 이내) 	디자인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로확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신인도 부문에서 가점(0.5점)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시 가점(5점) 부여 	중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및 자금조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등급 A 이상 : (현재)10억, (차세대) 5억 - 신용등급 A~BBB : (현재) 5억, (차세대) 3억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보증한도 우대 ○ 보증보험료에 대한 할인혜택 부여 	중소기업은행 수출보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보증대상기업’ 으로 운용, 보증한도 및 보증료 우대 ○ ‘혁신형창업기업보증대상기업’ 으로 운용, 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신도형기업’ 으로 지정, 우대지원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으로 지정, 우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한도 : 50억원(일반 30억원) ○ 부분보증비율 우대(85% 고정비율 적용) 	기술보증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마트’ 개최 등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 제공 		산업기술재단	

자료: 지식경제부

⑧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고유가, 세계경기침체에 따라 글로벌 투자환경의 위축을 우려하고 한국 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제도를 외국인투자 수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현금지원과 재정지원의 병행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 시 부지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더 넓은 부지를 제공하고 대구, 달성 등 외국인 투자지역을 4곳 추가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 더욱 외국인투자의 확대가 기대된다.

(2) 중소기업청⁷⁾

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08예산, 97억 원)

수출가능성이 높은 내수 및 수출초기 기업을 초기단계부터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여 자체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업체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년도 직 수출실적이 100만 불 이하인 기업으로 수출 유망성, 경영자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청별로 선정한다. 세부적으로 수출실무교육, 디자인 개발지원,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수출마케팅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들은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중소기업 무역 촉진단 파견사업('08예산 95억 원)

사업목적은 전문 업종 중심으로 해외유명 박람회·전시회를 참가하고 시장개척단을 구성·파견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저변을 확충하고 수출축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단체 해외전시회 참가에는 부스임차료 및 부스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료 등 공통경비를 지원하며 시장개척단에는 상담장 임차료, 버스임차료, 통역비 및 광고비,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③ 해외진출 민간 거점 활용 지원 사업('08예산, 35억 원)

사업목적은 주요 수출지역에 신뢰성과 전문능력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해외지

7)중소기업청, [2008년도 중소기업지원사업안내], 2008.

원센터로 지정하여 인력 및 정보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중 해외진출 성공 가능성이 큰 250여개 업체에 한해서 수출·해외투자를 위한 시장조사, 협력 파트너 발굴, 계약 성사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조건은 일반기업, 혁신형기업, 수출초기기업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60~80% 차등하여 지역별로 9,000~1,400만원을 지원한다.

④ 수출중소기업 Global Brand 육성('08예산, 22억 원)

이 사업은 가격 및 품질경쟁력은 갖추고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수출중소기업 제품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여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고자 한다.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 원 또는 수출실적 500만 불(혁신형 기업은 200만 불)이상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브랜드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기업 브랜드 경영실태에 대한 컨설팅에 따라 해외 타깃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고 개발된 브랜드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

⑤ 수출인큐베이터 설치('08년 예산, 77.8억 원)

사업목적은 수출대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독자적 수출능력 배양을 위하여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거점과 BRICs, 중동 등 신흥시장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현지마케팅 고문, 법률, 회계고문을 활용하여 자문을 제공받고 현지수출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사무 공간, 공동회의실, 사무용 집기 등 사무여건을 제공한다. 98년에 시카고에 최초 개소 후 현재 중국(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성도), 베트남(호치민), 일본(도쿄), 싱가포르(싱가포르), 인도(뉴델리), 미국(뉴욕, LA, 워싱턴, 시카고), 브라질(상파울루), 독일(프랑크푸르트),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10개국에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⑥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08년 예산, 47억 원)

현지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우수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무역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며 해외 현지에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중소기

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사업내용은 해외시장조사 요령 및 시장특성분석, 세일즈기법 강화 등 현장실무중심의 국내교육을 3주간 실시하며 국내교육 이수 후 중진공 수출 인큐베이터, KOTRA 해외무역관, 해외지사 등에 파견하여 실제 업무를 경험하도록 한다. 파견 개척요원은 중소기업 자사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상담 및 수출계약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전개함으로써 수출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한다. 국내교육비 및 왕복항공료 전액을 지원하며 실적 우수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한다.

⑦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08년 예산, 155억 원)

이 사업은 신용장개설, 원자재구매 자금지원 등 수출요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품인증분야는 CE, NRTL, RoHS 등 75개 분야, 시스템인증분야는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 5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가능하며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수출실적이 100만 불 미만인 수출초기기업에 70%지원하며 수출실적이 100만 불~500만 불의 수출유망기업에는 50%를 지원한다.

⑧ 수출대상국 제품규격 보급

수출시 요구되는 규격인증을 위해 필요한 해외규격을 중소기업이 손쉽게 열람하고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산업기술시험원에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의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계 152개 규격발행기관, 43만 건의 해외규격인증 정보를 인터넷 (www.exportcenter.or.kr)으로 제공한다.

⑨ 수출도우미 활용지원 사업

최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유형의 복잡하고 다양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수출전문가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국내·외 수출전문가를 국가별, 분야별, 품목별 등으로 분류하여 수출중소기업을 맞춤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총 87개국에 539명(국내 358명, 국외 181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였다. 전문 인력은 대기업, 종합상사, 금융기관 등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개척, 무역실무 등의 전문분야 및 IT전자나 기계의 품목별로 확보되어 세부항목별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지도가능하다.

⑩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목적은 중소기업 제품을 인터넷을 활용하여 홍보,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해외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업체,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역량 및 첨단 제품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2007년 사업과 달리 2008년도에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의 <표 2-20>과 같다.

<표 2-19>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내용

구분	해당사업	사업내용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	홈페이지 구축	-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지원
	전자카탈로그	- 종이카탈로그로 동시 활용이 가능한 e-브로셔를 POD(Print On Demand) 방식으로 지원
	기업 블로그 구축 및 유지보수	- 홈페이지를 보유한 기업의 정보를 바이어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
	웹 메일 지원	- 업체 도메인명을 적용한 웹 메일 서비스 지원
해외 바이어 발굴 지원	디렉토리 구축	- 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상품정보를 수집하여 단행본, e-Book, CD로 제작 배포('07년 2,000개 업체 지원)
	웹타겟마케팅	- 해당 품목 바이어에 대해 이메일 마케팅 지원
	GoBizKorea 사이트 운영	- 한글, 영어 중소기업관 사이트 운영 - 한국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제조업 중심의 사이트 - 편리한 검색, 상품 간 연계성이 높은 카테고리별 배치 - 자발적 기업 간 거래 및 커뮤니티 제공

<표 2-20> 온라인 수출지원 변경내용

사 업	2007년	2008년
타겟 마케팅	- 인콰이어리 단순 전달	- 인콰이어리별 상담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
디렉토리북 제작	- 기계업종 - 2,004개 업체 지원	- 선박, 차량용 부품, 잡화, 주방용품, 선물용품 - 3,000개 업체 지원
Gobizkorea 홍보	- 검색엔진 등록	- 유관기관 사이트 연계 및 검색엔진 병행
홈페이지	- 다양한 외국어 지원 - 용역 수행업체 상담	- 검색엔진 등록 등 마케팅을 고려하여 제작 - 중진공 직원 방문 상담
전자카탈로그	-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 활용	- 인터넷 마케팅 및 종이카탈로그 제작 지원

⑪ 수출금융 지원 사업

담보부족 등으로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소요자금 지원 수출자금을 지원해준다.

2) 중앙정부산하기관

(1) 중소기업진흥공단

① 긴급경영안정 자금지원

이 사업의 목적은 수출 또는 내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수급하거나 수출금융의 확보에 애로를 겪는 등의 일시적인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부자재 구입 지원 사업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원부자재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수출 금융 지원 사업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을 지원한다.

② 환위험 관리 지원 사업

수출, 수입, 외화차입,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최소비용으로 현물환·선물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에는 일반외국환은행은 1만 불 이상이여야 외환거래를 하지만 3천불 이상이면 현·선물환 거래가 가능하며 외환시장의 실시간 환율을 기준 환율로 하여 은행 영업점 마진을 없앤 우대환율을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외환 HTS(Home Trading System) 및 환위험관리 솔루션을 무상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스스로 환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외에도 선물환거래 보증금 인하와 거래수수료 인하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사업

수출대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독자적 수출능력 배양을 위하여, 현지 주요 교역 중심지에 수출 Incubator를 운영하여 현지진출 중소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이다. '98년 시카고에 최초 개소 후, '07년 말 16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에 멕시코시티 등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입주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

④ 국제협력사업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선진기술의 국내이전, 공동기술개발 등 기술협력 지원,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해외진출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국제협력을 위해 세계 주요국과 약정체결 및 해외 투자환경 세미나/설명회, 사절단 파견 등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2008년의 사업추진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21> 국제협력사업 계획

사 업 추 진 계 획	예산(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간 산업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보시비르스크 기술협력센터를 통한 러시아 기술협력프로젝트 (50건) - 해외 적정 협력파트너 알선(600건) - 필·인니 코리아테스크를 통한 현지진출상담(350건) - 이태리, 스페인 등과의 산업 협력관을 통한 개별협력(6개국) ○ 협력기반·여건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기술협력 및 투자환경 세미나 개최(10회) - 산업·기술협력 사절단 파견(6회) 	747

⑤ 인터넷 중소기업관(Gobizkorea) 운영사업

중소기업의 온라인 무역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전자 브로셔, 기업 블로그 제작 등 온라인 수출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Gobizkorea e-Marketplace로 운영하며, 해외바이어 대상 웹 마케팅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출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이다.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① 지사화 사업

KOTRA 해외무역관이 1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조사, 수출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에 이르기까지 해외 마케팅 지원한다. 2007년 말 참가업체는 1,671개 사로 2001년~2007년 기간 중 5만7천여 건, 26억불의 수출계약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 총 165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목적에 따라 해외수출성약, 에이전트 발굴, 시장조사, 기타(단순정보제공 등)로 나뉘져 있으며, 그 중 1개 항목을 선택하여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②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국내업체가 요청하는 유망 바이어정보 등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이다. 2007년도에는 연간 15,779건 조사 지원하였다. 해외시장정보에는 거래선 발굴조사(관심 바이어조사, 해외 투자 잠재자 합작 파트너 발굴, 사이버 상담), 시장동향조사(수요, 수출입, 생산, 경쟁, 가격 등), 해외투자정보사전조사(생산 환경, 고용환경, 물류환경 등), 단순 해외 현장 확인 정보, 해외바이어 수출대금관련 정보 확인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③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진출이 유망한 해외시장에 파견을 지원한다. 현지무역관의 도움으로 시장조사 및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다. 2008년에 종합품목 시장개척단 파견 112회, 전략 품목시장개척단 파견 67회 총 179회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계획되어 있다.

④ 수출상담회 개최

한국 상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 구매단 또는 유망 바이어를 한국에 초청하여, 우리 수출업체들과 상담 시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⑤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 단독 또는 다른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수출업체들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의 직접소요 경비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상담, 사후관리, 호텔예약 등 기타 행정 서비스도 지원한다. 2008년에 125개의 해외전시회 참가계획이 있다.

⑥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서비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서비스에는 투자유치행정지원, 투자유치단 해외 파견, 영문 투자유치 제안서 작성지원, 투자유치 상담,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처리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개선 등의 서비스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2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서비스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투자유치 행정지원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직접처리 민원사무, 대행처리민원사무, 외국인투자관련 제도 및 절차상담
투자유치단 해외파견	해외 선진국의 잠재투자자와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그들의 수요에 맞는 국내업체를 모색하여 해외에 파견하는 업무
영문투자유치 제안서 작성지원	IT산업, 자동차 및 조선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해외유망기업에 대한 영문 투자유치 제안서 작성 및 해외투자가 모색을 지원하는 서비스
투자유치상담	외국인투자, 제도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분야별(법률, 회계, 조세 등)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제반사항 상담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처리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을 상대로 금융, 세무, 건설, 법률, 회계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애로와 관련된 고충사안 해결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개선	외국인 투자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외국인 생활환경에 관련된 애로사항 개선 및 외국인 한국정착을 지원한다.
외국기업 창업지원 연구센터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서 투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투자가 전용 사무실 및 회의시설, 비즈니스센터,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 KOTRA직원과 정부파견 공무원들이 1:1밀착서비스 실시

⑦ KOTRA 아카데미 교육연수 프로그램

KOTRA 아카데미는 국제비즈니스 감각을 지닌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해외마케팅 과정, 국제비즈니스 과정, 투자유치 전문가 과정, 특정 기관이나 기업을 위한 맞춤형 위탁연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⑧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

KOTRA에서 국내 수출기업이 저렴하게 보세창고 운영, 통관 및 운송, 재고관리

등의 물류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외 현지의 전문물류서비스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신규거래선 발굴하는 해외마케팅을 지원하여 국내수출기업의 해외시장진출확대를 지원한다. 현재 네덜란드(로테르담), 미국(뉴욕, LA, 시카고, 디트로이트), 캐나다(토론토), 중국(칭다오, 청두, 우한), 헝가리(부다페스트), 러시아(노보시비르스크), 파나마(파나마) 등 12개 처에 한국공동물류센터가 운영 중이며 2008년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베트남의 호치민에 추가개설을 검토 중이다.

⑨ 해외투자진출 지원서비스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진출 지원을 위해 KOTRA 본사에 Global Korea를 운영하고 해외 각국의 투자환경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중국, 베트남 등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에 산업자원부의 공동으로 한국투자 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투자 상담 및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기타 지역은 무역관이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표 2-23> 해외투자진출 지원 서비스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해외투자 Call Center	신규 해외투자 진출을 고려중인 국내 기업과 기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베트남, 아시아 등 기타 지역별로 전문상담원이 국가별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상담하는 서비스
해외투자조사대행	세계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 투자 동향 및 투자환경을 조사하여 제공
해외투자출장지원	기업이 투자를 위한 현지 실사 및 특정 국가를 방문해야 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필요한 기관의 상담을 주선 받는 서비스
해외진출 프리미엄 서비스	OPS(Overseas-Investment Premium Service)란 KOTRA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객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고객과 함께 설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	투자진출상담지원, 투자기업 경영애로사항 해결,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현지 기업마케팅 지원 사업
해외진출통합정보 시스템 운영	OIS(Overseas-investment Information System)란 국내 31개 해외진출 지원기관(지식경제부, KOTRA, 수출입은행 등)의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해외진출 및 투자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국가별·산업별·투자단계별 정보제공

⑩ 전자무역 지원 서비스

해외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해외마케팅 비용대비 1/10수준으로 전자 카탈로그 제작, 바이어 상담, 제품 오더, 계약 체결 등의 무

역 과정을 신속하게 해결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해외무역관에서 발굴한 바이어와 사이버 플랫폼을 활용하여 1:1수출 상담을 하는 B2B e-Trade 시장개척단 사업과 해외에 수출로드쇼 행사장 구성 및 자사 사무실에서 사이버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B2B e-Trade 수출로드쇼 사업 및 소액수출대금 안전회수 서비스(KOPS), 국제물류서비스(eGLS)도 지원한다.

⑪ 중소기업 수출지원단 사업

수출활동의 지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퇴직 무역 전문 인력의 경험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재배치하는 형식으로 수출상담 지원, 업체 애로사항 해소, 계약협상 주도 등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 한국수출입은행

① 중소기업 지원제도

한국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이 수출입업무, 해외투자에 필요한 대출, 보증 등 금융을 지원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의 2007년 지원자금은 다음 표와 같으며 2008년 지원규모는 2007년 계획대비 26.2% 증가할 예정이다.



<표 2-24>중소기업 지원현황

(억원, %)

구 분		'07년	'08년	
			계 획	증감률
대출	수 출 자 금	39,700	46,000	15.9
	수 입 자 금	4,000	6,000	50.0
	해외투자자금	3,000	3,700	23.3
	합 계	46,700	55,700	19.3
보 증		4,800	9,300	93.8
합 계		51,500	65,000	26.2

② 해외 투자 지원 금융

해외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주요자원 개발을 위해 해외투자 또는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에 시설확장과 교체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③ 대고객 서비스 지원

대고객 서비스에는 해외진출 컨설팅센터, 중소수출금융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국가별 정보제공, 국제거래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표 2-25> 대고객 서비스 지원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해외진출 컨설팅센터운영	수출입, 해외투자 금융상담 외에 국제계약 및 법률자문, 해외 국가별 투자환경 정보, 환율동향정보 및 환위험 관리 등 비 금융 서비스 제공
중소수출금융 아카데미 운영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중소수출기업 경영자 또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환위험 관리, 무역 금융 등의 정보 제공
국가별 정보제공	국가별 정치, 경제상황, 투자환경 등의 정보 제공
국제계약 법률상담	국제거래 관련 법률 상담 및 수출입·해외투자 관련 영문계약서 검토·작성을 무료로 지원

④ 수출 지원 금융

수출지원금융으로는 포괄수출금융, 수출용 원자재 공급기업의 외화매출채권에 대한 팩토링, 차세대 수출중소기업 특례 신용대출, 수출중소기업 반출지원자금대출, 단기수출자금대출, 중장기수출, 거래지원, 직접대출, 전대자금대출 등이 있다.

<표 2-26> 수출 지원 금융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포괄수출금융	모든 품목에 대해서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의 50~90% 범위 내 일괄 대출
수출용 원자재 공급기업의 외화매출채권에 대한 팩토링	수출기업에게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자의 외화매출채권을 무 소구 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상품
차세대 수출중소기업 특례 신용대출	신용이 낮거나 담보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수출거래에 대해 무담보로 금융 지원
수출중소기업 반출지원자금대출	KOTRA 물류센터 앞으로 수출물품을 사전 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부담 경감을 위해 자금을 지원
단기수출자금대출	수출대금이 인도 후 2년 내에 결제되는 단기수출거래에 대하여 수출물품 제작 및 수출에 필요한 자금 지원
중장기수출 거래지원	인도 후 수출대금 결제 시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대규모 자본재 등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제작 및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직접대출	외국의 구매자가 국내기업으로부터 연불기간 2년 이상의 결제조건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인 구매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수출금융 상품, 수출자는 수출과 동시에 수출대금 회수
전대자금대출	외국의 금융기관(외국정부 포함)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신용한도(Credit Line)를 설정해 주고,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기업이 이를 수입결제자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금융지원제도

⑤ 수입 지원 금융

첨단제품, 광물자원, 원유, 천연가스 등 국가 경제적으로 장기 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주요자원 및 상품의 수입거래를 수입소요자금 총액의 90% 범위 내 지원한다.

(4) 한국수출보험공사

①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최근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방식의 증가로 대금 미회수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겨난 제도로서 해외 수입자의 재무상태, 업계 평판, 결제 태도 등의 신용조사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

② 수출신용보증

수출 신용 보증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27> 수출 신용 보증

선 적 전	수출기업이 수출물품과 관련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때 자체담보 제공 없이 수출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여 수출이행자금 대출
선 적 후	수출기업이 선적 후 금융기관에 선적서류 등을 매입하고자 할 때 수출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여 자체담보제공 없이 매입을 가능하게 하여 자금회전에 도움

③ 단기수출보험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수출물품 선적 후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운송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④ 환 변동 보험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USD, JPY, EUR 3개 통화에 한하여 환 변동 보험을 통해서 원화가격으로 고정시켜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환율등락에 따른 환차손익을 제거한다.

⑤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서비스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대행하여 해외사무소, 현지 수출보험기관, 현지 채권 추심기관 및 Law Firm 등과 연계하여 채권회수 해준다. 이 서비스는 수출 전 ‘수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이용가능하다.

3) 기업경영단체

(1) 상공회의소

① 무역관계 증명의 발급

수출입 절차 상 필요한 상업송장, 선화증권, 보험 증권과 같은 서류 및 계약서 등 국제계약입찰에 필요한 서류의 공증과 일시적인 수출입 통관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ATA까르네⁸⁾ 증명발급을 실시하고 있다.

② 구미, 아주 및 아프리카 지역과의 경제협력증진사업

<표 2-28> 해외 경제협력 증진사업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인적네트워킹사업	해외 주요 정/재계 인사나 경제사절단이 방한 시 간담회나 거래상담회를 마련하거나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을 통해 회원업체와 현지 기업인 및 주요인사와의 인적네트워킹 사업을 추진.
정보제공사업	각종 통상, 투자환경, 세미나, 설명회를 통해 회원업체에 정보제공.
업계 대변사업	VIP수행사절단 파견 시 회원업체의 진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양국 정상 및 장관의제에 포함하여 파견국 정부에 전달

③ 중국 비즈니스 지원

중국과의 공식 민간경제채널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재중 한국투자협의체인 중국 한국 상회 운영을 통해 국내외 중국진출 관련업체에 법률, 경영상담, 설명회, 사절단 파견, 중국경제 정보 제공 등의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④ 기타국제기구/국제통상정보/무역거래 알선 및 상담

국제상업회의소(ICC), 아시아/태평양 상공회의소 연합회(CACCI)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국가 간 교역, 투자, 중소기업 진흥, 경제협력 등에 힘쓰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시장동향, 무역규제사항, 국제통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출입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기업과 국내의 회원사 간 무역거래알선 및 수출 상담을 지원해준다.

8) ATA까르네란 무관세입시통관증서란 뜻으로 ATA협약국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 수출 또는 보세운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써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통관시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없으며 관세, 부담금 등을 수입국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

(2) 한국무역협회

① 무역기금 융자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이며 회비를 완납한 무역협회 회원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2007년에 538개사에 882억 원의 지원 실적을 기록했으며 2008년에는 870억 원을 지원계획하고 있다.

② Trade Conference 개최

무역거래 알선, 해외시장 공략 성공·실패 사례, 무역전문가와의 현장 1:1 상담 등 업계가 관심 있는 무역경비절감 및 해외마케팅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수출상품 온라인 홍보서비스 지원

수출유망 제품을 보유한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상품용 e-카탈로그, 거래제의서(C/L) 제작을 통해 수출상품 홍보를 지원한다. 2007년 지원실적은 e-카탈로그 홈페이지 제작 1,900건, 거래제의서(C/L) 제작200건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e-카탈로그 홈페이지 제작 2,000건, 거래제의서(C/L) 제작200건을 계획하고 있다.

④ 무역서비스 할인클럽 운영

수출기업이 수출입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우수한 업체들과 제휴하여 회원사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표 2-29> 무역서비스 할인클럽 서비스 내용

제공서비스	제휴업체	할 인 혜 택
국제특송	FedEx	서류/샘플/소화물 40%, 기타 25% 할인
	DHL	서류/샘플/소화물 30% 할인
국내택배	대한통운	기본운임의 47 ~ 60% 할인
해외규격인증	TUV Korea	소요비용의 20% 할인

수출포장	인테크포장	포장비 15%, 출장비/운송비 5%, 위험물 핸들링 비 5%, 신적서류 무료 작성
해외바이어 정보	KOMPASS	정액서비스 가입비 면제, 정액 정보 이용료 및 광고료 할인
해외거래선 신용정보	D&B Korea	신용정보 17%, 연 정보이용료 3%, Worldbase 연 정보이용료 5%, 채권추심 10 ~ 15% 할인
해외수출대금 회수대행	한국신용정보	접수비 50%, 성공보수 13% 할인
통역 및 번역	한통	20% 할인
	엔터스코리아	30% 할인
휴대폰/인터넷 로밍	위즈텔	기본료 면제, 이용료의 10% 할인
	GMR	기본료 면제, 이용료의 10% 할인
광고대행	아노커뮤니케이션	매체별 5 ~ 30% 할인
구매대행	아이마켓코리아	사무용품 소모성 자재 최고 30% 할인
호텔할인 예약	월드호텔&투어스	세계 70개국 2만여 호텔 최고 70%에 7% 추가 할인

⑤ 무역실무 관련 상담 서비스

무역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수출입 절차, 통관, 관세 환급, 대금결제 및 세무회계와 관련하여 무역관련 애로 및 실무 상담을 관세사, 국제 변호사 등 전문가에 의해 분야별로 상담을 지원한다.

⑥ 해외지사(사무소) 설치인증 추천

해외지사(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 10만 불 이상인 업체 또는 5만 불 이상의 취소불능수출신용장을 수취한 업체) 또는 해외사무소(사업계획서 검토 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를 희망하는 무역업체를 추천한다.

⑦ RADIS(수출입운임서비스)

-무역업체 회원사의 중소무역업체를 대상으로 무역협회가 선정한 24개의 운송 협력업체들의 운임 및 물류비 할인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표 2-30> 수출입운임 서비스 내용

구 분	업체수	서비스 내용
포워딩	12	해상화물, 항공화물 시장운임에서 5-15% 할인

내륙운송	1	내륙운송료 및 창고보관료 15-30% 할인
3자물류(3PL)	3	운송, 보관, 하역, 유통, 부가가치물류 등 종합물류서비스(5-15% 할인)
관세사	2	통관수수료 할인 및 관세율, 상품분류, 관세환급 컨설팅 등
물류컨설팅	3	물류Process 및 구조 개선 컨설팅
물류IT·설비	1	WMS, SCM 등 물류IT 및 물류설비 구축지원
해외물류센터 (미국, 일본)	2	해외현지 Stock sales용 보관, 위탁 재고관리, 해외 현지통관 및 운송

⑧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수출유망 지역에 대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등 무역투자사절단을 파견하여 1:1 무역 투자 상담회 개최 및 참가, 한국경제 및 문화로드쇼 개최를 지원하며 공동경비인 행사장임차료, 버스임차료 및 통역비 무료 지원을 제공한다. 2008년에 총 12개의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

⑨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해외 유명 전시회에 한국관 참가를 지원하며 부스 임차료50% 지원, 장치비 50~70% 지원, 현지 언론 홍보, 운송 등 애로사항 지원, 전시정보, 시장동향 등 정보 수집하여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수출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2007년에 6개의 전시회에 128개사를 지원했으며 2008년에는 6개의 전시회에 138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⑩ 해외 한국 상품 전시 상담회 개최

중소무역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한다. 2007년에 3개의 전시회에 209개사를 지원했으며 2008년에는 동경 한국 상품 전시 상담회, 뉴욕 한국 상품 전시 상담회, 오사카 한국 상품 전시상담회의 3개의 전시회에 21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⑪ e-무역상사 운영

국내 e-Marketplace가 보유하고 있는 e-무역상사의 무역마케팅 노하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on-line, off-line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on-line 무역마

케팅 지원 내용에는 전자 카탈로그 제작을 지원하고 해외 바이어 물색과 거래 알 선을 지원해준다. off-line으로 관련 전시회에 참가하여 마케팅 활동을 하고 전자 무역 교육 및 수출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2007년 8억 원 규모에 199개사를 지원 했으며 2008년에는 6억 원 규모로 15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⑫ 수출중소기업 통번역센터 운영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49명의 언어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13개 국어(영어 20, 중국어 5, 일본어 5, 불어/독어/서반어/러시아어 각 3, 이탈리아 2, 우즈베크어/헝가리어/아랍어/몽골어/인니말레이어 각 1)를 대상으로 무역서신, 계약서 등 통번역지원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협상력과 계약체결 성사율 의 제고를 도모한다. 2007년에 2,886건의 지원 실적이 있으며 2008년에는 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요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며 지방전담 권역별 전문위원 pool 구축, 대상언어 추가 및 전문위원 확충(베트남어 추가, 49명 → 65명)하여 4,000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⑬ 맞춤형 무역현장 지원단

회비를 납부한 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무역전문컨설턴트가 업체 방문을 통 해 거래선 발굴, 서류작성, 수출입대금결제, 통관, 무역클레임, 해외마케팅 등 무역 업무에 있어 애로사항에 1:1로 접근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11개의 권역 에 15명의 컨설턴트가 해당 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다(서울/경기(5명), 인천(1명), 강원(1명), 대전충남(1명), 충북(1명), 대구경북(1명), 부산(1명), 경남(1명), 울산 /서울경기(1명), 광주전남제주(1명), 전북(1명)).

⑭ 무역경영자문단 경영

대기업 전직 CEO(이태용 前 대우인터내셔널 사장, 금병주 現 우성아이앤씨 사 장)및 전직 외교관(정문수 前 주카타르 대사, 유주열 前 주중국북경 총영사)의 4명 의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기업경영, 해외마케팅, 중동·아프리카, 중국 등의 해외통상 정보를 중소기업에 경영자문에 제공한다.

⑮ 트레이드 인큐베이터(Trade Incubator)운영

트레이드 2층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초보 무역인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사무 공간 및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무역컨설팅, 경영자문 등을 지원한다. 총 18개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2007년에 8개사가 12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사례가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이 제공하는 국제통상 활성화 지원방안을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기관들, 특히 민간경영단체는 회원사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정책도 있으나 환위험관리, 수출전시회, 설명회/세미나 등 다른 유관 기관들이나 정부기관들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전반적으로 수출지원정책을 더 많은 수출중소기업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지원 업체규모나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재정적 수출 지원 정책으로 고유가와 환율하락으로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피해가 큰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우려하여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율변동성에 대비하여 환 변동보험 도입과 가입하도록 환 변동 보험료를 지원하며 중소기업 스스로 환위험관리 유도를 위해 경영자를 위한 환위험 교육을 실시하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환위험 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출보험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수출업무 시 대금미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수출부보율을 100%로 확대하거나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신용대출 제공 등 유동성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금융부문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BRICs 각 시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시장개척활동을 벌이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시장성, 경제협력 필요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정한 수출유망시장에 대해서 각국에 대해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신흥시장 진출을 원활하기 위해 . 무역투자사절단, 해외무역전시회참가, 설명회/세미나, 수출로드쇼,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하며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의 접근이 어려운 중소수출기업을 위해 지사화 사업, 트레이드 인큐베이터, 해외공동물류 센터 등을 통해 해외진출거점 지원을 확충하고 있다.

수출상품의 일류화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 수출상품 중 세계일류 상품을 신규발굴하고 지원하며 설계, 제조, 금융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해외플랜트 수주를 확대되도록 지원하며 수출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장려하고 있다.

여러 기관들은 중소기업수출지원단, 수출애로해소 점검단, 무역경영자문단, 수출도우미 활용지원 사업 등을 무역실무, 회계, 관세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수출애로 해소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무역인력 양성을 위해서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KOTRA 아카데미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제 3 장

대전지역 산업의 특징과 국제통상 현황

제1절 대전지역 경제 일반현황

제2절 대전지역 국제통상 현황

제3장 대전지역 산업의 특징과 국제통상 현황

제1절 대전지역 경제 일반현황

1. 대전 산업구조 특징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체 지역별에 대해 산업·경제구조에 대하여 분석하고 지역별 최신 국제통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대전지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1) 대전 산업구조

대전의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 추이를 보면 90년대까지는 제조업의 비중이 지속하여 증가하나 2000년부터 19%대로 하락하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하락하는 반면 금융·보험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 업 등의 서비스업 비중은 2004년 68.6%로 90년대 50%대보다 급속히 증가하여 대전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고착되었다.

<표 3-1>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1992	1995	1998	2001	2004	전 국
농림어업	1.1	0.7	0.7	0.5	0.4	3.6
광업	0.1	0.1	0.0	0.0	0.0	0.2
제조업	19.3	19.6	20.9	19.8	19.0	28.4
전기·가스·수도사업	0.8	1.0	1.3	2.1	1.8	2.4
건설업	23.7	15.0	13.0	9.0	10.2	9.4
도·소매업	8.3	10.0	8.1	8.2	8.1	7.0
숙박·음식점업	3.1	2.4	2.2	3.0	2.9	2.7
운수업	3.9	4.5	4.1	4.3	4.0	4.5

통신업	1.6	1.9	2.4	2.7	2.5	2.4
금융·보험업	4.9	6.2	6.1	7.5	8.8	8.4
부동산·사업서비스업	14.1	17.6	18.5	18.2	17.3	12.7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6.3	6.7	7.4	7.9	8.4	6.1
교육서비스업	7.0	7.6	7.9	8.4	8.4	5.8
보건·사회복지사업	1.9	2.6	3.3	3.8	3.9	2.6
기타서비스업	3.9	4.2	4.2	4.7	4.3	3.7
총부가가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대전발전연구원, 2006 '대전경제발전 중장기계획'

대전지역의 제조업 중 담배제조업(20.0%), 기타 기계 및 장비(18.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16.1%), 화합물·화학제품(11.8%) 등 2004년 중 부가가치 기준 7대 업종이 제조업 총부가가치의 82.6%를 생산하고 있다. 2006년에는 담배제조업, 자동차, 영상·음향 및 통신, 고무 및 플라스틱 부분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운송장비나 화학제품은 다소 감소하였다. 2007년 상반기에는 담배제조업, 조립금속, 자동차, 고무 및 플라스틱 부문은 증가, 화학제품과 기계장비는 감소하였다. 반면 2007년 하반기에는 기타 운송장비와 종이제품 생산은 증가, 화학제품, 담배, 기계 및 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은 감소했다. 이어 2008년 1/4분기 전년 동월 대비 화학제품(19.0%), 전기 장비(56.0%), 의료정밀 및 광학(17.8%) 증가하였으나 담배(-4.5%), 고무 및 플라스틱(-2.4%) 감소하였다.

<표 3-2> 주요 제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 추이

(단위 : %)

제조업 증분류	2000	2001	2002	2003	2004
담배제조업	19.0	17.0	14.9	19.2	2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5	10.6	15.6	15.6	18.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7.0	17.0	15.8	15.8	16.1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9.9	14.5	15.3	14.9	11.8
음식료품 제조업	8.8	9.9	8.3	4.4	5.6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7	4.0	4.0	3.9	5.4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6.9	5.8	6.3	7.3	5.4
계	76.8	78.8	80.2	81.1	82.6

자료 : 대전발전연구원, 2006 '대전경제발전 중장기계획'

다음은 대전지역의 서비스업 특성을 보면, 지역내총생산 기준으로 부동산·사업서비스업이 전체 서비스업의 GRDP의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금융·보험업이 12.9%, 교육 서비스업이 12.3%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와 종사자 구성비는 도·소매업이 각 31.4%, 21.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사업체 수 기준으로 도·소매업(31.4%)과 숙박·음식점업(22.8%)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입지계수를 보면 지역내총생산 기준으로 보건·사회복지사업(1.20%), 교육 서비스업(1.18%),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분야의 특화도가 높다.

<표 3-3 > 서비스업 구성비 및 입지계수(2004)

(단위 : %)

구 분	구성비			입지계수		
	GRDP	종사자	사업체수	GRDP	종사자	사업체수
도매 · 소매업	11.7	21.7	31.4	0.94	0.92	0.99
숙박 · 음식점업	4.2	14.5	22.8	0.87	0.90	0.98
운수업	5.8	7.6	11.1	0.72	0.94	0.92
통신업	3.6	1.2	0.3	0.84	0.99	1.05
금융 · 보험업	12.9	5.1	1.2	0.86	0.91	1.00
부동산·사업서비스업	25.3	16.0	7.4	1.11	1.21	1.04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12.2	6.3	0.3	1.12	1.27	0.72
교육서비스업	12.3	11.3	4.6	1.18	1.07	1.05
보건·사회복지사업	5.7	6.0	3.0	1.20	1.06	1.13
기타서비스업	6.3	10.3	17.9	0.96	0.94	1.05

자료 : 대전발전연구원, 2006 '대전경제발전 중장기계획'

다음 표의 대전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동향에서도 보면, 경기가 침체할 경우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의 3차 산업의 비중이 높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서비스업)의 2005년도 비중은 85.8%로 전국 평균 73.5% 보다 12%가 높은 수준이다.

〈표 3-4〉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천명, %)

		취업자 총수 (비중)	농림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전기,운수, 통신,금융	
대전	2002	642 (100.0)	12 (1.9)	83 (12.9)	548 (85.4)	60 (9.3)	210 (32.7)	209 (32.6)	69 (10.7)
	2003	639 (100.0)	9 (1.5)	82 (12.8)	548 (85.7)	68 (10.6)	187 (29.3)	219 (34.3)	75 (11.7)
	2004	649 (100.0)	10 (1.5)	80 (12.4)	558 (86.1)	64 (9.8)	189 (29.1)	230 (35.5)	76 (11.7)
	2005	646 (100.0)	11 (1.7)	81 (12.5)	554 (85.8)	59 (6.1)	175 (27.1)	242 (37.5)	78 (12.1)
전국	2002	22,169 (100.0)	2,069 (9.3)	4,259 (19.2)	15,841 (71.5)	1,746 (7.9)	5,998 (27.1)	5,940 (26.8)	2,157 (9.7)
	2003	22,139 (100.0)	1,950 (8.8)	4,222 (19.1)	15,967 (72.1)	1,816 (8.2)	5,852 (26.4)	6,139 (27.7)	2,160 (9.8)
	2004	22,557 (100.0)	1,825 (8.1)	4,306 (19.1)	16,427 (72.8)	1,820 (8.1)	5,862 (26.0)	6,558 (29.1)	2,187 (9.7)
	2005	22,856 (100.0)	1,815 (7.9)	4,251 (18.6)	16,789 (73.5)	1,814 (7.9)	5,806 (25.4)	6,923 (30.3)	2,240 (9.8)

자료 : 대전발전연구원, [새 정부하 대전경제 활성화 방안연구], 2008

이러한 대전은 전형적 소비도시로서 소비와 생산 면에서 타 지역과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개방형 경제구조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 물류유통망의 확충과 고속철도 및 도로의 확충으로 지역의 소득을 외부로 더 빠르게 유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돈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제조업 비중은 낮은 반면, 소비도시의 개방형 경제구조를 갖는 대전의 취약한 산업구조는 경기 침체의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경기가 하락하면 경기침체의 영향을 크게 빨리 받는 반면,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경기상승의 영향을 작고 느리게 받는 단점이 있다.

대전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업 육성으로 제조업 비중을 늘려 대전 외 지역과 국외를 시장으로 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그 소득으로 지역 내 소비를 증대시켜 지역 내에서 자본이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2) 대전의 지역혁신산업

대전지역의 지역혁신 산업의 비전은 21세기 선도도시로서 첨단과학기술도시, 지식정보산업도시, 물류유통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목표는 선진국 수준의 경제 과학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며 전략은 주력기간산업과 차세대 신산업의 융합을 중심으로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여 전략산업 중심의 대덕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하여 지역대학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인력을 양성하며 대전지역의 성장 동력 산업인 과학기술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며 혁신주체별 네트워크 강화하는데 있다. 다음 표는 대전 지역혁신 SWOT분석한 표이며 계속하여 대전 지역의 주요 전략산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5> 대전경제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행정·교육·국방 중핵도시 ◦ 교통·국토계획의 중심지 ◦ 지방최고의 고급 연구인력 보유 ◦ 차세대 융합기술(IT, BT, NI)능력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 인프라 시설미비 ◦ 지역 선도 기업(대기업) 부재 ◦ 기업간·분야간 상호교류 네트워크 활용미흡 ◦ 연구성과의 실용화 부족 및 벤처캐피탈 취약 ◦ 제조업 기반 취약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 지역 시장 활성화 ◦ 첨단기술인력 양성체계를 이용한 사업화 기술협력이 용이함 ◦ 동북아 R&D 허브도시로서의 성장잠재력이 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중심의 개발전략 확산 및 규제완화로 균형발전 저해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따른 정부의 R&D 정책 구도의 변화

자료 : 지식경제부, 지역혁신안내, 2008

대전의 주요 전략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과학기술원, ICU, 충남대, 한밭대 등의 교육기관과 기업 연구소가 집적되어 산학연 연계 및 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 역량이 확보되어 있다.

<표 3-6> 정보통신산업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이 풍부함 ◦ 연구역량이 우수함 ◦ 기술개발 및 상업화 경험 풍부 ◦ 기술기반 창업환경이 양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재무구조의 취약성 ◦ 지역 선도 기업(대기업) 부재 ◦ 시장접근성미흡 ◦ 경영지원서비스 미흡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무선/방송망의 통합에 따른 신규시장등장 산업육성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의지가 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업체로의 종속성이 강함 무분별한 모방제품의 등장 전략산업의 모호성에 따른 특화산업의 난립

바이오산업은 R&D 기반의 연구기관 및 LG 생명과학, SK 대덕 기술원 등의 대기업 부설 연구소 등이 있으며 대전 바이오클러스터 협의회가 구성되어 바이오의약/바이오기반기술/바이오소재 분야의 3개 클러스터가 운영되고 있다.

<표 3-7> 바이오산업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의 바이오육성의지 및 지식경제부의 지원의지가 강함 우수한 전문연구인력 연구 및 기술이 우수한 바이오벤처들의 집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바이오기술의 인식부족 경영주체의 경영, 마케팅 마인드부족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지원 자금 및 의지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지역의 벤처육성을 위한 기기장비 및 인프라구축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바이오벤처회사들의 창업여건 및 의지확보 바이오 클러스터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집중으로 인한 타 기업들의 배타심경계 타 지역의 바이오벤처회사의 우수기업유치가 활발하여 대전지역의 우수 벤처기업의 이전 가능성이 높음

지능형로봇산업의 경우 대전은 로봇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 지능형 로봇연구 집적지이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T광대역 통합망 부문, 민간전문기관 등 IT 기반 지능형로봇 개발의 주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표 3-8> 지능형로봇산업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차세대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됨 대덕연구단지내 우수 연구인력 IT, BT, NI관련 인프라 풍부 중부권 로봇 중심지로 대전 지능로봇산업화 센터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 생산·제조 인프라 시스템 부족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 부재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정책적 의지에 따른 자금 지원 확대 KTX 개통으로 인력과 기업교류 활성화 여성의 사회진출, 웰빙 신드롬으로 로봇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오사카의 로봇집적화 단지 계획

필요성 증가 ◦ 기 보유된 지능로봇 핵심기술을 산학연 공동 으로 상용화	
---	--

다음은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지능형로봇산업 외 대전의 지역혁신산업현황을 유형별로 나타낸 표이다.

<표 3-9> 지역혁신산업 유형별 현황

구분(유형)		지원과제	주체기관
지역 전략 산업 진흥	지역특화센터 (H/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벤처타운조성 • 고주파부품지원센터건립 • 지능로봇산업화지원센터건립 • 정보전자부품소재기술혁신센터구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대전테크노파크 • (재)대전테크노파크 • (재)대전테크노파크 • 나노종합센터
	기업지원 (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산업분야전문기술인력양성 • 기술상용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대전테크노파크 • (재)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획단(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대전테크노파크
지역 연고 산업 진흥	(H/W+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인증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 혁신클러스터구축사업 • 대전바이오산업기술혁신인력강화사업 • 대전지역혁신클러스터구축사업 • 대전지역 Wireless Valley 구축을 위한 고주파부품산업역량강화 지원사업 • 대전지역 전통 조립금속 기계산업의 육성 및 고도화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대학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재)대전테크노파크 • (재)대전테크노파크 • 한국기계연구원
RIC	(H/W+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연구센터 • 민간겸용보안공학연구센터 • 생물·의약지역기술혁신센터 • 난치성면역질환의동서생명의학 연구센터 • 바이오의학연구센터 • 첨단화학소재상용화 지역기술혁신센터 • 환경개선형신소재개발연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대학교 • 한남대학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대전대학교 • 배재대학교 • 한밭대학교 • 한밭대학교

주 : R&D사업(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지역연구개발클러스터구축사업, 지자체주도연구개발사업) 및 네트워크 사업은 현황에서 제외

2. 대덕 R&D 특구와 대전 산업 단지

대전에는 5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8,616천㎡에 달한다. 5개의 산업단지 중 준공 후 30년 이상의 단순 생산시설 위주의 노후 된 대전 제1,

2 산업단지는 그 동안의 노후화된 시설에서 벗어나 공장시설 뿐만 아니라 공원, 문화 공간 등이 마련된 친환경 기반시설로의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표 3-10> 산업단지현황

구 분	조성 기간	사업비 (억원)	조성 면적 (천㎡)	입주업체				
				계	가동	건설중	미착공	휴업
1산업단지	69~73	38	479	93	83	1	0	9
2산업단지	75~79		777	104	97	5	0	2
3산업단지	90~92	1,099	1,234	115	107	6	0	2
4산업단지	91~97	3,047	1,900	212	205	6	1	0
대덕테크노밸리	91~		4,226	322	160	14	148	0
계		4,184	8,616	845	652	32	149	13

자료 : 대전광역시

현재 조성된 산업단지에 2007. 4/4 분기 중 846업체가 입주중이며, 이 중 652개 업체가 가동 중이다. 1990년대 초반이후 조성된 대전 3·4 산업단지는 1·2 산업단지와 함께 전의 제조업 생산에 중심을 이어 오고 있다.

대전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자리 잡고 있다. 대덕 연구개발 특구는 2005년 3월 대덕연구단지에서 대덕 R&D특구로 바뀌었으며, 세계적 초일류 혁신클러스터화 하여 지역산업발전을 도모하고 벤처생태계 조성, 글로벌 특구 환경 조성,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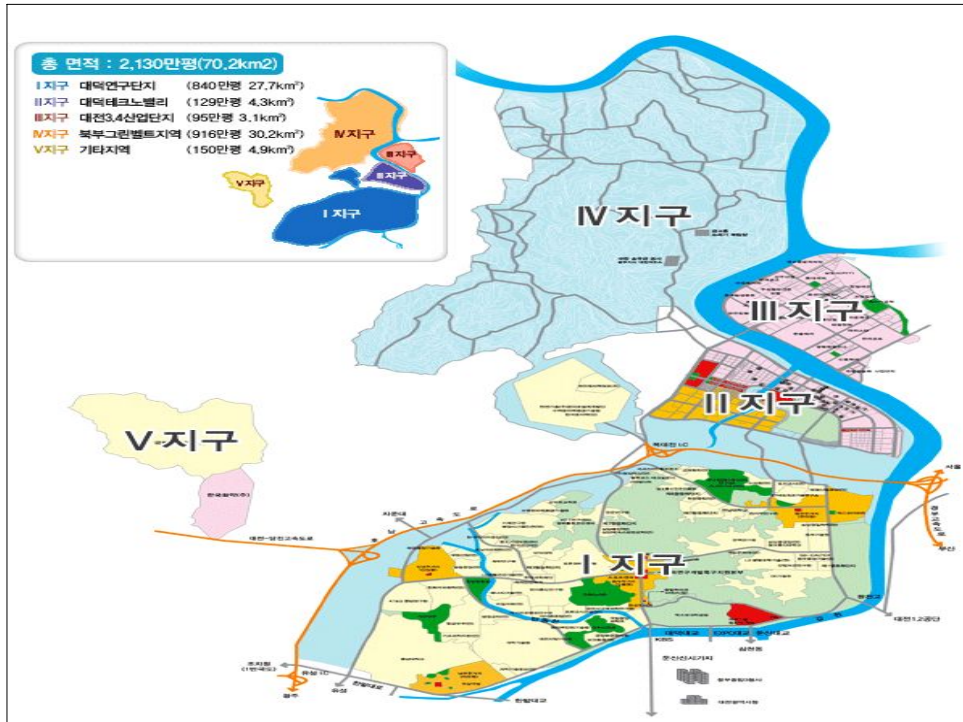
1) 대전의 혁신역량 대덕 R&D 특구

(1) 대덕 R&D 특구

대덕 R&D특구는 기존의 1970년대에 조성된 대덕연구단지가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을 결합하여 세계 수준의 연구개발 주도형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5년

대덕 R&D특구로 지정되었다. 총 면적은 2,130만평으로 I 지구는 대덕연구단지 840만평(27.7km²), II 지구는 대덕 테크노 벨리(129만평 4.3km²), III 지구는 대전 3·4 산업단지(95만평 3.1km²), IV 지구 북부그린벨트지역(916만평 30.2km²), V 지구는 기타지역(150만평 4.9km²) 총 5개의 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 대덕 R&D 특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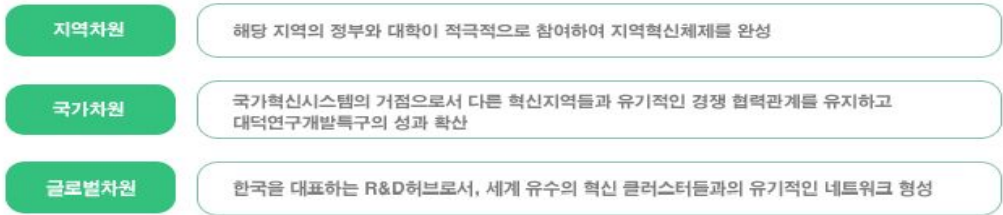
(2) 대덕R&D특구의 추진 및 발전전략

대덕특구본부에 따른 대덕 R&D특구의 추진방향은 대덕특구만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여 공공연구기관 연구 성과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며, 국내기업의 해외 기술 촉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하여 글로벌 환경을 구축한다. 연구개발-사업화-마케팅-재투자의 유기적인 연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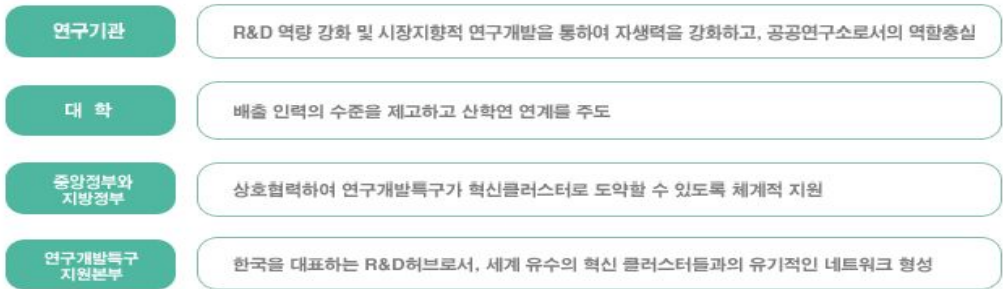
•학•연 등 혁신 주체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유도하며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산한다. 대덕특구 운영성과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하여 타 지역의 지역혁신체계 및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발전전략은 지역적•수준별, 특구 내 주제별 및 단계별 차원의 발전전략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 대덕특구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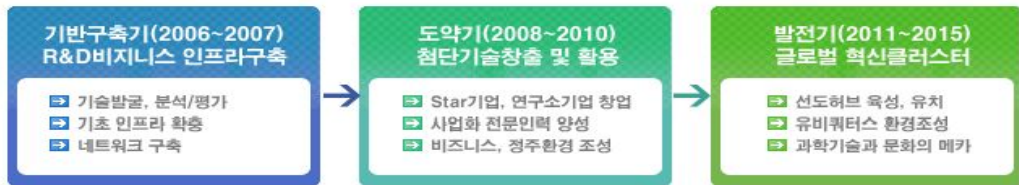
→ 지역적·수준별 차원



→ 특구 내 주제별 차원



→ 단계별 차원



(3) 특구일반현황⁹⁾

9)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홈페이지 (www.ddinnopolis.or.kr)

① 유형별 입주기관 현황

2007년 기준 정부출연기관 21개, 기업부설연구소 43개, 정부투자기관 9개, 대학 6개, 기업 762개로 861개의 기관들이 대덕 R&D특구 내에 입주해 있다.

<표 3-11> 유형별 입주기관현황

(단위 : 개)

종류 \ 유형	출연 기관	투자 기관	교육 기관	국공립기관	기타 비영리	기업	합계
2007.12	28	7	6	15	23	898	977
2006.12	21	9	6	13	8	786	843
2005.12	21	10	6	12	6	687	742

주 : 지구별 중복기관은 1개의 기관으로 표시

② 자원현황

특허(누적) 및 기술이전 건수는 2006년 12월 기준 국내외 특허 출원은 64,102건, 등록은 33,783건에 달하며 기술이전건수는 716건, 기술이전료는 590억 원에 달한다.

<표 3-12> 특허(누적) 및 기술이전 건수

(단위 : 건)

구분	국내특허(누적)		해외특허(누적)		기술이전건수	기술이전료 (백만원)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06.12	46,392	27,197	17,710	6,586	716	59,521
2005.12	41,368	22,625	15,872	5,935	577	50,751

연구 장비 인프라에 있어서 2006년 기준 대전은 25,811건으로 전국의 21.2%를 차지하며 서울에 이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형첨단 연구 장비 개발·설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30MW급 개방수조형의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를 갖추고 있다.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 장치, 1마이크로미터 MR 영상 촬영 장치 등을 보유하여 국내 최고 R&D인프라 구축을 자랑하고 있다.

<표 3-13> 연구 장비 인프라

(단위 : 건)

전국	서울	대전	경기	부산
121,580	28,146(23.1%)	25,811(21.2%)	14,853(12.2%)	7,148(5.8%)

자료 : 연구장비공동활용실적조사(2006)

특구 내 코스닥 등록 기업은 2004년 7개의 기업에서 2005년 11개, 2007년 6월에는 총 14개의 기업이 코스닥 등록하여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표 3-14> 특구 내 코스닥 등록기업 현황

구분	2004	2005	2007.6
기업수(개)	7	11	14

또한 대덕 R&D특구는 2006년 기준 박사 6,495명, 석사 9,149명으로 국내 최대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표 3-15> 특구 내 인원현황

(단위 : 명)

구분	연구기술직				종업원 수
	박사	석사	학사이하	계	
2006.09	6,495	9,145	2,892	18,532	37,224
2005.12	6,236	7,561	2,962	16,759	23,558
2004.12	5,806	6,593	2,828	15,227	22,395

다음 표는 16개 시·도의 혁신자원을 비교한 표이다. 대전의 1인당 GDP는 16개 시·도 중에 12위에 해당하지만 인구 1만 명당 연구원 수, 연구비, SCI논문, R&D 예산, 학사졸업, 연구기자재 투입지표는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허등록, 벤처기업 수는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전은 대덕연구단지 입주로 인하여 혁신자원이 집적되어 활발한 혁신활동을 통해 산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16> 16개 시·도 혁신자원 비교

구분	1인당 GDP (백만)	연구비 (억원)	연구원 (명*)	특허 등록	SCI 논문	R&D 예산 (억)	석·박사*	학사 졸업*	벤처기업수*	연구기자재 (백만)
서울	17.1	35.8	51.4	13.5	7.0	10.8	10.9	38.4	3.3	828
부산	11.6	9.0	19.8	1.4	2.2	3.6	4.9	54.8	1.0	531
대구	9.6	9.1	18.9	1.9	2.2	4.3	3.7	41.2	1.2	319
인천	13.3	22.4	23.5	2.7	2.1	4.6	2.5	33.1	1.6	478

광주	11.1	18.1	29.7	5.3	5.4	9.7	6.6	72.9	1.4	1380
대전	12.1	166.0	128	9.4	17.4	104	9.2	75.8	2.7	8782
울산	31.9	29.5	29.2	1.6	0.8	1.5	1.7	32.0	0.5	492
경기	13.7	78.7	59.4	8.3	1.7	8.0	1.1	41.1	2.4	458
강원	13.5	7.5	21.0	1.0	2.3	4.1	3.7	61.1	0.5	652
충북	15.4	21.2	30.1	2.5	1.6	3.3	4.3	67.9	1.4	613
충남	20.2	27.2	37.6	3.6	1.8	7.4	2.4	62.4	1.2	795
전북	11.4	10.9	21.0	1.3	2.7	3.5	3.7	56.7	0.7	719
전남	17.1	8.9	11.0	1.0	0.5	1.7	1.6	45.7	0.7	371
경북	18.1	31.7	35.9	5.9	3.7	4.0	4.6	68.9	1.1	1181
경남	15.4	27.4	26.2	1.8	1.2	6.4	2.9	43.6	1.1	811
제주	12.3	5.5	8.9	0.8	1.3	4.1	2.4	37.9	0.6	527
평균	15.2	31.8	34.5	3.9	3.4	11.3	4.1	52.1	1.3	1184

자료 : 대전발전 연구원, 대전경제발전 중장기 계획, 2006

주 : *표시는 인구 1만명수를 나타냄

(4) 대덕 R&D특구의 한계점¹⁰⁾

① 연구 성과의 사업성 측면 부족

대덕 R&D특구에 공공연구기관과 연구자원의 집적, 수도권을 제외하고 국내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실용화·응용연구보다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어 연구 성과의 사업화율이 낮다. 실리콘 밸리와 대덕의 사업화(2004년 기준)를 비교해 보면, 실리콘밸리는 7,000여개의 벤처수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대덕은 824여개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는 벤처캐피탈 규모가 60조원에 달하는 반면 대덕은 45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기술이전 관련 투자는 전체 R&D 투자액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산업자원부의 공공기술이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이전 전담인력은 3.2명이나 영국 6.0명, 캐나다 7.7명, 미국의 7.8명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며 기술이전율도 영국 29.0%, 미국 29.1%, 캐나다 34.9%에 비해 20.8%로 낮은

10)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와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특구종합육성계획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문제점을 논의하기로 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¹¹⁾

설사 기술사업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많은 문제점¹²⁾이 드러나고 있다.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방식에는 출연연이 민간 기업에 기술 이전하는 기술실시 계약, 연구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나 실험실기업이 창업하는 연구원창업, 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 전문경영인과 함께 참여하여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꾀하는 연구소 기업이 있다. 현재 정부와 대부분의 출연연들은 연구소기업에 기술출자를 하고 있는 시점에 일부 연구소 기업은 민간이 아닌 연구자가 연구소의 출자를 받아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 있다. 경영능력이 부족하고 자금여력이 없는 연구자가 기업을 운영함에 의해 연구원창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만든 연구소기업이 무의미해졌다. 뿐만 아니라 연구소기업은 출연연이 기업의 모체로 직접 기술사업화에 관여하는 것인데 기술이전 이후에 출연연의 관심이 지속되지 않는 등의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② 벤처생태계 부재

대전지역에는 정착된 벤처캐피탈, 투융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은행, 정책자금기관의 부족이 벤처기업의 사업화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기술은 뛰어난 국내 벤처기업을 법률, 회계, 경영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도 없다. 이러한 요인들로 하여금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미흡하게 만들고 연구 성과를 핵심 사업으로 전환가능한 선도기업의 입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③ 지역 내 산업의 네트워킹 부족

지역 내 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 타 지역 대기업과의 연계,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 등 시장 확대 전략이 미흡하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활동에 있어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않아 연구 성과의 확산과 실용화가 낮은 수준이다.

11) 이상용, [대덕연구개발특구활성화를 위한 혁신지원기관의 역할], 대전지역 혁신클러스터의 고도화, 2006

12) 대덕넷 기사 중 「중간점검, 연구소기업들 “시작부터 잘못됐다.”」 2008.8.18 기사발췌

④ 대덕특구 내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 R&D센터 유치 저조

대덕연구단지에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최고의 기술보유 및 연구역량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이나 외국R&D센터의 유치가 저조한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가 부진한 것은 기존의 대덕연구단지가 연구 환경 및 연구기관의 집적화에만 주력하여 실제 거주민을 위한 정주환경을 열악하여 대덕으로 유인할 만한 매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해외 연구주체들과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수준이 취약하며 개별연구기관들과 유관 단체들의 글로벌화 추진의지 및 글로벌 경영능력이 부족한 점 등이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 R&D센터 유치를 저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음의 표는 대덕특구와 세계적 클러스터를 비교한 것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하며 세계 주요혁신클러스터는 강력한 추진주체와 협력네트워크의 발달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7> 국내외 혁신클러스터 비교

	대덕 연구단지 (한국)	실리콘 벨리 (미국)	중관촌 (중국)	신죽 (대만)	쓰쿠바 (일본)	시스타 (스웨덴)	울루 (핀란드)	소피아 앙띠폴리스 (프랑스)
시작	73년	50년	88년	70년 초	76년	76년	59년	70년
면적	27.8km ²	3885km ²	100km ²	6.3km ²	26.9km ²	2km ²	0.33km ²	44km ²
위치	서울남쪽 150km 지점	샌스란 시스코 남쪽 40km 지점	북경시 서북부 시가지지역	타이페이 남쪽 70km지점	동경 북동쪽 50km지점	스톡홀름 북서쪽 20km	헬싱키 500km지점 북핀란드 중심	프랑스남부 칸느부근 앙띠브르근방
산업	IT	ALL	IT	IT	BT	IT	IT	IT
정책	-쓰쿠바 연구학원 도시벤처 마킹 -국토균형, 발전 도모	-대학, 연구소 지역 단체 비전 제시	-실리콘 벨리 벤치 마킹 -대학교 연구소 주도형 -다국적 기업유치	-실리콘 벨리 벤치 마킹 -화교에게 주거및 중국계미 국인 학교제공	-연구, 교육중심지 육성, 동경등수도권내기성 시가지인구집중 완화목적	-대학, 연구소 주도형 -해외유명 다국적기업	-핵심기술 민간기업 과 공동개발 -노키아 등 기업 상용화, 생산·아웃소싱	-파리지역 과 개발격차 해소위해 지방정부가 조성
중심요소	-출연(연) 기업부설연구기관, 대학, 벤처기업	-대학, 연구소, 하이테크, 대기업, 벤처기업 -기자재	-대학, 연구소, 여기사스핀 오프된벤처기업	-정부, 화교, CIE(실리콘벨리내중국인 전문가조	-대학, 출연(연), 민간연구소 -중앙&지방정부	-대기업, IT 대학, 다국적기업, 연구소	-울루대학, 국가기술 연구센터, 다국적기업, 전문화된관리주	-다국적기업 유럽본부, 중소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업체, 전문 서비스 업체		직)			체	
특징	-연구개발주도 혁신 클러스터 -기업지원 서비스 부족 -다국적 기업 유치 사례 전무	-혁신적, 개방적 조직 문화 -창업/성장 지원 선순환 벤처생태계 -우수인력 확보 용이	-대학 및 연구소가 적극적 역할, 해외 화교 기술자 금력 네트워크 강함 -해외기업/연구센터 유치	-70년대 인재 외국과 견통해 실리 콘벨리시 정보와 첨단 기술 도입	-지역내 연구자 정착 유도 실패 -지역인구 및 산업 규모 취약 -산학연협 연계 미흡	-다수 해외 기업/연구센터 유치 -지자체 중심의 유기적 산학협동 시스템	-정부 집중 지원 -전문화 된 관리 운영 주체 -세계 최고 수준 공과대학	-자연친화적 테크노폴리스 건설 주력 -미테랑 정부 지방분권화 정책 후 투자비확대 세계 과학 단지로 부상

자료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일본과 대만의 클러스터를 비교한 표를 보면, 클러스터 내 기업체 수는 대덕 연구단지 387개로 가장 많지만 외국 기업체 수는 일본의 쓰쿠바 연구학원도시에 186개, 대만의 신죽 과학 산업단지에 289개에 비해 대덕연구단지는 한 개도 없어 글로벌화가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기관도 대덕은 외국 연구소의 수가 한 개도 없으며 총 연구 인력에 외국 연구원 수가 0.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 연구소의 유치를 확대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외국 연구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18〉 주요 경쟁 클러스터와 대의 글로벌화 비교

구분	비교항목	대덕연구단지	쓰쿠바연구학원 도시(일본)	신죽과학산업 단지(대만)
기업체	총 기업체 수	387개	350개	322개
	외국 기업체 수	없음	32개(9%)	50개(16%)
연구기관	총 연구기관 수	55개	186개	289개
	외국 연구소 수	없음	1개(0.5%)	48개(17%)
연구인력	총 연구인력 수	11,500개	13,400명	25,000개
	외국연구원수	95명(0.8%)	3,500명(26%)	3,200명(13%)

자료 : 대전발전연구원(2006), 대전경제중장기 발전계획(안)

2) 대전 산업 단지

(1) 대전 산업 단지 일반현황

대전 산업단지는 대전 제조업 활동의 중심축을 잇는 산업단지로서 대덕구 문평동, 목상동, 신일동, 신대동 일대에 1990년대에 걸쳐 개발·입주하여 3,134천㎡의 공단면적에 제 3산업단지(아래 그림의 A, B, C부분)와 유성공동화산업단지를 포함한 D, 한밭 공동화 사업 단지를 포함한 J단지를 포함한 제 4산업단지(D, E, F, G, H, I, J)가 구성되어 있다.

〈그림 3-3〉 산업단지 규모



자료 : 대전 제3·4산업단지관리공단(<http://www.dicox.or.kr/>)

2007년 4/4분기 중 5개의 산업단지 중 524개 업체가 입주 중이며 이중 492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93.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생산액은 전 분기에 비해 10.6%감소하였으며 수출은 전 분기 보다 21.2%증가하여 6억6천9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대전 제 3·4산업단지에는 327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312개의 업체가 가동 중이다. 제 3산업단지의 생산액은 2007년 4/4분기 기준 전분기보다 9.8%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 23.8% 증가하여 1억 5천6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제 4산업단지의 생산액은 2007년 4/4분기 기준 전분기보다 14.6%증가하였고 수출액은 10.8%가 증가하여 3억 5천9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3-19> 산업단지별 생산실적 현황(2007.4/4)

	공 장 가 동			생 산(십억원)			수 출(백만달러)		
	입주	가동	가동률 (%)	2007. 3/4	2007. 4/4	증감률 (%)	2007. 3/4	2007. 4/4	증감률 (%)
계	524	492	93.9	2,014	1,801	-10.6	552	669	21.2
1산·단	93	83	89.2	102	120	17.6	25	38	52.0
2산·단	104	97	93.3	348	339	-2.6	75	109	45.3
3산·단	115	107	93.0	438	481	9.8	126	156	23.8
4산·단	212	205	96.7	711	815	14.6	324	359	10.8
DTV	322	160	49.7	415	46	-88.9	2	7	250.0

자료 : 대전발전연구원, 월간대전경제, 2008.4

주 : DTV의 입주업체 중 생산활동 준비중인 업체가 많아 평균가동을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음

산업단지별 업종별 분포도는 전기전자 업종이 337개(39.8%) 업체로 가장 많으며 조립금속이 243개(28.7%), 석유화학 89개(10.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기전자는 대덕 테크노 벨리에 273개로 집중되어 있으며 대전 제 3·4산업단지에는 조립금속 업종이 152개 (46.5%)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석유화학이 55개(16.8%), 전기전자 48개(14.7%)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0> 산업단지별 업종 구성 현황(2007.4/4)

구분	음식 료품	섬유 의류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 금속	제1차 금속	조립 금속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	----------	----------	----------	----------	---------	-----------	----------	----------	----------	----

계	22	18	24	89	3	11	243	337	11	88
1산·단	5	7	5	17	2	5	33	8	0	11
2산·단	3	5	4	17	1	5	42	8	2	17
3산·단	6	2	8	25	0	0	46	17	0	11
4산·단	8	4	7	30	0	1	106	31	0	25
계*(%)	14 (4.3)	6 (1.8)	15 (4.6)	55 (16.8)	0 (0.0)	1 (0.3)	152 (46.5)	48 (14.7)	0 (0.0)	36 (11.0)
DTV	0	0	0	0	0	0	16	273	9	24

자료 : 대전발전연구원, 월간대전경제, 2008.4

주 : *표시는 대전 제 3·4산업단지를 더한 값.

(2) 대덕산업단지의 기술경쟁력

본 연구는 2006년 대전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가 실시한 「대전 제 3·4산업단지 기술력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전 3·4산업단지의 기술경쟁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대전 3·4산업단지의 기술협력 증진 및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2006년 2월말 가동 중에 있는 25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미 응답한 67개 업체를 제외한 189개의 유효 응답 업체의 설문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① 업체의 운영실태

대전 3·4산업단지 입지 만족도에 대해서 응답 업체 수 187업체 중 매우만족이 11개 업체 (5.9%), 만족이 83개 업체(44.4%)로 나타났으며 보통이 86개 업체 (46.0%)로 보통이상 만족도가 96.3%로 대다수의 업체들의 입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은 6개 업체(3.2%), 매우 불만족이 1개 업체(0.5%)로 분석되었다.

<표 3-21> 대전 3·4산업단지 입지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응답업체수	11	83	86	6	1	187
비율(%)	5.9	44.4	46.0	3.2	0.5	100.0

입주업체의 기업경영 및 운영성과 만족도에 대해서 매우 만족이 5개 업체 2.7%,

만족이 61개 32.6%, 보통이 106개 56.7%로 보통이상 만족도가 92.0%로 분석되어 전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만족은 12개 업체 6.4%, 매우 불만족은 3개 1.6%를 차지하였다.

<표 3-22> 기업경영 및 운영성과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응답업체수	5	61	106	12	3	187
비율(%)	2.7	32.6	56.7	6.4	1.6	100.0

대전 3·4산업단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기반의 부족과 정부지원정책의 부족을 응답한 기업이 47개 업체, 26.9%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공해업체들로 인한 환경문제 31개 업체, 17.7%, 업체의 영세성 28개 업체, 16.0%, 기술력의 부족 18개 업체, 10.3%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23> 대전3·4산업단지의 문제점 인식

구분	응답업체수	비율(%)
산업단지기반시설의 부족	47	26.9
정부지원정책의 부족	47	26.9
공해업체들로 인한 환경문제	31	17.7
업체의 영세성	28	16.0
기술력의 부족	18	10.3
기타	4	2.3
계	175	100.0

② 기술개발 관련 업체 현황

대전 3·4산업단지의 입주업체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 보유실태를 보면 전체 180개의 업체 수 중 지적재산권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 수는 64개로 35.6%를 차지하며 1건 이상 3건 이하라고 응답한 업체 수는 35%, 4건 이상 6건 이상 보유한 업체는 14.4%에 해당되며 10건 이상인 업체가 23개로 1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 보유

지적재산권 수	응답업체 수	비율(%)
없음	64	35.6
1-3건	63	35.0
4-6건	26	14.4
7-9건	4	2.2
10건이상	23	12.8
계	180	100.0

연구개발 인력 수는 3인 이하가 34.9%를 차지하며 전체 응답 업체 가운데 10인 미만인 업체가 52.8%를 넘어 과반 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으로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켜 기업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우수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표 3-25> 연구개발 인력 수

구분	3인 이하	4-9인	10-19인	20인 이상	무응답	계
응답업체수	66	34	10	9	70	189
비율(%)	34.9	17.9	5.2	4.7	37.0	100.0

③ 기술 협력

대전3·4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은 기술협력 증진에 있어서 기업의 자금 부족 문제를 43.9%로 응답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개발상품의 불확실성 24.3%, 기술협력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정보부족 17.3% 순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6> 기술협력 증진에 있어서 문제점

구분	자금부족	정보부족	미래 불확실성	협력연구 인력부족	기타	계
응답업체수	76	30	42	22	3	173
비율(%)	43.9	17.3	24.3	12.7	1.7	100.0

따라서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에게 기술협력을 제공할 정부와 기술개발 협력 기관들은 자금 지원 확충과 기술협력 관련 기관들의 각종 분야별 신속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할 것이며 기업 내부적으로도 자사제품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며 우수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한다.

제2절 대전지역 국제통상 현황

1. 대전지역 국제통상 현황

1) 대전지역 수출입 동향

대전 지역 2008년 1/4분기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5.4% 증가하여 7억 16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6억 99백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6백66만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표 3-27〉 대전지역 수출입 추이

(단위 : 천불, %)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0	837,138	-	1,258,996	-	-421,857
2001	818,479	-2.2	1,259,626	0.1	-441,147
2002	933,686	14.1	1,425,847	13.2	-492,161
2003	1,330,358	42.5	1,609,315	12.9	-278,957
2004	1,837,757	38.1	1,991,429	23.7	-153,673
2005	2,161,353	17.6	2,291,302	15.1	-129,949
2006	2,395,862	10.9	2,390,243	4.3	5,620
2007	2,580,828	7.7	2,812,506	17.7	-231,678
04	212,319	22.1	227,090	14.6	-14,772
05	209,202	-1.9	245,459	31.5	-36,257
06	244,830	-4.2	221,259	3.8	23,571
07	211,169	22.2	220,820	19.7	-9,651
08	226,779	2.9	264,145	31.6	-37,367
09	198,618	-7.9	198,220	-8.6	399
10	241,884	39.5	253,087	21.2	-11,203
11	231,858	10.6	271,742	29.9	-39,884
12	233,294	2.0	233,550	3.9	-257
2008	715,645	25.4	698,990	3.2	16,655
01	243,163	34.2	248,203	3.3	-5,255
02	211,670	31.1	210,876	-2.9	789
03	260,812	14.3	239,898	9.2	20,914

자료 : 한국무역통계(www.kita.net)

주 : 순위는 2008년 1~3월 실적 기준, MTI 4단위 기준, 증감율은 전년 동기대비

산업별로는 2008년 1/4분기 공산품이 전년 동기대비 24.7% 증가하여 6백26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공산품 중에 IT제품이 46.6%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공업제품은 -6.6% 감소하였다.

2008년 1/4분기 대전지역 수입의 17.2%를 차지하는 소비재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5.7% 증가하여 투자가 활발했으며, 전체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3.2%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8년 1/4분기 대전 지역의 수입구조면에서 살펴보면 수출용의 수입이 19.0% 감소하고, 내수용은 7.3% 증가하였다.

<표 3-28> 산업별 수출 현황

(단위 : 천불, %)

산업별	2008년 3월			2008년 1~3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총수출	260,812	14.3	100.0	715,645	25.4	100.0
1차산품	49,780	-	19.1	90,073	30.0	12.6
공산품	211,032	18.3	80.9	625,572	24.7	87.4
- 경공업제품	23,176	-1.0	8.9	64,845	-6.6	9.1
- 중화학제품	187,856	21.2	72.0	560,726	29.7	78.4
- IT제품	47,250	58.5	18.1	133,503	46.6	18.7
- 기타	140,606	12.3	53.9	427,223	25.2	59.7

자료 : 한국무역통계(www.kita.net)

주 : 순위는 2008년 1~3월 실적 기준, MTI 4단위 기준, 증감율은 전년 동기대비

<표 3-29> 산업별 수입현황

(단위 : 천불, %)

성질별	2008년 3월			2008년 1~3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총수입	239,898	9.2	100.0	698,990	3.2	100.0
(수출용)	29,348	-19.6	12.2	84,249	-19.0	12.1
(내수용)	210,550	14.9	87.8	614,741	7.3	87.9
원자재	106,568	16.5	44.4	307,721	17.4	44.0
자본재	86,009	-7.4	35.9	270,026	-16.5	38.6
소비재	47,242	33.4	19.7	120,505	35.7	17.2
기타	80	1,007.10	0.0	739	-74.6	0.1

자료 : 한국무역통계(www.kita.net)

주 : 순위는 2008년 1~3월 실적 기준, MTI 4단위 기준, 증감율은 전년 동기대비

대전지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연초류, 축전지, 인쇄용지, 인쇄회로, 냉방기 등이 있으며 10대 수출품목들은 전체 비중의 70%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연초류는 2008년 3월 수출비중이 16.8%로 가장 높았지만 2008년 1/4분기에는 축전지가 전년 동기대비 78.8% 증가하면서 14.3%라는 타 수출품목 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8년 1/4 분기 중 개별소자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10대 수출품목이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8년 1/4 분기 총 수출액은 전년 동기 비 24.2% 증가하여 7백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대전지역 2008년 1/4분기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6백 9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대전의 10대 수입 품목은 펄프, 연초류, 자동차부품, 농약, 기타기계부품 등이 있으며 이 10대 수입 품목은 40%이상의 전체 중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30〉 대전 10대 수출입 품목 현황

(단위 : 천불, %)

품목명	2008년 1~3월			품목명	2008년 1~3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총 수출	709,295	24.2	100	총 수입	698,977	3.2	100
연초류	69,084	11.1	9.7	펄프	67,925	4.0	9.7
축전지	101,172	78.8	14.3	연초류	50,769	96.9	7.3
인쇄용지	89,497	15.0	12.6	자동차부품	29,450	25.1	4.2
인쇄회로	59,825	11,077.90	8.4	농약	29,001	-6.7	4.1
냉방기	59,607	4.7	8.4	기타기계류 부품	26,761	-8.0	3.8
개별소자	41,104	-2.8	5.8	중후판	20,381	10,430.90	2.9
				연괴 및 스크랩	19,145	70.0	2.7
화장지	31,477	87	4.4	기타정밀	17,149	82.0	2.5
기타정밀 화학원료	16,625	5,837.20	2.3				
VCR	16,263	11.6	2.3	집적회로반 도체	15,678	-15.9	2.2
안경렌즈	14,856	27.5	2.1	기타기계류	14,240	27.4	2.0
합 계	499,510	-	70.4	합 계	290,499	-	41.6

자료 : 한국무역통계(www.kita.net)

주 : 순위는 2008년 1~3월 실적 기준, MTI 4단위 기준, 증감율은 전년 동기대비

지역별 수출국가 현황을 보면 국가별로 2008년 1/4분기 중국이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하여 1백26만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17.7%)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3.1% 증가하였으며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부터는 -10.3%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아시아로의 수출이 40% 이상의 비중을 나타내며 중동, 유럽, 북미 등 수출이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표 3-31> 지역별 수출국가 현황

(단위 : 천불, %)

구분	2008년 3월			2008년 1~3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국가별	중국	40,916	50.9	15.7	126,417	47.0	17.7
	미국	32,527	-6.4	12.5	94,469	0.2	13.2
	일본	19,704	15.8	7.6	58,063	20.4	8.1
	러시아연방	9,155	-19.6	3.5	31,414	53.1	4.4
	아랍에미리트 연합	16,703	-28.6	6.4	24,957	-10.3	3.5
소 계	119,005	-	45.6	335,320	-	46.9	
권역별	아시아	114,843	21.6	44.0	326,939	24.9	45.7
	중동	44,088	23.4	16.9	88,593	52.6	12.4
	유럽	44,729	-0.9	17.1	136,840	28.9	19.1
	북미	36,275	-2.4	13.9	106,341	3.9	14.9
소 계	239,935	-	92.0	658,713	-	92.0	
총 수출	260,812	14.3	100.0	715,645	25.4	100.0	

자료 : 한국무역통계(www.kita.net)

주 : 순위는 2008년 1~3월 실적 기준, MTI 4단위 기준, 증감율은 전년 동기대비

일본으로부터 수입은 -5.4% 감소하였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9.5% 증가하였다. 일본, 중국, 미국으로의 수입의 비중이 각 10% 이상이며 독일, 캐나다까지의 5개국으로부터 수입의 비중이 60%에 달한다.

<표 3-32> 지역별 수입국가 현황

(단위 : 천불, %)

구분	2008년 3월			2008년 1~3월			
	금액	증감율	비중	금액	증감율	비중	
국가별	일본	37,023	-10.3	15.4	112,506	-5.4	16.1
	중국	40,863	47.9	17.0	111,554	29.5	16.0
	미국	32,559	-11.4	13.6	102,172	-24.6	14.6
	독일	15,563	-37.6	6.5	66,319	-18.3	9.5
	캐나다	9,897	5.8	4.1	28,042	25.8	4.0
소계	135,905	-	56.7	420,593	-	60.2	
권역별	아시아	111,092	12.1	46.3	323,227	11.8	46.2
	중동	2,101	-40.2	0.9	6,079	-35.5	0.9
	유럽	54,331	-9.6	22.6	173,250	-8.4	24.8
	북미	42,456	-7.9	17.7	130,213	-17.5	18.6
소계	209,980	-	87.5	632,769	-	90.5	
총수입	239,898	9.2	100.0	698,990	3.2	100.0	

자료 : 한국무역통계(www.kita.net)

주 : 순위는 2008년 1~3월 실적 기준, MTI 4단위 기준, 증감율은 전년 동기대비

2) 대전 지역 벤처 수출입 동향

벤처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2008년 1/4분기 중 벤처 수출 누계액은 32억 7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8%가 증가하였으며 총 수출 누계액 995억 5백만 달러의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해당한다. 대전지역의 벤처 수출 누계액은 4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7%가 감소되었다. 충남의 벤처기업의 2008년 1/4분기 수출실적은 1억 3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비 5.0%가 증가한 수준이다.

<표 3-33> 대전충남 벤처수출 현황

(단위 : 천달러, %)

구분	1/4분기 - 1월~3월 누계기준			3월 - 당월기준			
	2007년	2008년	증감율	2007년	2008년	증감율	
전국	총수출	84,708,684	99,504,398	17.5	30,387,625	36,045,818	18.6
	벤처수출	2,590,020	3,207,033	23.8	1,011,718	1,260,111	24.6

대전	총수출	570,877	715,645	25.4	228,174	260,812	14.3
	벤처수출	58,250	48,547	-16.7	18,361	16,964	-7.6
충남	총수출	10,576,047	10,815,175	2.3	3,813,196	3,738,409	-2.0
	벤처수출	128,424	134,860	5.0	51,228	52,704	2.9
대전 충남	총수출	11,146,924	11,530,820	3.4	4,041,370	3,999,221	-1.0
	벤처수출	186,674	183,407	-1.75	69,589	69,668	0.1

자료 :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2008년 1/4분기 벤처수출동향.

2008년 1/4분기 대전·충남 벤처수출실적 누계액은 1억 83백만 달러로 전 년 동기대비 1.75%감소하였다. 2008년 1/4분기 중 전국 벤처수출에 대한 점유율은 5.7%이며 대전충남의 총수출 115억 30백만 달러에 대한 점유율은 1.6%를 기록하였다. 대전충남의 벤처수출 연도별 현황을 보면, 대전지역은 2000년 이후 벤처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에 101.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0.2%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34> 대전충남 벤처수출 연도별 현황

(단위 : 천달러, %)

구분	대전		충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0년	30,824	-	141,788	-
2001년	36,119	17.2	137,011	-3.4
2002년	72,666	101.2	147,905	8.0
2003년	86,447	19.0	208,017	40.6
2004년	130,249	50.7	276,073	32.7
2005년	150,655	15.7	362,911	31.5
2006년	241,685	60.4	533,432	47.0
2007년	242,207	0.2	516,615	-3.2
2008년 1월~3월(누계)	48,547	-16.7	134,860	5.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2008년 1/4분기 벤처수출동향.

2. 현행 국제통상 지원정책

1) 대전지역 수출지원 정책

① 대덕특구 유망상품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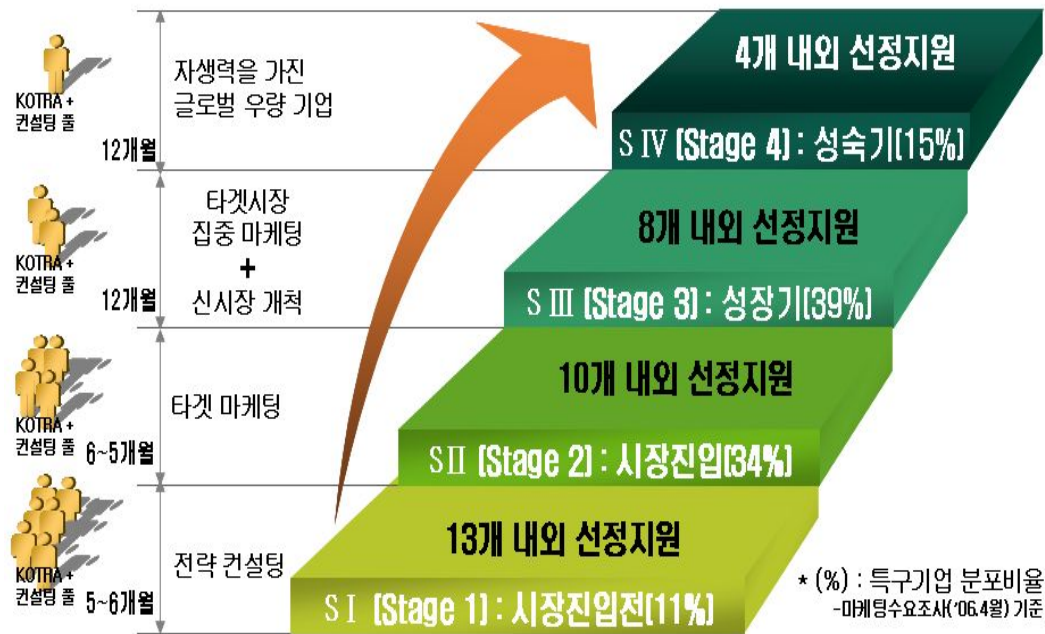
대덕 특구 중·소 벤처기업으로 해외 마케팅 및 해외 판로 개척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목적은 대덕 R&D특구를 중심으로 상품화된 유망제품을 발굴하여 3년간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해외마케팅을 통하여 특구 내 기술기업의 수출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사업내용은 대덕특구 내 수출유망 상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시장진출 전략컨설팅, 맞춤형 마케팅 로드맵 수립, 집중 마케팅, 사후관리 등 시장진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통합적인 해외마케팅을 1년 이상 단계적,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신규시장개척의 가시화를 도모한다. 위 사업은 4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I 단계는 시장진입 전단계로 13개 내외를 선정하여 해외마케팅 전략을 컨설팅하고 로드맵을 제시한다. II 단계는 시장진입 단계로 10개 내외의 기업을 대상으로 타깃 시장 마케팅을 한다. III 단계는 성장기 단계로 8개 내외 선정하여 타깃 시장을 집중 마케팅하고 동시에 신 시장을 개척한다. 마지막 IV 단계는 성숙기 단계로 4개 내외로 선정하여 장기로드맵을 마련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7년 지원실적은 15개사를 지원하여 2,900만 불(한화 약 270억 원 규모)해외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출실적은 1,660만 불(한화154억 원 규모)을 달성하였다. 또한 북미(미국, 캐나다), 중남미(브라질 등 3개국), 아시아(일본 등 6개국), 중동(UAE 등 5개국), 아프리카(나이지리아, 모로코), 서유럽(영국 등 7개국), 동유럽(CIS연합 등 4개국)을 포함한 30개 국가 74개 신규 바이어를 발굴했다. 대덕 특구 내 원테크놀로지는 미국 대형 의료기기 회사와 1,260만 불의 대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에는 화학소재 제조업체인 라이온캠텍(대표 박희원, www.lion-chemtech.co.kr)이 미국 A사와 1,000만 달러 규모의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림 3-4> 유망상품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체계도

'08년 유망상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체계도



자료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②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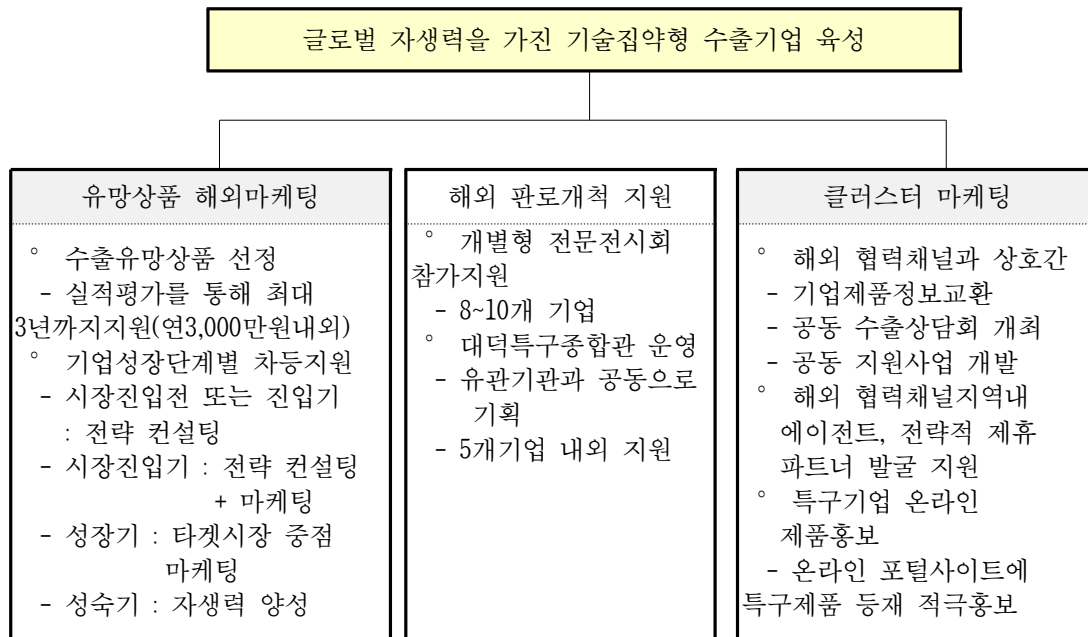
전문 전시회 지원 사업은 통합형과 개별형으로 구분되는데 통합형 전문전시회는 9개사를 지원한 ‘일본 인터룸 전시회’ 및 8개 사를 지원한 ‘중국 상하이 국제 박람회’가 있다. 통합형 전문전시회 지원으로 인해 73만 불(한화 약 7억 원 규모)의 해외 수출계약 체결 및 실적을 거두었다. 샘플 납품 등 신규거래 확보 차원의 계약으로 향후 지속적인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개별형 전문전시회는 8개 업체, 10개 전시회를 지원하였으며 280만 불(한화 약 26억 원 규모)의 해외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2007년에는 총 2회에 걸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는데 11월에 실시한 프랑스 브르타뉴 지역 기업 6개사를 초청하여 ICT분야 10개 특구기업과 일대일 수출상담

회를 실시하였다. 12월에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일본, 중국, 태국, 헝가리, 말레이시아, 대만 등 8개국, 40여개 사를 초청하여 특구기업 46개사를 포함해 총 78개 국내 기업이 일대일 수출 상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73만 불(한화 약 35억원 규모의 해외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35〉 '08년 사업추진 계획



자료: 대덕특구본부

④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사업'

지원대상은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7년도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업체여야 한다. 단 비제조업을 겸업하는 제조업체는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23개 지원기관의 자금 및 보증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우대지원을 받게 된다.

⑤ 맞춤형 무역현장지원단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맞춤형 무역현장지원단'은 2007년 4월에 설립됐으며 종합상사나 무역상사, 주요 수출기업에서 15년 이상 무역실무 경험을 갖춘 무역컨설턴트로 이뤄졌다. 이들은 전국 11개 권역에서 활동하면서 해외거래처 발굴·계약 체결·무역클레임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전·충남지역 컨설턴트는 강대훈 화동무역 대표로 약 40여개의 기업이 그를 통해 무역현장지원서비스를 받았다. 지원단은 1년간 750개사에 1043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했으며 이를 통해 적게는 1600만 달러의 샘플 수출부터 많게는 2500만 달러의 수출계약까지 총 87건의 6700만 달러의 수출성과를 거두게 됐다.

⑥ 중소기업 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의 '대전·충남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센터'

중소기업 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최근 원자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모색코자 '대전·충남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판로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행정지원, 구매담당자의 현장애로사항을 파악 및 개선, 공공구매제도 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의 상호 정보교류 활동 등을 지원하며 지역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⑦ '2007 상하이(上海) 국제 선물용품 전시회'

충남상해무역관은 대전남경사무소와 공동으로 '2007 상하이(上海) 국제 선물용품 전시회' 참가해 125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5월 충남·대전 간 해외사무소 공동 활용 협약체결 후 최초로 공동으로 실시한 전시회로 충남상해무역관 주관으로 추진됐다. 충남도 4개 업체와 대전 2개 업체 등 총 6개 업체가 참가해 충남도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홍삼제품, 손톱 깎기, 압력밥솥 등을 대전시는 공예품, 지압기를 전시해 180개사의 중국 바이어들과 계약 상담을 했으며 총 185만 달러의 상담이 이뤄졌다.

2)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정책

대전시는 대덕 R&D 특구 지정, 행정중심 복합도시 조성, 과학기술도시 이미지, 외국인 학교 입지 등 타 지역에 비해 투자가 유리한 환경이나 외국투자자들이 투자결정시 크게 작용되는 공항·항만의 접근성이 낮다. 게다가 대전시에는 대기업 및 선도 산업이 부재하며, 부품·소재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외국기업은 관련 산업이 발달한 수도권에 투자하기를 선호하고 있다. 대전시의 외국인 투자 유치의 부진원인으로는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 부재뿐만 아니라 2006년의 예산에는 투자유치활동 예산이 미반영 되어 유치활동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외투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추가 및 증액투자 현황이 미흡하다. 이에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대전광역시가 2007년 실시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투자유치 업무 추진기반 조성

「잠재투자자 리스트 발굴 및 DB 구축」을 위해 KOTRA, EUCCK 등 투자유치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IT·BT, 첨단부품소재, R&D 센터 등 의 대전시 전략 유치 분야에 국내외 잠재투자자 리스트를 발굴하고 관내 연구소, 벤처기업, 대학 등과 교류관계가 있는 외국기업을 조사하여 업체 현황, 투자가 관심사항 등 DB 구축 한다. 수시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가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며 투자 홍보물을 발송하는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 협의회」는 회계·금융·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을 계획하고 외투기업 지원 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외국인투자유치 자문위원 위촉」은 현지국가 사정에 밝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교포 기업인, 특정국가의 경제단체·기업인과 유대관계가 있는 인사를 투자유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역량을 활용하고자 한다.

② 해외투자유치 활동

한국의 BT·제약분야 투자환경 홍보부스 운영하고 대한투자 희망 기업 및 벤처 캐피탈과의 개별상담을 위해 2007년 5월 중 「바이오 2007 컨퍼런스 연계 IR행사

투자유치단 파견」 하였으며 2007년 9월 중 EU국가 중 IT, BT 산업이 발달한 국가, 핀란드(헬싱키), 스웨덴(스톡홀름), 독일(프랑크푸르트), 영국(런던)을 선정하여 KOTRA 현지무역관 발굴 잠재투자기업·연구소를 방문하는 「대덕특구 IT·BT 공동 투자유치단 파견」 을 실시하였다.

③ 국내투자유치 활동

2007년 6월 중 대전시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시정홍보, 기업 관련 애로사항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 「관내 외국인투자기업 CEO 초청 투자설명회」 를 갖고 2007년 10월중 국내 일본기업인들의 모임인 서울 재팬 클럽 회원 100명 내외를 초청하여 대전 시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시정 홍보하는 시간을 보냈다.

④ 관내 외투기업 사후관리 강화

대전시는 외투기업 지원전담관(Foreign Invested Company Assistant)제를 운영한다. 100만 불 이상 제조업체 20개 업체를 선정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지정업체 방문·상담하며 기업관련 애로 또는 건의사항을 청취 해당부서, 관련기관에 처리 협조요청 또는 Invest KOREA 옴부즈맨에 제도개선 건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⑤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

투자유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대전 시 일반현황 및 경제지표, 투자환경, 관내 주요 외투기업 소개 및 성공사례,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정책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한다. 한국 및 투자지역에 관한 투자정보를 수집 시 市 홈페이지의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홍보 관련 市 홈페이지를 Invest KOREA에 위탁 관리하여 외국인 에디터가 내용을 수시 업데이트,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⑥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전문성 제고

투자유치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KOTRA 아카데미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해설, 효과적인 IR기법 등을 교육하는 투자유치 전문 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시·구 투자유치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담당 공무원 Workshop 을 개최한다.

⑦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07년 상반기 중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해 시설보조금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기준 구체화 등 조례를 개정하고 각종 보조금 지급절차 및 교육훈련기관 범위 규정 등의 규칙을 제정하는 관련 자치법규 정비하는 시간을 갖는다. 대전국제학교를 대덕구 오정동에서 대덕테크노벨리 내 외국인학교 부지로 신축 이전하는 등 외국인의 투자를 유발하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제 4 장

지역산업의 글로벌화 지원전략

제1절 지역기업 국제통상 설문조사 분석

제2절 지역산업 글로벌화 방안

제4장 지역산업의 글로벌화 지원전략

제1절 지역기업 국제통상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본 설문조사는 “지역기업 국제통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이라는 주제로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과 경기도의 현재 수출업무를 하는 기업인을 선정하여 애로사항과 수출지원정책의 활용도를 파악하고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대전, 충남, 충북 수도권 및 기타지역기업 각 25개 업체를 표본으로 총 10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08년 8월 7일에서 14일까지 책임연구원 및 연구조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에 의한 1:1 개별면접을 통하여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였다.

주요 설문내용은 주요 수출거래지역, 수출업무의 내부적·외부적 애로사항, 수출전망, 수출지원정책의 인지도 및 활용도, 향후 지원받고자하는 프로그램,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국제통상 활성화 기여도, 국제통상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 지자체가 강화해야 할 사항 등이다. 설문조사 및 분석절차는 윈도우용 SPSS 14.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문항별 빈도분석과 백분율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일부 문항에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응답 업체의 일반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 수도권 각 25개 업체의 사업영위연도는 10년 미만의 업체가 42개로 가장 많았으며 5년 미만의 업체가 25개 업체, 20년 미만이 24개 업체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사업영위연도

	1년이하	5년미만	10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	합계
응답업체수	1	25	42	24	8	100
비율(%)	1.0	25.0	42.0	24.0	8.0	100

100개 업체 중 종업원 수는 30명 미만의 업체가 32개로 가장 많았고 연매출액은 30억 원 이상의 업체가 58개로 가장 많았으며 직종은 제조업(46개 사), IT산업(23개 사), 서비스업(21개 사)순으로 나타났다.

<표 4-2> 응답 업체의 종업원 수

	5명미만	10명미만	30명미만	50명미만	50명이상	합계
응답업체수	0	17	32	26	25	100
비율(%)	0.0	17.0	32.0	26.0	25.0	100

<표 4-3> 응답 업체의 직종 및 주력수출품

	제조업	서비스업	IT산업	건설업	농림어업	합계
응답업체수	46	21	23	6	4	100
비율(%)	46.0	21.0	23.0	6.0	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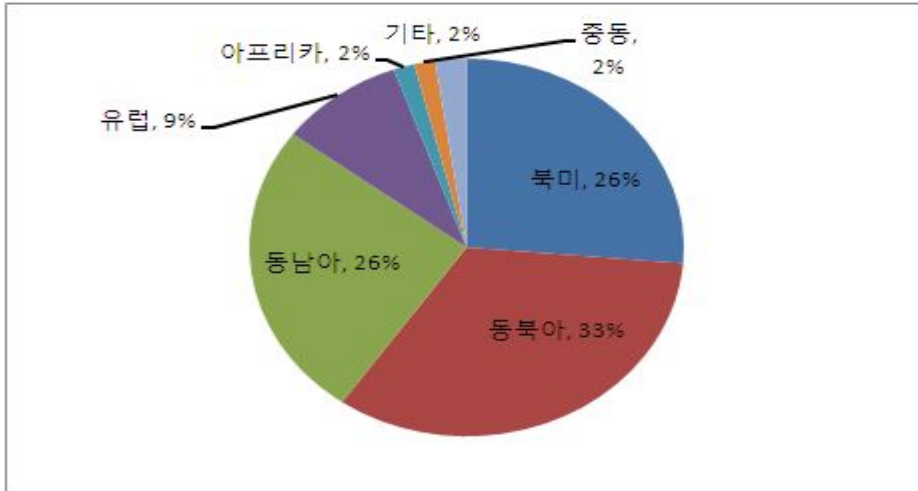
(2) 국제통상 현황과 문제점

국제통상 현황에 있어 수출업무를 하는 100개의 업체의 수출업무담당 종업원 수는 3명 미만이 30개 업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명 이상~5명 미만이 26개 사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거래 지역(복수응답가능)은 동북아가 33%로 가장 많이 수출거래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동남아, 북미가 26%로 다음으로 수출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4-4> 수출 업무 담당 종업원 수

	1명이하	3명미만	3~5명미만	5~10명미만	10명이상	합계
응답업체수	13	30	26	14	17	100
비율(%)	13.0	30.0	26.0	14.0	17.0	100

〈그림 4-1〉 주요 수출 거래 지역



수출업무 관련 애로사항에 관해서 보통이상으로 애로사항을 느끼는 업체는 92개 업체로 92.0%에 달하였다. 그 중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느끼는 업체는 22개로 나타났다으며 반면에 애로사항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8개 사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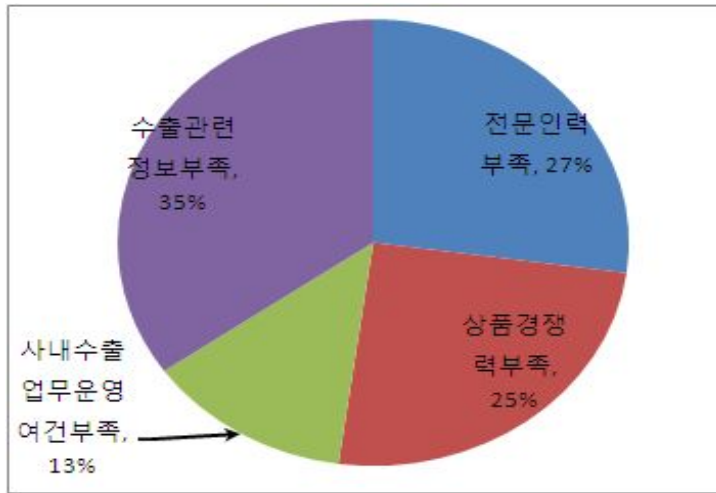
〈표 4-5〉 수출업무 관련 애로사항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합계
응답업체수	22	48	22	6	2	100
비율(%)	22.0	48.0	28.0	6.0	2.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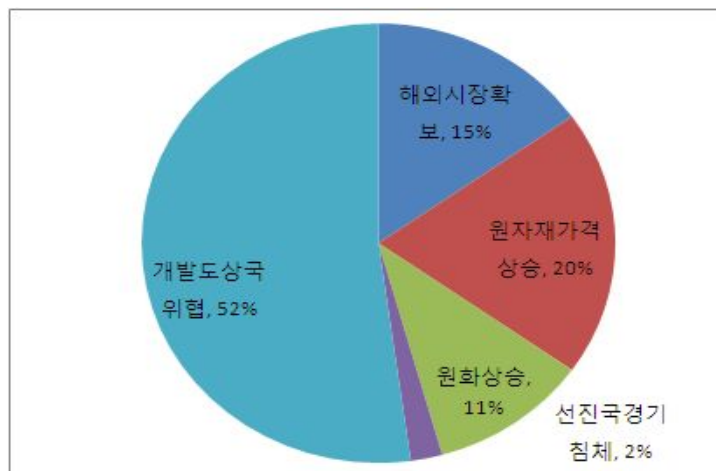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은 수출업무의 애로사항을 느낀다고 응답한 92개의 업체 가운데 내부적 애로요인으로는 수출관련 정보부족이 가장 크다고 35%가 답변하였으며 전문인력 부족이 27%, 자사상품경쟁력부족이 25%, 사내수출업무운영여건부족이 13%를 차지하고 있다.

외부적인 애로사항으로는 중국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위협이 52%를 차지하였으며 원자재가격 상승(20%), 해외시장확보의 어려움(15%), 원화상승(1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2> 내부적 애로사항



<그림 4-3> 외부적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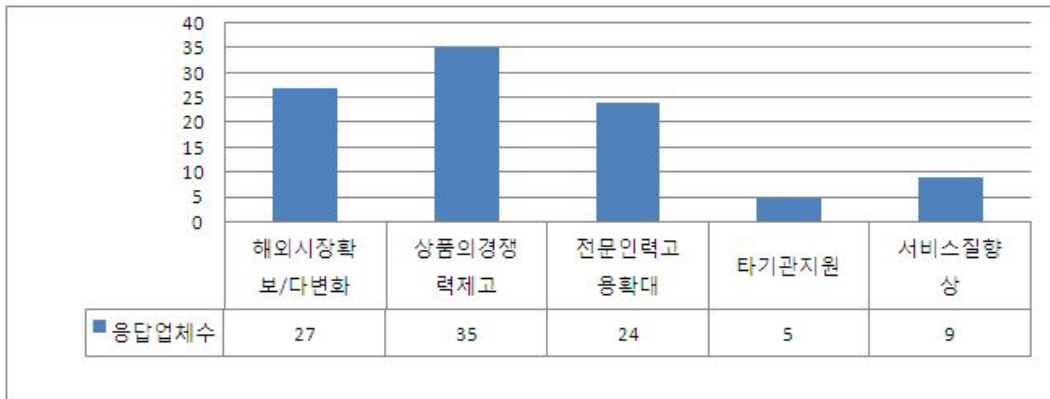
업체의 향후 수출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보통이상으로 답변한 업체가 63개 업체로 63%를 차지하며 자사의 수출전망을 부정적으로 답변한 업체는 37개 업체로 37%를 차지하였다. 위와 같은 애로사항 속에서도 자사의 수출 전망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 자사의 향후 수출 전망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합계
응답업체수	14	22	27	31	6	100
비율(%)	14.0	22.0	27.0	31.0	6.0	100

업체의 상품 수출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상품의 경쟁력제고를 희망하는 업체(35개 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외 시장확보/다변화(27개 사), 전문 인력 고용확대(24개 사), 서비스 질 향상(9개 사), 타 기관 지원(5개 사) 순으로 많았다. 업체들은 자사의 상품경쟁력 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경쟁력 제고 시킬 방안이 가장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4> 수출 활성화를 위한 희망 활동



(3) 국제통상 활성화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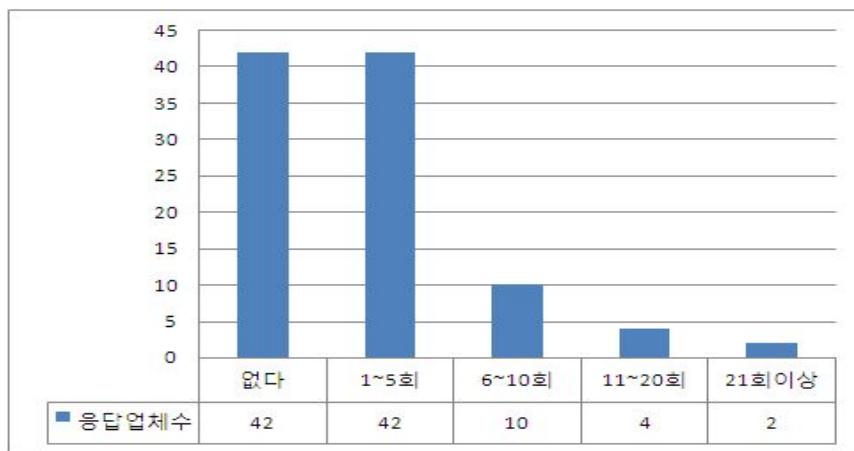
국제통상 활성화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무역 업무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업경영단체(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로부터 정보를 얻는 업체가 48개로 조사되었으며 독자적으로 무역업무 관련 정보를 얻는 업체가 27개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보를 얻는 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 국제통상 관련 정보 출처

	독자적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경영단체	학연기관	합계
응답업체수	27	23	0	48	2	100
비율(%)	27.0	23.0	0.0	48.0	2.0	100

반면 중앙정부 및 산하 유관기관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70개의 업체가 정책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자주 접하나 30개의 업체들은 정책기관의 정보를 접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5〉 수출 지원 정책 도움 유무



무역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수출 지원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1~5회 참여한 업체는 42개 사,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42개로 조사됐다 21회 이상 참여한 2개의 업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지원정책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58개의 응답 업체 중에서 중앙정부산하기관(대한무역진흥공사, 수출보험공사 등)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가 23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기업경영단체(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가 20개, 중앙정부기관(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의 12개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8> 수출지원정책 제공 기관

	중앙정부 기관	중앙정부 산하기관	지방자치 단체	기업경영 단체	기타	합계
응답업체수	12	23	0	20	3	58
비율(%)	12.0	23.0	0.0	20.0	3.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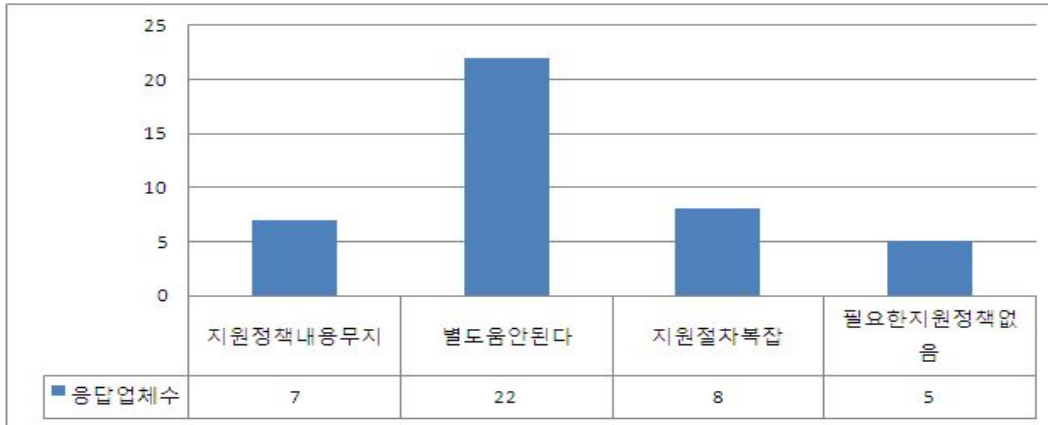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응답 업체 대상으로 참여한 수출지원 프로그램(복수응답)은 다음과 같다. 응답 업체 중 수출상담 프로그램(34건)에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 다음으로 국내외 전시지원(16건),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10건), 해외마케팅지원(9건) 순으로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조사되었다.

<표 4-9> 수출지원 프로그램

구 분	참여 건수
국내외 전시지원	16
해외마케팅지원	9
수출상담	34
수출도우미활용지원	2
제반금융업무지원	1
전문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10
해외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4
수출상품 온라인 수출지원	0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5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1
맞춤형 무역현장지원단	1

반면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정책을 받아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답한 업체가 22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지원절차가 복잡하다고 답변한 업체가 8개였으며 지원정책 내용을 몰랐다고 응답한 7개 업체가 있었으며 업체 특성상 필요한 지원정책이 없다고 답변한 업체가 5개가 조사되었다.

<그림 4-6> 수출 지원 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그렇다면 향후 정부, 지자체 및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수출지원을 받아볼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4명, 그렇다 22명, 보통이다 16개로 모든 업체(42 개)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지원정책내용을 몰랐거나 수출지원 프로그램이 별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한 것과 상관없이 향후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수출지원 정책을 제공하는 정책기관은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보와 산업별, 수출상품별 적절한 수출 지원 정책 마련 및 지원 절차의 간소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모든 설문조사 대상 업체들을 상대로 향후 지원받고자 하는 희망 프로그램 선정 질문(복수응답)에는 국내외 전시지원(21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외마케팅 지원과 금융업무지원이 각각 19건으로 많았으며 해외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이 16건, 해외규격인증획득 규격사업이 15건, 글로벌 브랜드육성사업이 13건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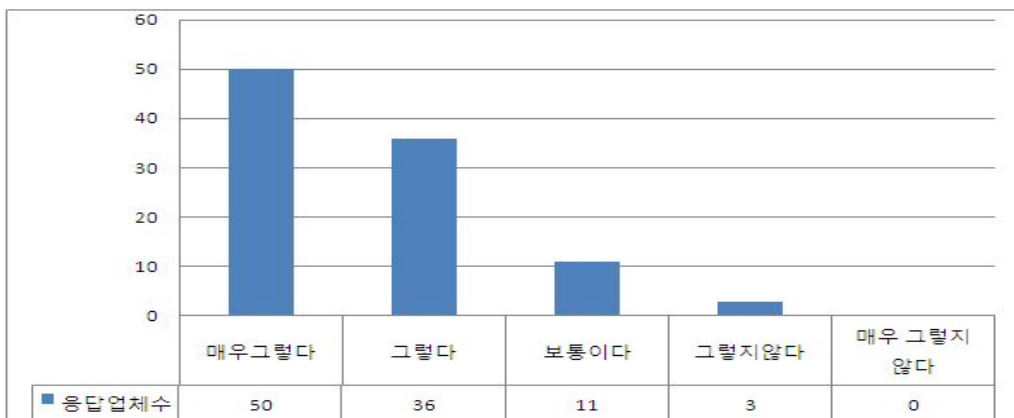
<표 4-10> 희망 수출지원 프로그램

구분	건
국내외 전시지원	21
해외마케팅지원	19
해외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16

계반금융업무지원	19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5
수출도우미활용지원	11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	13
수출상품 온라인 수출지원	1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0
맞춤형 무역현장지원단	11
수출상담	9
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4

무역 유관기관들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이 기업의 국제통상 활성화에 중요성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100개의 응답 업체 중 50개(50.0%) 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보통이다 이상의 답변이 97개(97.0%)를 차지하여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그림 4-7>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



다음 표는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횟수와 유관기관들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을 교차 분석한 것이다. 표를 보면,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서 수출지원 프로그램이 기업의 국제통상 활성화에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1회 이상 참여한 업체들은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보통이상으로 답변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무역유관기관들이 제공하는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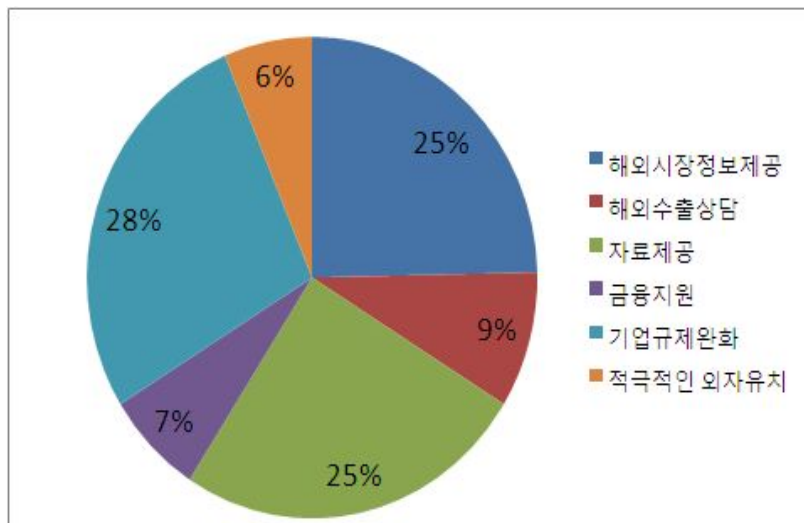
업체들은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상당히 긍정적이며 중요성을 인정하는 편이었으나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수출지원프로그램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1> 수출지원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른 지원제도의 중요도

		지원중요여부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지원 체 공 여 부	없다	13	20	6	3	0
	1~5회	22	15	5	0	0
	6~10회	9	1	0	0	0
	11~20회	4	0	0	0	0
	21회이상	2	0	0	0	0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국제통상 활성화를 위해 강화해야 할 부분에는 기업규제완화가 전체 응답비중 28%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해외 시장 정보제공과 수출 관련 자료제공이 각각 2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4-8> 지자체가 국제통상 활성화를 위해 강화해야 할 부분



제2절 지역산업 글로벌화 방안

1. 우리나라 지역산업의 글로벌화 지원전략

① 수출지원정책의 주체가 지역별·업종별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정확히 파악

수출지원정책의 주체이면서 공급자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무역유관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지역산업 및 기업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수출확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Obben & Magagula, 2003) 수출지원 정책을 제공받을 기업의 수출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수출지원 정책은 기업의 경영자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어, 결과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수출지원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김인호, 2004) 따라서 수출지원정책의 주체가 지역별 산업의 분포와 기업의 특징을 지속적으로 정확히 조사하고 각 업종별 수출경쟁력을 파악하여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다양한 단계에 목표를 둔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지역별·업종별 산업의 정확한 비교·분석을 마친 후에는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평균적인 수출기업에 맞추어 수출지원 정책이 실시되기보다 다양한 단계의 목표를 둔 정책이 되어야 한다(Kumcu, harcar, & Kumcu, 1995. p. 164). 2008년 한국은행의 「제조업 업종별 특성과 수출경쟁력」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의 업종별 세계시장 점유율을 수출경쟁력 지표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여 업종별 특성¹³⁾이 수출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따른 결과는 외주활동, 고용의 유연성,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수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금융비용과 물류비용이 높은 산업은 수출

13)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과 무관한 임금변화, 노동투입량 변화, 이직률 및 이직률의 합, 연구개발투자가 변수로 작용하였다.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경공업은 노동생산성과 고용의 유연성, 중화학공업은 금융비용과 외주 활동이 각 산업의 수출경쟁력제고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업종과 관계없이 중견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은 수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출기업의 금융비용을 경감시키고 외주 활동을 장려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업종의 성격에 따라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노력이 필요하다. 위에서 말했듯이 경공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요인은 노동생산성과 고용의 유연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경공업 부문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증대 및 고용의 유연성 향상, 노동투입량 증대 등과 같은 노동관련 요인 개선이 필요하나 중화학 공업은 금융비용, 외주활동이 수출경쟁력 제고 요인이므로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외주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업종과 관계없이 중견기업의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수출경쟁력이 높다는 분석으로 인하여 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두고 있다.

③ 기업이 원하는 수출지원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요구

다음 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3)에서 한국의 중소제조기업 1,0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여 발간한 「중소제조업 마케팅활동 및 애로요인 조사 보고서」에서 제시된 해외수출지원제도의 중요도·활용도·만족도에 대한 중소제조기업의 평가이다. 무역유관기관의 각 수출지원제도 25개의 중요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볼 때, 조사대상 수출지원제도의 중요도 평균이 56.3점으로 중소제조기업 경영자에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외규격인증획득이 60.8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받았으며 e-Trade 기업화 사업이 51.2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다.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활용도의 평균은 10.2%로 매우 낮은 가운데 해외전시박람회 참가가 28.1%로 가장 높았으며 세계일류상품선정제도가 0.6%로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만족도를 보면 활용도가 제일 낮았던 세계일류상품 선정제도가 만족도 면에서 90.0%로 가장 높은 반면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이 47.6점으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요도가 가장 높았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은 만족도가 64.6점, 활용도가 가장 높았던 해외전시박람회 참가는 60.3점의 만족도를 얻었다.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57.6점으로 지원제도의 실제 활용에 비해 만족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4-12〉 해외수출지원제도 중요도·활용도·만족도평가

해외수출지원제도	중요도	활용도(%)	만족도
세계일류상품 선정제도	53.3	0.6	90.0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60.8	21.1	64.6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60.1	28.1	60.3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60.7	20.0	59.3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55.5	14.7	59.3
해외무역관의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	55.3	9.9	59.2
수출상담회 개최	57.5	18.9	58.8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59.1	13.4	58.5
선진국 시장개척지원 사업	58.1	8.5	58.5
인터넷 '중소기업관' 운영	53.9	9.2	57.4
수출 Incubator 설치, 운영	53.9	4.2	57.0
중소기업 Trade & Investment Mission 파견	51.4	3.3	57.0
해외시장 개척기금 저리융자 지원	59.8	6.6	56.9
무역인력 구인·구직 알선서비스	54.2	6.9	56.1
KOBO 전자카탈로그 제작지원	54.6	9.9	55.6
수출유망상품 인큐베이터 사업	54.7	4.0	55.6
수출기업화 사이버거래 알선	53.3	7.4	55.3
e-Trade 기업화 사업	21.2	6.2	54.7
해외시장 조사 및 바이어 발굴	60.5	16.0	54.5
중소기업 수출컨설팅 지원	57.5	9.5	54.1
중소기업수출대행 지원사업	56.8	7.7	53.8
우수중소기업제품 해외홍보지원	59.8	8.8	53.3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53.2	6.4	53.1
수출상품 온라인 홍보서비스 지원	55.3	5.6	52.3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57.6	6.8	47.6
평 균	56.3	10.2	57.6

자료 : 김인호,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2004

주 : 중요도 및 만족도는 전혀 중요치 않음(매우 불만족) 0, 중요치 않음(불만족) 25, 보통 50, 중요함(만족) 75, 매우 중요함(매우 만족) 100의 가중치를 부여한 합계를 응답빈도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점수(만점 100점).

위와 같이 수출지원정책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홍보가 부족하거나 수출기업화나 수출확대에 대한 관심의 부족, 그리고 수출활동 자체가 이미 고도화 되어 있어 외부의 지원을 크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인지도 및 활용도가 높았던 수출지원 제도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제도 내용의 질 향상과 사후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인지도나 활용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출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Kumcu, Hacar, & Kumcu, 1995; Nadiu & Rao, 1993)에 의하면 수출지원정책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주로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수요자인 기업 간의 수출목적이나 지원요망 사항 등에 대한 의사소통의 미흡, 기업의 수출활동의 역동성 등에 대한 이해 부족, 수출지원정책의 내용 부실 또는 홍보 미흡, 수출지원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자체 및 무역유관기관들은 국내수출기업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기업들이 원하는 수출지원 정책을 파악·지원하여 지원제도의 활용도 및 만족도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④ 차세대 성장산업 발굴 및 인재 육성

현재의 수출 효자 품목들은 과거에 5~10년을 내다보고 단행한 과감한 투자와 인재 확보 등 부단한 노력의 산물들이다. 따라서 차세대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로봇, 바이오/나노, 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와 전문 엔지니어링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차세대 성장산업에 필요한 우수 인재 확보에 전념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만큼 글로벌 인재는 물론 국내 우수 인력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차세대 성장산업의 기반으로써 우수 인재의 확보 및 육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사내 인재의 유지 및 세대 간 노하우 전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사내풍토의 조성 및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김인호, 2004).

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본고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기업들은 자사 상품 경쟁력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향후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경쟁력제고를 가장 희망하고 있다. 우리수출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이 과거에 비하여 향상되었으나 중국 등 신흥개발도상국들은 혁신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갖추어 바짝 추격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수출기업들과는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수출기업의 경쟁력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혁신을 통해 경쟁우위를 창출해야 하며 정부는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존연구¹⁴⁾에 따르면 수출품의 차별화도¹⁵⁾가 높을수록 수출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R&D 투자가 수출품 차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품의 차별화를 높이기 위해서 R&D 투자를 확대하고, 전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 전통적 노동집약적 산업 내에서 자본 집약도를 증가하여 고급화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각 산업 내에서 생산된 수출품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출기업 간 정보교류를 확대하여 초기수출비용을 감소하고 다양한 국가와의 FTA를 추진하여 관세 등 가변비용감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은 세계 속 국가이미지향상을 위하여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긍정적 이미지를 세계에 적극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하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기업은 수출품의 고급브랜드화로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저가 코스트상품과 차별화하고 선진국에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혁신활동이 필요하다.

14) 강기천, 「한국 수출품 차별화의 현 실태와 차별화 방법」, 수출보험, 2006

15) 경제학적 관점에서 제품을 차별화한다는 것은 각 상품이 가진 특징을 변화시킴으로써 대체상품을 적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기천, 2006)

2. 대전지역 산업의 글로벌화 지원전략

① 대덕 R&D 특구의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구축

대덕 R&D 특구는 전술했듯이 연구 인력과 관련기관이 집적되어 연구능력이 우수하지만, 과학기술의 사업화와 글로벌화 수준에는 미약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덕 R&D 특구의 최종 목표인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대전 내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는 대덕 내 유치업종을 R&D 기능을 수반하는 첨단 업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한정하고 있다. 고도기술 보유 첨단기업 또는 다국적 우량기업은 국내입주를 기피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 소요기간이 평균 3~5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투자유치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표 4-13>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국내기업 유치 시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에 따른 수지개선으로 국가경제력 강화 외국의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투자기업 및 R&D 센터 유치 시 장기간 소요 부지 매입, 보조금 지원 등에 막대한 국가·지방재정소요 고도기술 미 보유 일반기업 유치 시, 경제과급 효과미약
국내 기업 유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부가가치 산업위주의 우수기업 선별 유치로 단지 첨단화 우수기업 유치로 고용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조기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자본 이동에 따른 국가경제력 강화요인 감소

자료 : 대전광역시 투자통상본부

따라서 대전시는 장기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우량기업 및 외국R&D센터 위주로 유치방향을 전환하고 외국 R&D 전문화 단지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임덕순의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글로벌 현황 및 전략」에 의하면 대덕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외국기업 사업 환경 조성, 외국인 정주여건의 개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시급한 과제로 분류하였다.

외국기업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외국기업을 유인할 만한 매력 있는 요인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기업에 대한 인력 및 세제지원을 통해 외국기업이 국내 우수 연구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보조를 확대하며 입주기업에 대해서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 One-stop의 행정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며 대전시·대덕특구지원본부에 외국기업 지원 관련 전문가 및 조직을 확대하여 비즈니스정보 제공, 애로사항 해결,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조율을 지원해야 한다.

임덕순의 연구에서 외국인에 대한 생활문화 개선책조사에서 외국인의 의견으로 의사소통 인프라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으며 의료 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대전시 및 대덕특구지원본부 내 외국어 능력 소유자를 대전 내 각 대학교 및 국제학교 등을 통해 많이 보유하고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대덕특구 내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 교육기관을 확충하고 학비 부담경감 정책 및 자원 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자녀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2010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혁신클러스터 국제학술회의인 국제 사이언스파크협회(IASP) 총회 유치에 성공했듯이 해외 주요 클러스터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과학도시 대전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 선진 혁신 클러스터와 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 권역별로 해외협력거점¹⁶⁾을 마련하여 지역 과학기술정보 획득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

②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대전만의 브랜드 형성

전술했듯이 대전지역은 3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제조업의 구조는 취약하여 소득의 유출이 빠른 개방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금융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고 대기업 등 선도기업의 부재 등 기업 활동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잘 갖추

16) 중관촌의 경우에는 해외에 5개의 거점을 가지고 있다.

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이 지역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첨단 제조업의 비중을 늘리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뤄야 한다.

대전시는 지식경제부의 ‘2008년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¹⁷⁾(RIS)’에 전국 1위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안경렌즈 산업이 선정되어 특화연고산업으로 육성된다. 국내 안경렌즈산업은 선진국의 고가품과 중국의 저가품에 위협받아 현재는 8위 생산국 수준이다. 안경렌즈산업은 전통산업과 첨단기술이 접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전이 현재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수출규모도 전국 1,150억 원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전의 새로운 연고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는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으로 ‘04년에 2건이 선정돼 사업을 이미 마쳤고 ‘06년에는 ‘대전지역 Wireless Valley 구축을 위한 고주파부품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07년에는 ‘대전조립금속 및 기계 산업 고도화 육성 지원 사업’이 선정돼 한창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대전시는 대전만의 브랜드를 발굴 및 고급 브랜드로 육성하여 글로벌 시대에 경쟁해야 한다. 전국의 정부 출연 연구소 및 대학의 기술 사업화 상호 교류 증진의 기회를 마련하고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술 개발자에게 기술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도입자에게 아이템 제공의 장을 마련하는 ‘대덕특구 첨단기술사업화대전’ 처럼 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교류와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활성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우수상품을 발굴하여 지역별 우수 및 아이디어 상품을 한데 모아 그 중에서 최우수 상품을 선정하는 대회를 마련하여 지역 간 경쟁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대전지역으로의 기업유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6년 기준 시도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비중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사업체 수 전국대비 47%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 전국대비 51%를 차지하는 압도적으로 높

17)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육성을 위해 산학연등의 지역 혁신주체가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서비스, 네트워크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요소를 연계 추진하는 패키지형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사업기간 3년 이내로 과제당 연간 평균 10억 원 정도가 지원된다.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으로 사업체와 노동인구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기업의 본사는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방 소재 기업은 규모가 영세하다. 기업이전은 2000년부터 2007년 까지 1,614개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용 100인 이상기업은 1,401개로 전체의 14%에 불과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표 8 > 전국과 지방의 사업체 수 비교

구분	전체 사업체	1,000명이상 사업체	상장사 1,000개	신설법인 비중
전국	3,226,569(100%)	373(100%)	1,000(100%)	100%
지방	1,718,611(53.3%)	152(40.8%)	291(29.1%)	38%

지방의 기업유치에 있어 기업은 저렴하고 자유로운 산업입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방은 정부정책이나 각종 규제가 있는 토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들은 입지관련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지방투자 유인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기업과 지방간에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않아 정보부족현상이 존재하며 지방간 기업투자 유인 경쟁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교하여 지방은 R&D, 기술인력 등 혁신형 창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따라서 대전의 기업 유치 및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전과 관련하여 지방이전 기업 또는 기업군에게 입지선택과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기업 필요에 맞게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 수용권 및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종전의 복잡하고 유사한 기업입지 제도를 체계화, 단순화, 통합화 하고 세제감면, 고용보조금, 임대료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지방간 기업유치 경쟁을 위해 2008년 7월3일~4일에 처음 개최되었던 제 1회 지역투자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내·외 기업과 지자체 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지방별 차별적인 투자인센티브, 기업경영환경 등을 조성하며 경쟁을 유발한

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보조금 및 인력지원 등 실질적인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지방 투자환경과 서비스 경쟁 촉진을 통해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지방기업 투자펀드 등 지방투자자금 확충과 신기술창업 클러스터 조성, 인력양성 사업예산의 확대, 지역진흥사업의 R&D 비중 확대 등의 효율적이고 핵심요인을 지원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위와 같은 활동으로 기업유치·투자와 창업활성화를 이루어 고용창출 및 소득이 증대됨으로써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는 지방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제5장 결 론

본고에서 우리나라 지역별 산업구조 분석과 국제통상 현황을 고찰한 결과, 수도권은 의류, 전자정보기기, 반도체산업의 생산비중이 높으며 타 시도보다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연구비 투자나 연구 활동이 활발하며 외국인기업의 투자비중이 제일 높았다. 동남권은 조선산업과 항공우주기반산업의 생산 비중이 높으며 울산의 경우 2008년 4월에 지자체의 월 수출액으로 최초로 70억불을 초과하였다. 울산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선박의 호조로 인한 것으로 2008년 하반기에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 예상된다. 대경권은 철강 산업, 전자정보기기, 섬유 분야의 생산비중이 높았으나 대구는 1인당 임금이 높고, 금융환경, 인프라환경, 정책 환경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개도국의 강관류 수요증가와 도금강판 수출증가, 철강재가격상승으로 대경권의 2008년 하반기 철강 산업 수출은 높은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다. 호남권은 석유화학, 가전분야의 생산비중이 높으나 수도권으로의 자금유출이 심해 금융환경이 나쁘고, 임금이 높고, 노동력의 질이 낮아 노동환경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사업 환경과 기술개발 환경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금융환경, 노동환경, 토지환경, 인프라환경 등이 모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의 2대 특별광역권으로의 개편되어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충청권은 자동차, 정밀기기, 전자정보기기의 생산 비중이 높으며 내재적 역량조사 결과 연구개발 인력이 수도권 다음으로 높으며 R&D 관련 산업의 비중이 높다. 이것은 대전의 대덕R&D특구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은 항만과 공항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인프라 환경을 제외하고는 노동환경, 기술개발환경, 정보화 환경, 사업 환경 등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중점이 되는 대전시를 살펴보면, 먼저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 추이에서 90년대까지는 제조업의 비중이 지속하여 증가하나 2000년부터 19%

대로 하락하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하락하는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2004년 68.6%로 90년대 50%대보다 급속히 증가하여 대전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고착되었다. 전형적 소비도시로서 디지털 경제의 발전, 물류유통망의 확충과 고속철도 및 도로의 확충으로 지역의 소득을 외부로 빠르게 유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돈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제조업 비중은 낮은 반면, 소비도시의 개방형 경제구조를 갖는 대전의 취약한 산업구조는 경기 침체의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경기가 하락하면 경기침체의 영향을 크게 빨리 받는 반면,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경기상승의 영향을 작고 느리게 받는 단점이 있다.

대전지역은 지난 30년간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30조원이 집중 투자되어 왔으며 2004년 대덕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 2005년 “대덕 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마련, 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하여 특구 육성 기반 및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덕연구단지의 첨단기술을 활용,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혁신 클러스터 구축으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7년 기준 정부출연기관 21개, 기업부설연구소 43개, 정부투자기관 9개, 대학 6개, 기업 762개로 861개의 기관들이 대덕R&D특구 내에 입주해 있다. 대전의 1인당 GDP는 16개 시·도 중에 12위에 해당하지만 인구 1만명당 연구원 수, 연구비, SCI논문, R&D예산, 학사졸업, 연구기자재 투입지표는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허등록, 벤처기업 수는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대덕R&D특구는 아직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전문적 기술사업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연구성과의 사업화율이 낮으며 민간 기업에 기술이전이 된 후 출연연의 관심이 지속되지 않는 등의 대덕R&D특구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전지역에는 정착된 벤처캐피탈, 투융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은행, 정책자금기관의 부족이 벤처기업의 사업화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활동에 있어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않아 연구 성과의 확산과 실용화가 낮은 수준이다. 첨단 기업의 창업·성장하기 위한 환경이 취약하며 일본, 중국, 대만, 미국의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와 비교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미흡한 점 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2008년 하반기 수출전망을 살펴보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정보통신을 비롯한 주요 10대 수출 품목은 호황이 예상되나 그 만큼 수입량 및 수입액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문제점은 그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개발도상국의 추격은 바짝 쫓아 오고 있다. 산업경쟁력으로 이미 중국은 MP3, 의류 분야에서 한국을 앞섰으며 2010년에는 이동통신장비, 철강 분야에서도 중국이 앞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해외마케팅 능력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전문 인력 부족, 제품의 질·기술 부족 등의 기업 국제화 활동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기관, 중앙정부산하기관, 지자체, 기업경영단체 등 여러 유관기관들이 대기업 보다는 상대적으로 금융적, 전문적인 무역업무 능력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수출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출, 보증 등의 금융적 지원뿐만 아니라 수출상담, 환율변동에 따라 생기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위험관리부터 국내외의 유명한 무역전시회에 참가를 지원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개척단 파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상품을 발굴하여 기술과 디자인 개발부터 해외 마케팅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세계일류상품제도,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시키는 사업, 법률, 무역, 회계 등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수출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직접 도움을 받는 수출도우미·수출지원단 사업이 있다. 무역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며 초보 무역인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컨설팅, 경영자문 등을 지원하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행정업무 서비스를 도우며 애로사항 해결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협력하여 공동으로 개최하여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대상기업 및 예산을 확대하여 더 많은 국내의 수출기업이 효율적으로 지원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과 수도권 및 기타지역 수출업무를 하는 업체 1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업무 관련 애로

사항의 경험유무에 관해서 보통이상으로 애로사항을 느끼는 업체는 92개 업체로 92.0%에 달하였다.

92개의 업체 가운데 내부적 애로요인으로는 수출관련 정보부족, 외부적인 애로사항으로는 중국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위협을 꼽았다. 업체의 향후 수출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보통이상으로 답변한 업체가 63개 업체로 63%를 차지하며 자사의 수출전망을 부정적으로 답변한 업체는 37개 업체로 37%를 차지하였다. 위와 같은 애로사항 속에서도 자사의 수출전망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체의 상품 수출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상품의 경쟁력제고를 희망하는 업체(35개 사)가 가장 많아 업체들은 자사의 상품경쟁력 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경쟁력 제고 시킬 방안이 가장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무역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수출 지원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1~5회 참여한 업체는 42개 사,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42개로 조사됐다 21회 이상 참여한 2개의 업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 업체 중 수출상담 프로그램(34건)에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 다음으로 국내외 전시지원(16건),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10건), 해외마케팅지원(9건) 순으로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조사되었다.

반면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정책을 받아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답한 업체가 22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그렇다면 향후 정부, 지자체 및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수출지원을 받아볼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4명, 그렇다 22명, 보통이다 16개로 모든 업체(42개)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그리고 무역 유관기관들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이 기업의 국제통상 활성화에 중요성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100개의 응답 업체 중 50개(50.0%) 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보통이다 이상의 답변이 97개(97.0%)를 차지하여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지원정책 내용에 대해 잘 모르거나 수출지원 프로그램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과 상관없이 향후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수출지원 프로그램이 기업의 국제통상 활성화에 중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수출지원 정책을 제공하는 정책기관은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보와 산업별, 수출품별 고안된 수출 지원 정책 개발 및 지원 절차의 간소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국제통상 활성화를 위해 강화해야 할 부분에는 기업규제완화가 전체 응답비중 28%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해외 시장 정보제공과 수출 관련 자료제공이 각각 2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의 내용들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기업의 국제통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지원정책의 주체이면서 공급자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무역유관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지역산업 및 기업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별·업종별 산업의 정확한 비교·분석을 마친 후에는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평균적인 수출기업에 맞추어 수출지원 정책이 실시되기보다 다양한 단계의 목표를 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와 기업은 동시에 차세대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로봇, 바이오/나노, 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기술 개발 및 차세대 산업에 필요한 우수 인재 확보에 전념해야 한다. 넷째, 향후 우리수출기업의 경쟁력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혁신을 통해 경쟁우위를 창출해야 하며 정부는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대전지역의 대덕 R&D 특구의 최종 목표인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대전 내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외국기업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인력 및 세제지원을 하며 외국인의 원활한 사업운동을 위해서 One-stop의 행정서비스 지원이 요구된다. 외국인의 편안한 생활문화를 위해 의료 환경 및 외국인 자녀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해외 주요 클러스터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대전이 지역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첨단제조업의 육성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대전만의 브랜드를 발굴하여 고급 브랜드로 육성하여 글로벌 시대에 경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전지역으로의 기업유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기업 뿐만 아니라 대전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국내 대기업 등의 선도기업이 유치되어 대전의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Glocalization 시대 속에서 지역기업의 국제통상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각 지역의 산업구조와 수출입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책기관들이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확대 및 글로벌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수출 지원 정책에 관해 살펴보았다. 특히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대전의 산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충청권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수출지원정책의 참여도를 조사하였다.

지역별 국제통상 활성화 방안은 기존 연구에서 많이 연구된 것이나 우리나라 지역별과 대전지역을 분류하여 글로벌화를 다룬 것은 본고의 의의라 할 수 있지만 충북, 충남, 대전, 수도권 등의 지역에서 각 25개 업체, 총 10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전체 지역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의 및 수출지원정책의 참여도를 논한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대전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지역기업의 내실화 및 지역자율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각 지역차원에서 산업별, 분야별 수출기업의 현 실태를 분석하여 혁신주체들과 무역유관기관, 무역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수렴을 통하여 예산, 지원조직 등 세부적인 전략과 국제통상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기천(2006), “한국 수출품 차별화의 현 실태와 차별화 방법”, 수출보험
- 김영수(2008),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핵심 성과지표 설정과 분석”, 산업연구원
- 김영일(2007), “수출지원저책 인지도 및 활용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중소수출기업을 위한 비재정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 김찬준(2008),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에 따른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소고”, 산업연구원
- 김득갑(2007), “국내 기업의 수출확대전략”, 삼성경제연구원
- 김인호(2004),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 김정홍(2007), “최근 10년간 지역별 요소투입과 산업성과 변화”, 산업연구원
- 이상용(2006), “대덕연구개발특구활성화를 위한 혁신지원기관의 역할”, 대전지역혁신연구회
- 이병기(2005),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이원섭(2008), “광역경제권 구축 방향과 과제”, 산업연구원
- 임덕순(2006),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글로벌 현황 및 전략”, 대전지역혁신연구회
- 최윤기(2007),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권역별 경제구조”, 산업연구원
- 황혜란(2006), “대덕연구개발특구 세계화 전략도출을 위한 기초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한국은행(2007),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 대전발전연구원(2006), “대전경제발전 중장기 계획”
- 대전발전연구원(2008), “새 정부 하 대전경제 활성화 방안연구”
- 산업연구원(2008), “2008년 경제·산업전망”
- 대전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2006), “대전 제 3·4산업단지 기술력 설문조사 분석결과”
- 대전광역시 투자통상본부, “2007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계획”
- 대전광역시 투자통상본부, “대덕 테크노 밸리 내 외국인투자지역 활용방안 검토보고”
-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www.metro.daejeon.kr)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www.mke.go.kr)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본부 홈페이지 (www.ddinnopolis.or.kr)
대전 제 3,4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 (www.dicox.co.kr)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com)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한국은행 (www.bok.or.kr)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한국수출보험공사 (www.keic.or.kr)
대덕넷 (www.hellodd.com)

정책연구보고서 2008-11

지역경제 국제통상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Global Commerce Activation of the Local Enterprise

발행인 육 동 일

발행일 2008년 12월 31일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월평동 160-20)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 TEL 042-○-○ FAX 04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